

제2권

문화

1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 01 인구, 늘었다가 줄고 다시 늘고
- 02 산과 고개, 산과 고개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이야기
- 03 집성촌, 일가친척이 모여 살며 대를 이어온 마을
- 04 마을 의례,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현장
- 05 교육, 향교부터 학교까지, 배움의 현장
- 06 시장, 예나 지금이나 매일 열리는 양주의 시장
- 07 축제, 시민을 하나로 만드는 시·공간

2

전통문화의 향연

- 01 지역별 문화재, 양주의 보물
- 02 회암사, 왕실이 사랑했던 사찰
- 03 절, 양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 04 신도비, 비문으로 만나는 역사와 인물
- 05 정려문, 양주의 충신·효자·열녀
- 06 암각문, 바위에 새겨진 글자로 읽는 옛 선비의 모습
- 07 놀이, 온 동네가 흥겨운 추억 한마당

3

산 따라 물 따라 이야기 따라

- 01 설화, 이야기로 읽는 양주의 속살
 - 1. 이야기로 만들어진 세상
 - 2. 유명한 인물의 신기한 이야기
 - 3. 동물이 얽힌 신기한 이야기
 - 4. 신기하고 기이한 이야기
 - 5. 행운이 찾아오는 이야기
 - 6. 속임수 이야기

02 김삿갓, 양주에서 태어나 세상을 방랑한 시인

- 1. 회암동에서 태어난 김삿갓
- 2.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방랑자
- 3. 양주에서 만나는 김삿갓 풍류길
- 4. 김삿갓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 5. 김삿갓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

03 임꺽정, 양주에서 태어난 조선 최고의 의적

- 1. 도적과 의적의 갈림길
- 2. 백정의 아들이었던 임꺽정의 삶
- 3. 임꺽정과 양주지역
- 4. 흥명회가 되살려낸 임꺽정
- 5. 임꺽정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

04 양주 여행, 역사를 따라가는 길

- 1. 여행과 관광의 달라진 의미
- 2. 양주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 3. 양주의 역사 속 인물을 만나러 가는 여행
- 4. 행정과 교육의 역사적 공간을 찾아가는 여행

05 유원지, 즐거움과 추억을 위한 공간

- 1. 일상을 벗어난 놀이 공간
- 2.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장흥유원지
- 3.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있는 계곡, 송추유원지
- 4. 기차역과 봉우리 사이의 일영유원지

06 양주 체험, 짙은 문화의 향기가 있는 관광

- 1. 체험과 휴식을 위한 관광
- 2. 꽃과 향기가 있는 양주 관광, 나리농원과 숲길정원
- 3. 특별함을 체험시켜주는 마을
- 4. 걷고 쉬며 만나는 관광, 아세안자연휴양림과 우이령길
- 5. 자연과의 건강한 만남, 장흥자생수목원과 양주 자연생태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제1편

제1장 인구, 늘었다가 줄고 다시 늘고

제2장 산과 고개, 산과 고개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이야기

제3장 집성촌, 일가친척이 모여 살며 대를 이어온 마을

제4장 마을 의례,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현장

제5장 교육, 향교부터 학교까지, 배움의 현장

제6장 시장, 예나 지금이나 매일 열리는 양주의 시장

제7장 축제, 시민을 하나로 만드는 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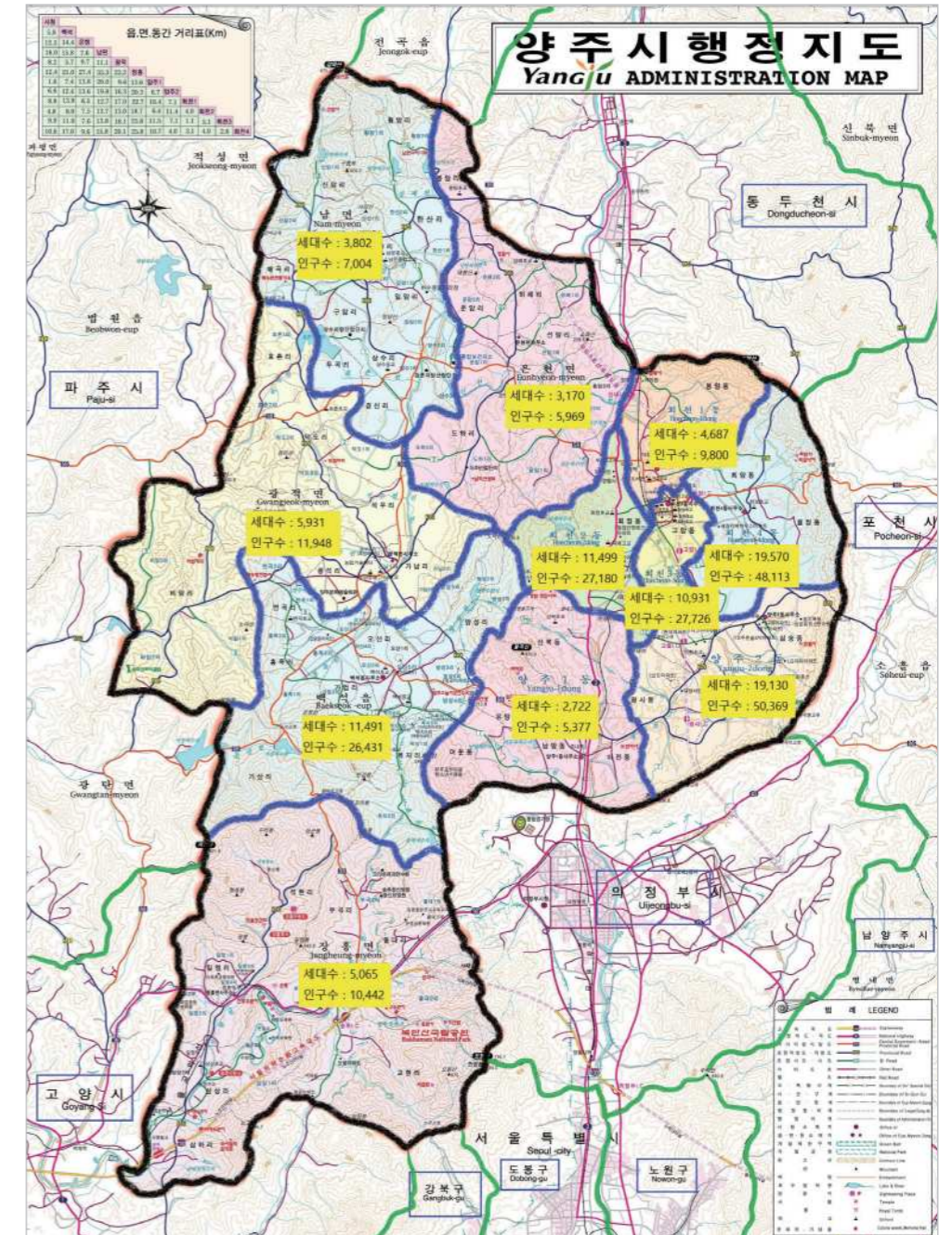
1

인구, 늘었다가 줄고 다시 늘고

1. 한 지역의 역량, 인구

인구는 말 그대로 특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숫자나 그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양주의 인구라고 하면 양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양주시 인구를 검색하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세대는 9만 7,998가구, 총인구는 23만 359명, 인구 밀도는 743명 등의 통계 자료가 표시된다.

또 인구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국민이나 인종, 민족 등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다른 민족이든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모두 인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구는 한 지역의 특성을 살피고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들어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면 사는 사람이 줄어 인



양주시 읍면동별 세대수와 인구수(2020년 12월 말 기준)

구가 줄어들다는 점에서 인구야말로 그 지역이 지닌 거주 안정성을 잘 보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양주 지역의 경우 해방 이후 동두천과 남양주 등 여러 지역이 양주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신도시가 조성되고 교통 사정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양주 지역이 과거보다 살기에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는 이렇게 거주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감소와 증가 추세에서 사회 변화도 읽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에 산업화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농촌의 인구가 줄어든 것도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계속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이고, 농촌 지역이었던 양주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인구의 동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구조사는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성별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 직업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 결혼이나 학력과 같은 사회적 요소, 국적과 같은 문화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며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주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조선 건국 이후인 1395년부터의 일이다. 이전까지는 국토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호구나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게 불가능했다. 다만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의 역사서에 단편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본격적인 인구조사가 행해진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1회 호구조사가 실시되었고 군현별로 호적대장이 작성되었다. 호구조사는 가구의 소재지, 호주의 신분, 4대조의 신분 및 성명, 호주의 아내, 호주의 아내의 4대조 신분 및 성명, 동거인과 호주의 관계, 소유한 노비와 그 노비의 신분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당시 인구조사의 목적은 오늘날과 조금 달랐다. 과거 인

구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의무, 즉 세금과 군역을 위한 것이었기에 조사의 내용도 거기에 집중되었다.

본격적으로 인구 통계가 작성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의 일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3년까지 매년 호구조사를 시행했다. 한편 광복 후 1949년에 인구조사가 행해졌으나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소실되었고, 1955년 9월 1일에 간이 인구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인구조사의 역사 속에서 양주 지역의 인구조사와 통계를 통해 사회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인구 변화

조선시대의 인구조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인구 자체보다는 부역의 부담자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렇게 호구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호구조사는 노동이나 군역과 관련이 있는 남정(男丁), 즉 15세 이상의 남자가 언제나 조사의 중점이었다.

조정에서는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시행해서 호적을 정비했다. 호구(戶口)는 집과 인구를 의미하는 말인데, 인구를 의미하는 구는 대체로 남자 장정을 뜻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양주 지역의 인구

단위 : 호 · 명

연도	출전	호구(戶口)		성별(性別)		비고(명)
		호	구	남	여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481	2,726	-	-	
17세기	『여지서』	8,249	41,602	-	-	
18세기	『여지도서』	11,256	53,547	23,624	28,927	
1789년	『호구총수』	12,456	60,425	-	-	전국 740만, 경기 64만
1871년	『읍지』	12,251	60,362	30,236	30,126	
1897년	『독립신문』	16,751	66,975	36,693	30,282	
1909년	『민적통계표』	17,768	85,667	44,995	40,672	경기 122만여
1925년	인구주택총조사		107,219	-	-	전국 1,952만, 경기 202만
1937년	『조선환여승람』	19,240	107,056	-	-	
1940년	『양주군지』 (1978)		120,100	-	-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양주 지역의 인구는 표에서 보듯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조선 초 15세기의 기록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당시 양주 지역은 1,481호에 2,726명이 살고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여지서』에서 보듯이 17세기에 들어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즉 2,726명이었던 인구수가 4만 1,602명으로 1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16~17세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큰 전란과 대기근을 거쳤음을 생각할 때 특기할 만하다. 17세기 이후에는 과거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났다. 18세기에는 5만 명을 넘었고 19세기에는 6만 명을 넘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8세기 말인 1789년에 편찬한 『호구총수』의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수가 740만여 명이고 경기도는 64만여 명

이었는데, 당시 양주 지역이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인구수로만 따지면 당시 양주 지역은 전국에서 12번째로 큰 지역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19세기 후반의 기록인 『읍지』에 따르면 18세기의 말의 인구수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십 명 줄어들었다. 또 30여 년 후인 1897년 『독립신문』의 자료에 따르면 여자의 수는 『읍지』와 거의 변함이 없으나 남자가 6,0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힘들다. 다만 당시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여러 변화의 바람이 인구수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오늘날에 행하는 인구조사의 목적과 조금 달랐고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확도가 낮다.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1909년에 나온 『민적통계표』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양주 지역의 인구는 8만 5,667명으로, 그보다 10년여 전의 자료인 『독립신문』의 6만 6,975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이 실제로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인지 조사와 통계의 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민적통계표』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의 인구수는 122만여 명이고 양주 지역은 여전히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계 자료에서 양주 지역의 인구수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1925년의 인구주택총조사이다. 당시 전국 인구수는 1,952만여 명이고, 경기도는 총 인구의 약 10.3%인 202만여 명이었으며, 양주 지역의 인구수는 경기도의 5.3%인 10만 7,219명이었다.

이렇게 10만 명을 넘긴 양주 지역의 인구는 일제강점기 내에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1925년과 1937년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163명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1940년에 다시 12만 명을 넘기는데, 이런 증감 요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8만 명을 조금 넘었던 인구가 일제강점기 내에 10만 명 언저리를 유지하다가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1940년에 12만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해방 이후 인구 변화

참혹했던 일제강점기가 종식되고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에서 인구조사가 처음 행해진 것은 1949년의 일이었다.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양주 지역의 인구는 16만 300명(통계청 자료는 16만 2,678명)으로 10년여 전보다 4만여 명이 증가했다. 16만여 명 가운데 남자는 6만 2,502명이고 여자는 7만 7,798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이후 한국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1955년에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다. 이때 양주 지역의 인구는 18만 7,599명으로 1949년 조사보다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그 5년 후인 1960년의 인구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25만 3,719명으로 꽤 많은 수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양주 지역의 인구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1961년 25만 5,361명이었던 인구수가 이듬해인 1961년에 18만 8,943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조금씩 회복해서 1973년에야 1960년 수준인 25만 8,315명으로 회복했다.

1960년대 양주 지역의 인구 변화

단위: 명

연도	인구	연도	인구	연도	인구
1961	255,361	1965	210,470	1969	232,476
1962	188,943	1966	226,202	1970	248,839
1963	194,704	1967	222,575		
1964	202,914	1968	227,949		

비고 : 인구 통계는 통계청의 자료와 『양주군지』(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음.

1960년대의 인구 변화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되어 있다. 즉 1962년에는 원래 양주에 속했던 중랑구·도봉구·노원구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되어 나갔고, 이듬해인 1963년에는 의정부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역시 양주 지역에서 분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인구의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의정부에 있는 미군 부대가 빠지면서 양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감소했다.

한편 1965년에서 1966년에 인구가 증가한 것은 미군의 주둔지역인 동두천읍과 주내면, 별내면의 인구 변화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65년 동두천읍의 가구 수는 8,883호였는데 다음 해에 1만 1,295호로 증가했다. 역시 미군 주둔지역이었던 주내면과 별내면도 비슷한 양상을 드러냈다. 이런 현상은 미군의 움직임과 상인들의 움직임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1971년에 양주 지역의 인구가 8,000여 명 감소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동두천의 인구가 5,000명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군과 관련해 양주 지역 내 외국인 거주자의 현황도 눈길을 끈다. 일제강점기였던 1943년에는 당연하겠지만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주요 외국인은 일본인이 1,308명이었고 중국인이 47명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에는 중국인이 62명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일본인은 등록자가 1명도 없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 중국인들이 대거 거주자

로 등록했는데 1961년 272명이었고 대부분 의정부읍에 거주했다.

1960~1970년대 양주 지역 외국인 거주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등록	외국인	연도	등록	최다 외국인
1961	272	중국인(246), 미국인(21)	1970	135	중국인(89), 미국인(28)
1963	145	중국인(135), 미국인(7)	1972	184	중국인(127), 미국인(35)
1966	140	중국인(130)	1976	123	중국인(110), 미국인(8)

1970년대에 들면 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거주자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인,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인 등 외국인 거주자의 추세를 통해 지배 세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직업과 관련된 인구 통계이다. 1954년의 조사를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만 6,883명, 상업이 4,231명, 공무원이 3,415명의 순서로 나온다. 1960년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963년 11만 2,412명을 정점으로 6만여 명 안팎을 유지하는데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직업별 인구 추세

단위 : 명

연도	농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1954	66,883	400	4,231	
1958	55,552	569	6,082	
1962	59,031	3,052	7,448	7,052
1963	112,412	1,944	6,008	15,067
1965	61,543	2,282	9,064	22,459
1968	63,760	4,003	13,534	21,857

직업의 분류가 일정하지 않고 세세하지 않아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되지는 않지만, 1960년대까지는 전통적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수이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업과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4. 1980년대 이후 양주의 인구 변화

양주 지역의 인구는 1980년대에 다시 큰 변화를 겪었다. 이 현상은 양주 지역에서 다시 진행된 행정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기존에 양주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남양주와 동두천이 분리되면서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인구가 감소한 탓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에 남양주군이 분리되었고, 1981년에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해당 읍의 7면이 양주 지역에서 떨어져 나갔다. 한편 1983년에는 은현면 상패리가 동두천시에 포함되었고 기사리와 영장리가 인근 파주군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의한 대대적인 인구 변화는 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1980년대까지의 인구 변화는 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양주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도	인구	비고
1975	277,986	
1980	133,924	감소 원인 : 남양주군 분리(1980.4.1.)
1985	74,407	감소 원인 : 동두천시 승격 · 분리(1981.7.1.)
1990	84,672	
1995	94,507	
2000	110,299	
2005	152,007	변동 사항 : 양주시 승격(2003.10.19.)
2010	187,911	
2015	205,988	
2020	230,359	

1980년대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주 지역이 축소되면서 인구 감소가 나타났고, 그 이후 한동안 전체 인구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은 가구 수에서 농가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양주 지역이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상업이나 제조업 등의 발전으로 비농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당시 서울 주변의 도시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가구당 평균 가족의 수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1990년 무렵에 전입과 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90년에 인구 8만 9,663명 가운데 3만 1,443명이 전입 및 전출을 했는데, 전체 주민의 약 35.07%에 이르는 큰 변화이다. 이는 그만큼 이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으로 사회구조가 급격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양주군 조사요원 교육



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농촌 지역은 전출이 많고 도시 지역은 전입이 많은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과 도시 주변에 새롭게 들어선 중소기업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또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2000년대에 들면서 양주 지역의 인구수는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2003년에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고 옥정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 교통의 변화와 발달 등 양주 지역 자체의 변화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하고 있고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산과 고개, 산과 고개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이야기

1. 삶을 나누고 이어주는 산과 고개

인류의 삶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와 비례해 자연과 지리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문화의 기본적인 토대가 자연과 지리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은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산지가 많은, 그래서 산과 고개가 많은 한반도와 사막이 많은 중동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 삶의 기본인 의식주부터 달라진다. 옷을 입는 것도 다르고 생산되는 재료가 다르기에 음식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에게 태양은 매우 고마운 존재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태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태양

을 고맙고 선한 존재로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로도 인식한다. 이런 인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며 생활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반도는 산지가 많고 그 사이로 평야가 펼쳐진 지역이고, 양주지역은 그 축소판이라도 되듯 역시 산지와 평야가 병존하는 지역이다. 산지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나누는 산이 곳곳에 있고 그 사이로 고개 역시 많은 구조임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산과 고개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가 된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산신제를 들 수 있다. 오래전부터 양주지역은 마을마다 산의 신을 섬기는 산신제를 거행해왔다. 산의 영향이 신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산신제라는 점에서 산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고개는 공간을 막고 있는 산과 산 사이를 잇는 길이라는 점에서 소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포함해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녀왔다.

양주지역은 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산과 함께 많은 고개가 있고, 그 산과 고개마다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여기서는 쉬운 이해를 위해 산과 고개에 얽힌 이야기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2. 양주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남면

양주시 남면은 이름만 보면 양주시의 남쪽에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원래 양주시 남면이 연천군에 속했으며 연천의 가장 남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양주시에 포함된 뒤에도 그 이름을 그대로 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양주시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도 남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남면에는 파주시와 함께 걸쳐 있는 영험한 산인 감악산과 여러 고개가 있다. 감악산은 신라 때부터 경기 오악의 하나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지역을 대표하는 영험한 산이었다. 감색 바위라는 뜻을 지닌 감악(紺岳)이라는 이름은 검은빛과 푸른빛이 동시에 흘러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남면에 있는 고개 가운데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고개는 박석고개, 설마치고개, 잣바위고개 등을 꼽을 수 있다.

[감악산]

남면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감악산에는 글자가 지워진 빗돌대왕비와 당나라의 장수인 설인귀의 전설이 담긴 사당이 있고, 임꺽정과 남을진 등 양주 출신 인물들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박석고개]

박석고개는 남면 상수리와 은현면 운암리를 잇는 고개로 달리 박수고개라고도 불린다. 박석(薄石)은 얇은 돌이라는 말로, 고개에 얇은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또 박수고개는 남면 상수리에 유명한 박수무당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이 고개는 흩길이었고, 사람과 마차가 많이 다니면서 길 여기저기가 깨졌다. 게다가 비가 내리면 질척거려서 통행이 불편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산에서 생산된 돌의 조각들, 즉 박석을 고개에 깔아서 통행이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2차선 포장도로로 바뀌었다.

[설마치고개]

설마치고개는 남면 신암리와 파주시 적성면을 잇는 고개로 어룡고개, 어여고개, 설마령 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설마치는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설인귀와 관련이 있다. 설인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당나라의



감악산 전경



감악산 표지판



감악산비 전설 안내판

장수였던 인물로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설인귀는 특히 감악산과 그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가 전해온다.

설마치는 설인귀의 ‘설’ 과 말을 뜻하는 ‘마(馬)’, 고개를 뜻하는 ‘치’ 가 합쳐진 말이다. 설인귀가 신라의 삼국통일을 지원하기 위해 말을 타고 달리던 곳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실제로 설마치고개가 끝나는 과주지 적성면의 설마리도 이름에서 보듯 설인귀와 관련된 마을이다.

한편, 설마치고개의 다른 이름인 어룡고개나 어영고개는 왕이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마치고개는 예부터 과주지역과 양주지역을 잇는 중요한 통로로 여겼고 현재는 4차선 도로로 바뀌었다.

[갯바위고개]

갯바위고개는 남면 입암리에 있는데, 입암리(笠岩里)라는 말은 이 갯바위에서 유래했다. 갯바위는 높이 4.7m, 둘레 8.5m에 이르는 꽤 큰 바위다. 갯바위는 입암리 망당산 북쪽 기슭에 갯을 쓰고 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다.

옛날에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늙은 승려가 그에게 시주하러 오자 부자는 거지들의 등쌀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불평을 했다. 그러자 승려가 거지들을 막는 방법이 있다며 산 위에 있는 갯바위의 갯을 벗겨내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부자는 곧바로 갯을 벗겨 고개에 버렸다. 그러자 이후 부자는 망했고 동네까지 폐허가 되었으며 당연히 거지들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갯바위 북쪽에 과거 부자가 살던 집터가 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고개 이름이 갯바위고개가 되었으며 동네 이름도 갯바위나 입암리로 부르게 되었다.

3. 산으로 에워싸인 은현면

은현면은 남쪽으로 도락산, 북쪽으로 감악산, 북동쪽으로 소래산이 있고, 예전에 사천이라고 불렀던 강이 서쪽에서 들어와 동쪽으로 흘러나가면서 만든 분지를 농경지로 활용하며 살아온 지역이다. 은현면이라는 이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때 기존에 있는 묵은면과 현내면이 합쳐지면서 두 면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은현면은 백제와 고구려가 지배할 때는 내을매, 내이미라고 불렀고, 통일신라 때는 지역을 지나는 사천이란 강의 이름을 따서 사천현이 되었다가 진담면과 현내면이 되었으며, 진담면이 묵은면으로 바뀐 이후 은현면이 되었다.

[도락산]

은현면의 대표적인 산인 도락산에는 몇몇 전설이 전해진다. 먼 옛날 산들이 서울의 남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불곡산이 길을 막고 지나지 못하게 했다. 이에 화가 난 산 중 하나가 덕계리 동쪽으로 돌아앉았고, 그때부터 돌아앉은 산, 즉 도락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돌이 많은 악산이라는 뜻으로 돌악산으로 불리다 차츰 도락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도락산의 유래 중에는 역사와 관련된 것도 있다. 고려는 개국 이후 수도인 송도 주변 500리 땅의 산들을 조사했다. 이때 도락산만 송도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 달리 충신산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하고 수도를 남쪽인 한양으로 정하면서 이번에는 도락산만 한양으로부터 머리를 돌린 꼴이 되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산의 머리를 쳤고 그 때문에 이름이 머리가 떨어진 산, 즉 두락산(頭落山)이 되었다가 도락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도락산 주변에는 고려에 충성하며 조선의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은현면 봉내미고개



남을진 선생 신도비

이러한 이야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이다.

[봉내미고개]

은현면의 이름난 고개로는 봉내미고개가 있다. 봉내미고개는 은현면 봉암리와 은현면 하패리를 잇는 고개이다. 봉내미라는 말은 근처에 봉바위가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주장도 있다. 고개 주변에는 고려 말기의 충신으로 조선의 건국을 반대하며 하패리에 거주했던 남을진의 유적이 있는데, 그곳에 바위가 많고 부엉이가 새끼를 쳐서 봉황리라고 불렀으며, 차츰 발음이 변하면서 봉내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봉내미고개 주변에 도로가 생긴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 고개로는 잘 다니지 않으며, 고갯길에 남을진 선생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4. 넓은 들판을 품은 백석읍

백석(白石)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얀 돌을 가리킨다. 이 하얀 돌은 백석읍과 유양동에 걸쳐 있는 양주산성에 있었다고 전해지나 실제로는 없다. 그런데 백석이라는 이름이 전국 곳곳에 전해진다는 것과 그곳이 대체로 넓은 들판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들판을 뜻하는 우리말인 한들에서 발음의 편의상 한돌이 되었다가 그것이 흰돌을 거쳐 백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백석읍은 넓은 들판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은봉산]

백석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앵무봉, 한강봉, 은봉산, 노아봉이 이어져 있다. 이들 가운데 앵무봉은 생김새가 꾀꼬리처럼 예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달리 꾀꼬리봉이라고도 불린다. 은봉산은 다음의 유래담이 전해진다.

언젠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남씨 집안에서 장지를 고를 때 지관이 한 장소를 가리키며 바윗돌이 나오면 바위를 파내지 말고 그 위에 시신을 올리라고 묻으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신을 돌 위에 얹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바위를 파냈는데 그때 부엉이 세 마리가 나와서 하늘로 날아갔다. 그 이후 남씨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다고 한다.

이후 이 산은 은봉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은봉산은 봉황이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날아간 산이라는 뜻이며, 산의 정상에는 부엉이묘라고 전하는 곳이 남아 있다. 한편 은봉산에는 일제강점기 때 은을 채굴하던 굴이 남아 있어서 은봉산의 은이 이 은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

백석읍을 대표하는 고개로는 게너미고개라고도 불리는 해유령을 비롯해 군갈무늬고개, 소셋고개 등이 있다.

[해유령: 게너미고개]

해유령은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최초로 육지에서 승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해유령의 해유(蟹踰)라는 말은 게가 넘어갔다는 뜻으로, 우리말로로는 게너미고개라고 부른다. 이 고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먼 옛날 인근의 노고산에는 노고할머니가 살았다. 하루는 오줌이 마려워 한 쪽 다리는 노고산에 걸치고 다른 한 쪽은 반대쪽 도락산에 걸친 뒤 광적면 우고리와 광석리 경계에 있는 요강바위에 오줌을 누었다. 그런데 오줌이 넘쳐서 개울로 흘러들었다.

개울에 살던 민물 게들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바로 고개를 넘었다. 고



임진왜란 최초의 육지전 승리를 기념하는 해유령전첩지와 이정표



개를 넘은 민물 게들은 광적면 비암리와 파주시 팔랑리 쪽으로 향했다고 한다. 실제로 게너미고개가 있는 연곡리에는 민물 게가 없는데 비암리와 발랑리에는 민물 게가 살았다고 한다. 그 이후 게가 넘어간 고개, 즉 게너미고개라는 이름이 붙었고 한자로 해유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군갈무늬고개]

방성리에는 군갈무늬고개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금광을 찾기 위해 산허리를 뚫었을 때 금가루가 나와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은 주변에 군량을 갈무리해서 저장하던 곳이 있어서 군갈무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발음의 편의상 군갈무늬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소셋고개]

안골에서 기산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소셋고개에는 풍수지리에 따른 유래가 전해진다. 이 지역의 산세는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형국인데,

이곳에 묘를 쓰면 소새라는 새가 뱀을 쫓는 형국이 되어 가세가 기운다고 전한다. 다른 주장에 따르면 소새고개는 소 사이의 고개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5. 산으로 에워싸인 너른 들만, 광적면

광적면이라는 이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광석면과 석적면이 합쳐지면서 각각 한 글자씩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석(廣石)이라는 이름은 광석리에 펼쳐진 너른 들판에서 유래한 말이다. 즉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너른돌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광석이 된 것이다. 또 석적은 들판이 연이어 있다는 뜻을 한자로 표기해서 생긴 말이다. 그러니까 광적면은 너른 들판이라는 뜻이다. 넓은 들판에서 있는 광적면을 대표하는 산은 노고산이다. 또 광적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고개는 피고개와 수레네미고개, 황새등고개 등이 있다.

[노고산]

노고산은 광적면 우고리와 덕도리 그리고 파주 사이에 솟아 있는 산이다. 노고산의 노고는 늙은 할머니를 뜻하는 말로 전국 여기저기에 산재하고 있다. 노고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산들은 대체로 정상이 둥글고 오래된 모양을 하고 있다.

[피고개]

피고개는 광적면 효촌리와 덕도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피고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옛날에 강서방이라는 부자가 살았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시주를 부탁하기 위해 강서방을 찾아왔다. 그런데 강서방은 바람에 똥을 퍼주며 쫓아냈다. 모욕을 당한 스님은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다시 강서방을 찾아갔다. 그리고 강서방에게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지 물었다. 강서방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중에게 그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스님이 강서방 문중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 용이 물을 먹으러 내려오는 모습인 용혈인데, 그 혈을 자르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탐욕에 눈이 먼 강서방이 선산의 용혈을 잘랐다. 그러자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강서방의 집은 차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망하고 말았다.

이야기처럼 용의 피가 흘러나왔다고 해서 이후 피고개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임진왜란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 피가 내를 이룬 고개라고 해서 피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피고개 설화는 타자에게 인색한 부자에게 화가 내린다는 이야기로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국 곳곳에 전해진다.

[수레네미고개]

수레네미고개는 쉼 명이 모여야 넘어갈 수 있는 고개로 광적면 효촌2리에 있는 고개이다. 이 마을은 거미울마을로 불렸는데, 거미울은 수레와 말을 뜻하는 거마에서 왔다. 그러니까 거미울은 수레와 말이 다니는 길이 있었다는 뜻이다.

과거 거마울에는 주막이 있었는데 이 고개를 지나는 장사꾼들은 고개를 넘기 전에 이 주막에 모였다. 그리고 쉼 명이 모이면 고개를 넘었다. 그것은 몇 명만이 고개를 넘으면 강도가 나타나 물건을 빼앗기 때문에 쉼 명이 모여야만 고개를 넘었다. 그래서 쉼 명이 모여 넘어간다고 해서 쉼

넙이고개라고 부르다가 발음의 편의상 수레네미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황새등고개: 물안재고개]

황새등고개는 주변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고 그곳에 황새들이 많이 살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나무가 무성한 탓인지 성황당도 있었다고 전한다. 일명 물안재고개라고도 불리는 황새등고개에는 노고할미가 사용하던 요강바위도 있다.

6. 왕의 사냥터가 있던 장흥면

장흥면은 조선시대에 왕의 공식적인 강무장인 수렵 연습장이 있던 지역이다. 그만큼 산과 물이 어우러진 경치가 뛰어난 지역이었다. 장흥면은 양주의 읍면 가운데 가장 큰 지역으로 도봉산과 개명산이 있고, 곡릉천이 흘러내려 여전히 아름다운 지역이다. 그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도 송추와 일영 등 일찍부터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가 발달했다.

장흥면은 산지가 많은 탓에 고개도 많다. 울대고개, 소귀고개, 가마골고개, 고비골고개, 울티고개, 소머리고개 등이 그것이다.

[고비골고개]

고비골고개는 달리 말굴이고개라고도 불리는데, 고갯길이 험해서 과거 중국 사신이 타고 오던 말이 굴렀던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울대고개]

울대고개는 고개가 매우 높고 험해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울대고개 주변에는 사패산, 도봉산과 삼각산 등이 있어서 사방

으로 꼭 막혀 있는 느낌을 준다.

[소귀고개]

소귀고개는 우이령의 다른 말로 강북구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다. 장흥면에 속한 응달말에서 보면 중방고개와 갈비봉이 소의 귀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고개 너머의 우이동은 여기서 유래했다.

[소머리고개: 도둑고개]

소머리고개는 백석읍 북지리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도둑들이 농부의 소를 잡아먹고 머리만 남겨두었다는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그래서 달리 도둑고개라고도 불린다. 한편, 멀리서 이 고개를 보면 소머리처럼 생긴 것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도 한다.

[가마골고개: 윗닭나미고개]

가마골고개는 부곡리에서 의정부시로 가는 고개로 윗닭나미고개라고도 불리는데, 맹수에게 닭을 주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는 이 고개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닭을 들고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닭을 두고 달아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성황당이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당너머고개였고, 그것이 닭나미고개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7. 동(洞) 지역의 여러 고개

[샘내고개]

샘내고개는 산북동에서 덕계동으로 건너가는 고개로, 근처에 맑은 물

이 솟아나는 샘이 여럿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샘 가운데에는 꽃바위우물, 즉 화암정이라는 유명한 약수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다. 언젠가 서평강이라는 군수가 가림주구를 일삼는 악정을 벌이다가 쫓겨났다. 갈 곳이 없던 서평강은 이곳에 와서 살았는데, 동네 가운데에 큰 연못을 파고 그 흙으로 연못 옆에 언덕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그 옆에는 뒤주처럼 생긴 대감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밑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왔다. 샘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샘내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임진강으로 흘러들고,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 한강으로 흘러든다.

[망썰고개]

망썰고개는 남방동과 유양동을 잇는 고개이다. 신임 원님이 부임해 올 때 이 고개를 넘어왔는데 주민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던 고개(망현)라고 해서 망썰 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 유양동은 조선시대 양주군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고 원님이 거주하는 치소가 있었다.

[석문이고개: 석문령]

석문이고개는 달리 석문령이라고 불리는데 율정동과 포천시 소흘읍을 잇는 고개였다. 석문이고개라는 이름은 고개 옆에 돌문[石門]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문이고개는 “석문령이 양주목 동쪽 15리 지점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는 기록처럼 여러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고개 가운데 하나였다.

[어하고개]

어하고개는 삼승동에 있는 고개로 삼승동과 포천시 소흘읍을 잇는 고개이다. 고개의 이름이 어하가 된 것은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

사와 함께 당시 최고의 사찰이었던 양주는 회암사를 찾았다가 남쪽에 있는 이 고개로 내려온 것에서 어하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포장된 2차선 도로가 나 있다.

[백석이고개]

만송동에 있는 백석이고개는 하얀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다른 유래로는 이 고개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 고개를 넘으려면 백명이 모여야 했기에 백씩이고개로 불리다가 백석이고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3

집성촌, 일가친척이 모여 살며 대를 이어온 마을

1.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촉발한 부계사회와 집성촌

먼 옛날부터 인류는 모여 살았다. 대개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신석기시대 이후의 일이었다. 지구를 덮쳤던 오랜 빙하기가 끝나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사냥만으로는 모자랐던 식량을 얻기 위해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경은 그 특성상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유리했기에 사람들은 군락을 이루고 모여서 사는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형태 가운데 하나가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집성촌은 말 그대로 성씨와 본관이 같은 동성동본의 동족이 한 지역에 다수를 차지하며 의사 결정의 주도권을 발휘하는 마을을 가리킨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에는 집성촌이 꽤 남아 있다.

그렇다고 집성촌이 고대부터 흔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성촌이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가부장제를 토대의 하나로 삼는 유학의 세계관이 사회를 지배한 조선시대였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핵심은 아들, 특히 장자 중심의 중국식 상속제도와 부계 중심이었다. 다만 조선의 지배층이 건국 초부터 유학을 숭상하고 지배 이념으로 받아들였으나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사람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날과 마찬가지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고, 균등하게 상속했다. 즉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았고, 친가와 외가 또한 차별하지 않았다. 심지어 딸과 함께 사는 경우도 허다했고, 부모의 제사는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지내는 게 보편적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자 중심, 즉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집성촌이 형성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풍속이 많이 무너지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성촌들이 생겨났다. 두 차례의 비극적인 전란 이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세계관에 가부장제가 깊게 그늘을 드리우기 시작했고, 사회 전반의 흐름을 유학의 가르침이 주도했다. 유학이 본격적으로 사회의 이념이 되었고, 부계 중심의 사회적 질서가 확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동성동본인 동족이 모여 사는 것이 상속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집성촌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집성촌이 집중적으로 등장한 17세기의 대표적인 사회 변화의 특징은 유교 중심의 세계관이 사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한편, 양주지역은 수도 한양과 매우 가까웠기에 새로운 변화의 파도가 곧바로 밀려오는 곳이었다. 한양과 가깝다는 점은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하기에도 유리했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양주지역에는 17세기 이후 많은 집성촌이 형성됐다. 다만 제한된 지면의 한계 때문에 여기서는 양주지역의 모든 집성촌을 다룰 수는 없다. 대신 아쉽지만 몇몇 특징에 맞는 집성촌을 소개하려고 한다.

2. 핍박을 피해 은거한 인물과 그 후손들의 집성촌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집성촌이 형성되는 원인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본다. 첫째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외부에서 촉발된 비극적인 전란을 피하거나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 도피해야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는 정부에서 받은 토지 주변에 집성촌이 형성된 경우이다. 셋째는 왕실 묘소 주변에 모여 살면서 형성된 집성촌이고, 넷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중앙 관직에서 물러난 뒤 정착하며 생긴 집성촌이다.

먼저 외부나 내부의 격심한 변화를 피해서 은거했다가 그 후손들에 의해 집성촌이 형성된 경우를 살펴보자. 이런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고려 말 조선 초 정권의 교체기에 양주지역에 은거한 인물이다. 조선의 건국은 당시 지식인에게 엄청난 변화였다. 과거의 왕조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인지 새로운 왕조에 출사한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신진사대부라는 이름으로 조선 건국에 참여하고 벼슬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거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벼슬길을 포기하고 은거한 인물도 많았다. 고려 말 조선 초 정권 교체기에 양주지역에 은거한 대표적인 인물은 남을진(南乙珍, 생몰년 미상)이다. 그는 양주지역에 정착한 의령 남씨 조상으로 그 세거지는 은 현면 봉암리이다. 그는 고려 말기 충신으로 꼽히는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등과 친구 사이였으며, 목은 이색과 함께 사은(四隱)의 하나로 꼽힌다. 그는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갔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망국을 예언했다. 그리고는 가족과 친구에게 나라가 망하는 걸 볼 수 없다며 봉황산 자락인 은현면 하패리에 은거했다. 조선 조정은 그에게 여러 차례 관직을 내렸으나 모두 거절했으며, 아예 세상과 인연을 끊기 위해 감악산 바위굴로 들어가 지내



양주지역 의령 남씨 입향조 남을진 선생 묘역



양주시 향토유적 남양 홍씨 홍지 선생 묘

다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의 후손들이 은현면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하였다.

남을진과 유사한 사례로 무안 유씨 유여흡(兪汝洽)이 있다. 그의 조상은 고려에서 높은 관직을 역임했는데 조선이 건국하자 전국으로 흩어져 살길을 도모했다. 형제들도 전국 각지로 흩어졌는데 유여흡은 철원으로 갔다

가 과거 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살았던 양주에 터를 잡았으며,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회천동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신안 주씨인 주승현(周承顯)은 고려가 망한 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저항하다가 환란을 당했다. 이에 그의 아내 진주 강씨가 자식을 데리고 양주지역으로 피신해 자리를 잡았으며, 이후 광적면 덕도리에 집성촌을 형성했다고 한다.

남양 홍씨 홍지(洪智)는 고려 때의 신하로 조선 건국 후 유배 갔다가 관직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러다가 죽음을 앞두고 조선의 관직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안 조정에서 남면 상수리에 명당자리를 묘역으로 잡아주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묘역은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이 잡아준 것이라고 한다. 남양 홍씨는 그 이후 이 지역에 약 600년을 세거하며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이렇게 국가의 변화에 따라 은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변화에 따라 은거한 인물들도 있다. 그 사례로 풍산 심씨 심사눌(沈思訥)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셋째 형 심사순이 누명을 쓰고 옥에서 사망하고 좌의정이었던 아버지 심정이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관직을 사퇴하고 처가가 있는 광적면 우고리로 들어와 정착했다. 또 한양 조씨 조윤수(趙允瑒)의 경우는 할아버지가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다가 실패하여 유배에 처해졌다가 교수형을 당하자 어머니를 따라 백석면 연곡리에 은신했으며, 이후 후손들에 의해 집성촌이 형성됐다.

3. 왕으로부터 땅이나 관직을 받아 정착하며 형성된 집성촌

집성촌이 생긴 또 다른 경우는 왕으로부터 사패지(賜牌地)나 관직을 받

은 경우이다. 즉 나라에 공로를 세우고 그 대가로 땅을 하사받아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했거나 양주지역에 관직을 제수받았다가 그대로 정착한 경우이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양주 최씨의 시조 최억(崔億)이다. 그는 고려 말기에 호부상서 등을 역임한 후 1353년(고려 공민왕 2)에 양주군(楊州君)에 봉해졌고 양주 땅을 사패지로 하사받았다. 그 이후 후손들이 양주지역에 정착했으며, 양주를 본관으로 삼아 양주 최씨의 집성촌을 형성했다.

이렇게 사패지를 받고 양주를 본관으로 삼은 성씨로 양주 윤씨도 있다. 양주에 정착한 인물은 윤송(尹崇)으로 고려 때 도첨의정승을 지내고 창화백에 봉해졌다. 창화(昌化)는 양주지역의 옛 이름으로 후손들이 본관을 양주로 삼았고 사패지로 받은 남면 구암리에 집성촌을 형성했다.

조상이 받은 사패지 때문에 이주해서 집성촌을 이룬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 중기인 현종 때의 유학자 부여 서씨 서필원(徐必遠)의 후손이 그들이다. 서필원의 후손들은 원래 충청남도 논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서필원을 총애했던 현종이 광적면 광석리의 땅을 하사하면서 이주해왔다. 광석리는 원래 효종의 사위인 인평위 집안의 땅이었는데 현종이 서필원을 위한 묘소로 땅을 내주었다. 이후 후손들이 서필원의 묘가 있는 주변으로 이주하면서 그곳에 집성촌을 형성했고 현재까지 그 가계가 이어지고 있다.

여흥 민씨 민무질(閔無疾)도 서필원과 유사한 경우이다. 민무질은 조선의 개국공신이었으나 태종 때에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이듬해 사약을 받고 죽었다. 세종 때 왕명으로 민무질의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유해를 거두어 은현면 용암리로 이장했으며, 이때 묘역을 조성할 수 있는 사패지를 받았다. 민무질의 유해가 은현면 용암리로 온 것은 그가 제주도로 유배갔을 때 그의 아내 청주 한씨가 가족을 거느리고 이곳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민씨 집성촌이 형성되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사패지를 받고 정착한 사례도 있다. 평강 채씨 채세번(채세번)은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며 혁혁한 전공을 올렸으나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 훗날 왕은 오늘날의 옥정동인 천보산 일대 10만 평 정도를 사패지로 하사하였고, 채세번의 후손들이 그곳에 집성촌을 형성했다.

한편 관직을 받아 양주지역에 왔다가 정착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고씨의 후손으로 장흥 고씨의 시조인 고중연(高仲椽)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1330년(고려 충숙왕 17)에 등과해서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공민왕 시절 홍건적의 침입 때 왕을 호위한 공로로 장흥백에 책봉되었고 장흥면 삼상리에 그 후손들이 모여 살았다.

진주 김씨 김춘산(김춘산)은 양주의 행판관(行判官)으로 발령을 받아 양주시 일영리에 정착했으며, 후손들이 그를 중시조로 삼아 향사를 봉행하며 마을을 이루어 진주 김씨 집성촌을 형성했다.

한편 왕실 묘소 주변에도 집성촌이 많이 형성되었다. 1934년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만 전주 이씨 집성촌이 144개 곳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것이다. 이는 경기도에 왕실의 묘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양주지역은 수도 한양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로 왕실의 묘가 유독 많았는데, 그 묘를 중심으로 전주 이씨 집성촌이 많이 형성되었다. 그 지역을 살펴보면 덕계동(경녕군파), 남면 신산리, 은현면 선암리(덕천군파), 광적면 우고리(무림군파), 광적면 가납리(효령대군파), 광적면 비암리(임언군파) 등이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첫 번째 비단경왕후 신씨의 능 운릉 전경(위), 홍살문과 정자각(왼쪽 아래), 비각(오른쪽 아래)

4. 혼인 후 정착하며 형성된 집성촌

양주지역에 형성된 집성촌은 대체로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하나는 혼인을 통한 정착으로 특히 남자가 장가를 와서 정착한 후 집성촌이 형성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여산 송씨 송진생(宋辰生)은 23세 때 철원 최씨와 혼인해서 양주지역인 은현면 선암리로 이주했다. 그는 정3품 정헌대부 이조판서를 지냈고 그의 후손 가운데 손자인 송질은 영의정에 이르렀다. 송질의 신도비가 은현면 선암리에 있는데 흥미로운 고사가 전해온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송질의 신도비를 해체해 가져가려고 했는데 비석에서 땀이 났고, 자르려는 곳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왜군들이 혼비백산 도망쳤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선조는 살아 있는 인간도 물리치지 못한 왜군을 물리쳤다면 불천위를 내렸다.

수원 백씨 백효삼(白效參)은 과거에 급제한 후 현재는 과주인 적성향교의 교도가 되었다. 그는 용모가 수려하고 학식이 뛰어나 혼담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양주 사람 범성만호 윤수의 사위가 되었다. 백효삼이 요절하자 남편 입암리에 있는 처가에서 묘를 조성했고 이후 차남과 손자, 증손자 백인걸, 현손 등이 양주 땅에 집성촌을 이루고 묘를 조성했다. 그런데 백효삼의 증손자 백인걸 대에 이르러 수원 백씨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과 관련해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것은 사촌이었던 백인호의 아들 백유양과 백인걸의 아들 백유함이 정여립 모반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면서 백유양이 매를 맞아 죽은 것이다. 이에 백유함의 후손들은 더 이상 양주의 집성촌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전라도로 이주했던 것이다.

함안 조씨 조권(趙權)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백부 밑에서 살다가



백인걸 선생 묘수원 백씨



암각문 「수원 백씨 각처 선농기」

양주 남면 한산리에 거주하는 한산 이씨와 결혼한 후 남면 구암리에 정착했다. 그는 매일 쉬지 않고 책을 읽으며 공부에 매진했다. 한번은 비바람이 불어 벽이 무너졌는데도 그 벽 아래에서 계속 책을 읽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공부한 보람이 있어서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나갔으나 40대에 요절하고 말았다.

5.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

양주지역은 역사가 오래되고 지리적인 환경으로 고려와 조선의 수도와 가까웠던 탓에 많은 사람이 정착하여 거주지로 삼았다. 이들 가운데 양주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집성촌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본관을 양주로 삼은 사람도 여럿 있다. 현재 10개의 성씨가 양주를 본관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중에는 본관으로 삼은 과정이 자세하게 알려진 성씨도 있으나 불분명한 것도 많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주를 본관으로 삼은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진 성씨로는 김씨와 송씨를 들 수 있다. 양주 김씨는 김지식(金之拭)을 시조로 하는데, 그는 신라 왕가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식은 고려시대에 양주지역을 다스리는 양주백(楊州伯)이 되었고, 그의 손자 김사익은 양주군(楊州君)으로 봉해지면서 이런 인연으로 양주를 본관으로 삼았다.

양주군에 봉해진 것을 계기로 양주를 본관으로 삼은 성씨로 양주 최씨도 있다. 시조 최억이 1353년 호부상서로 양주군에 봉해진 이후 그 후손들이 양주를 본관으로 삼으면서 양주 최씨가 유래했다.

한편 양주 송씨는 여산 송씨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시조 송도성(宋道成)의 윗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송도성은 조선 개국 때 장락원정을 지냈고, 여러 대에 걸쳐 양주에 거주하다가 전란을 피해 충청도 공주로 갔

다가 다시 영남지방으로 이주했다. 그 후손들은 양주에서 살았던 송도성을 시조로 삼아 양주를 본관으로 정했다.

시조가 정착한 것을 인연으로 양주를 본관으로 삼은 또 다른 성씨로는 윤씨와 이씨 등을 꼽을 수 있다. 양주 윤씨의 시조는 윤덕방(尹德方)이다. 가계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고려 때 관전의수사를 지내고 양주에 정착했다. 양주 이씨 이석송(李碩崇)도 양주에 정착한 인물로 후손들이 양주에 세거하면서 양주를 본관으로 삼은 사례이다.

양주지역에서 벼슬을 하다가 그대로 정착한 사례도 있다. 양주 조씨는 고려시대 양주호장이던 조통(趙通)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때 멸문지화를 당해 사료가 소실되면서 이전의 계통을 알 수가 없어 조잠(趙岑)을 시조로 삼았다. 또 견주 김씨는 시조가 김경표(金景杓)인데 광해군 때 현감을 맡았다. 견주(見州)는 양주의 옛 이름이다.

풍양 조씨의 시조는 조암(趙岩)으로 당시 양주지역에 속해 있던 천마산 밑에 거주하다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을 만나 공을 세우고 개국공신이 되었으며 맹(孟)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천마산 밑에는 그가 왕건을 만났다는 암굴이 있으며 견성암이라는 절이 세워져 있다. 이 외에 시조를 진인광(陳仁光)으로 하는 양주 진씨도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하나이다.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 일람표

성씨	시조 및 특기사항
양주 김씨	□시조 김지식: 선대는 신라 왕실 □5대조 김원보: 고려 때 양주백이 되었으며 대안군의 증손임 □김사의(김원보 손자): 청백리 선정, 양주군으로 봉해지면서 본관으로 삼음
양주 송씨	□여산 송씨의 갈래 □시조 송도성: 조선 개국 때 장락원정을 지냈으며, 그가 세거했던 양주를 본관으로 삼음
양주 윤씨	□시조 윤덕방: 판전의수사를 역임했으며, 고려 때 양주지역에 정착
양주 이씨	□시조 이석송 □이석송의 후손들이 양주에 세거하면서 본관을 양주로 삼음
양주 조씨	□시조 조잠 □고려 때 양주호장이었던 조통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짐 □1453년 계유정난 때 멸문지화로 자료 상실
풍양 조씨	□시조 조맹: 원래 이름은 조암으로 천마산에서 태조 왕건과 조우해 개국공신이 되었고 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음. □천마산 밑에 왕건을 만난 암굴 존재
양주 최씨	□시조 최약: 학문과 덕행이 높아 태사로 천거됨 □1353년에 호부상서로 양주군에 봉해지면서 양주를 본관으로 삼음
양주 진씨	□시조 진인광: 관직은 장야서령 역임
견주 김씨	□시조 김경표: 광해군 때 현감 역임

비고 : 『양주군지』(경기도 양주군, 1978)를 참고하였다.

6. 산업화의 진전과 집성촌의 해체

앞에서 살펴볼 것처럼 집성촌은 대체로 양반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후손이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양반의 지위를 잃고 평민이 되었다. 몇몇 유력 가문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 과정을 겪었다. 즉 집성촌도 양반이 다수를 차지한 반촌에서 일반 백성들이 다수를 차지



죽산 안씨 연창위 종가

하는 민촌으로 변했다. 그리고 차츰 다른 성씨들이 이주하면서 동족이 그 결속력을 잃거나 사라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조선시대에 남양 홍씨 등 22개의 유력 가문 집성촌을 포함한 많은 집성촌이 있었던 양주지역은 『경기도지』(경기도지편찬위원회, 1955)와 『양주군지』(양주문화원, 1992)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은현면의 전주 이씨를 비롯한 11개의 집성촌, 1950년대에 마전동의 광산 김씨 집성촌을 비롯한 47개, 1990년에 남면의 진주 강씨를 비롯한 62개의 집성촌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집성촌은 오늘날 역사의 뒤안길로 속속 퇴장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집성촌이 형성된 원인 중 하나인 가부장제가 쇠퇴하고, 공동체가 주는 억압을 지적하며 개인의 충실한 삶을 주장하는 개인주의가 득세하면서 동성동본의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성촌이 가진 장점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집성촌의 힘이 약해지고 쇠퇴하게 된 시발점은 1970년대 이후 한국에 불어닥친 산업화였다. 언뜻 한국전쟁 같은 전란이 공동체의 붕괴와 그에 따른 집성촌의 약화를 불러왔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쟁과 같은 불행은 오히려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집성촌의 몰락과 관련이 없다. 대신 전통사회의 대표적 산업이었던 농업이 상공업으로 바뀌는 산업화 과정이 집성촌과 농촌의 쇠퇴에 영향을 주었다.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를 불러오는데, 농촌의 청년들이 대거 도시로 나가거나 일자리가 있는 공장지대로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농촌은 자연스레 쇠퇴했고, 개인주의와 맞물리면서 집성촌은 몰락의 길을 걷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양주지역의 집성촌 또한 이러한 흐름과 다르지 않다. 특히 수도권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비교적 오랫동안 농촌 사회를 유지하면서 집성촌 또한 오래 유지되었으나 최근 들어 신도시가 조성되고 교통

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역의 전통적 성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결국 이미 쇠퇴하고 있던 집성촌 또한 급속도로 와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상은 양주지역의 빠른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향후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나마 지역에 산재한 집성촌 역시 민속 마을 지정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4

마을 의례,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현장

1. 다른 이와 함께하는 의례

마을 의례는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신이나 용왕처럼 마을에서 신앙하는 특별한 신에게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주로 산과 강을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부터 산을 다스리는 산신과 물을 다스리는 용왕에 대한 신앙이 강했다.

사람들이 마을 의례를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전의 일이다. 그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의례의 목적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시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즉 인류는 신석기시대 이후 안정적인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농사를 선택했다. 노동집약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진 농사를 짓게 되면서

대표적인 공동체 놀이인 줄다리기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했다. 따라서 마을 의례는 그 이후에 행해졌을 것이다.

그 이후 인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업혁명처럼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은 사례를 비롯하여 끊임없이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과 산업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집단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생활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여러 장점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이 지닌 한계 때문에 갈등과 다툼도 발생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개인과 집단이 삶을 함께 유지해야 했기에 갈등과 다툼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는 것은 또 있었다. 그것은 인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이다. 특히 산업혁명 이전의 날씨와 기후는 인류의 가장 주요한 산업이었던 농업과 어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

다. 자연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 주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이런 타자와의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종교나 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문화적인 장치들로, 축제나 의례, 줄다리기와 같은 전통놀이 등이다. 이렇게 갈등과 다툼을 조정하고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성숙해졌다.

의례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기억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살펴보면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여러 신을 그 중재자로 모시고 거행하는 의식이다. 달리 표현하면 의례를 통해 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 권위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려는 문화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 곁의 마을 의례

양주지역이 포함된 한반도에서 의례가 행해졌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문헌인 『삼국지』 「위지동이전」이다. 이에 따르면 파종을 끝낸 5월과 추수를 끝낸 10월에 풍요로움에 대한 기원과 감사가 담긴 의례가 행해졌다는 내용과 부여에서는 영고, 고구려에서는 동맹, 예에서는 무천, 마한에서는 시월제라고 부른다는 것, 여기에 더해 의례를 치르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다.

그 모습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부여의 항목에서 전해진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산신제 상차림



용신(용왕)에게 올리는 풍어제

以殷正月,祭天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삼국지』 「위지동이전」)

즉, ‘은나라의 달력으로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 안에서 여는 거대한 대회가 있어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고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인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셨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처음에는 나라 차원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차츰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이 세분화하면서 국가 외에도 사람들이 사는 각 지역에서 제사를 지내는 형태로 바뀌어 왔다. 제사의 형태는 예부터 전승된 샤머니즘의 전통에 더해 차례로 한반도에 유입된 종교인 불교와 유교 등의 영향이 더해졌다.

특히 17세기 이후 마을 의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유교였다. 유학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의례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의례의 대상이 되는 신부터 의례의 형태까지 전면적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예부터 하늘에 지내던 제사는 지역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중국의 천자만 가능하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마을 의례는 마을의 신인 도당신, 산의 신인 산신, 물의 신인 용신(용왕), 마을을 지키는 나무인 목신 등으로 바뀌었다. 또 과거 샤머니즘의 사제인 무당이 주관하던 제사의 형태도 유교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전통 샤머니즘 방식과 유교식 의례가 함께 행해지다가 1970년대 이후 농업에서 공업과 상업 등으로 산업의 중심이 변하면서 의례 또한 간단한 유교식 의례로 대부분 바뀐 상태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 등의 과정을 지나며 지역마다 행해지던 많은 의례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 양주지역은 도시화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늦으면서 마을 의례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이 남아 있다. 과거 양주지역의 마을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신제나 도당제와 같은 마을 의례가 행해졌다. 그것은 양주지역이 넓은 평야와 산지를 끼고 있고 주로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마을 의례를 지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마을에서 의례가 사라졌고 규모 또한 과거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양주지역의 마을 의례가 많이 사라진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일제강점기 때의 민족 문화에 대한 억압과 해방 직후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으로 마을이 붕괴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마을의 인구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된다. 또 이와 맞물려 기존 삶의 기반이었던 농업이 약해지면서 농사를 토대로 한 문화 현상 또한 약해진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오늘날 양주지역은 신도시의 건설 등으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어서 타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의 평화로운 존속과 유지를 위한 문화적인 장치인 축제나 의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면에서 양주지역의 마을 의례에 대한 재발견과 유지할 이유도 분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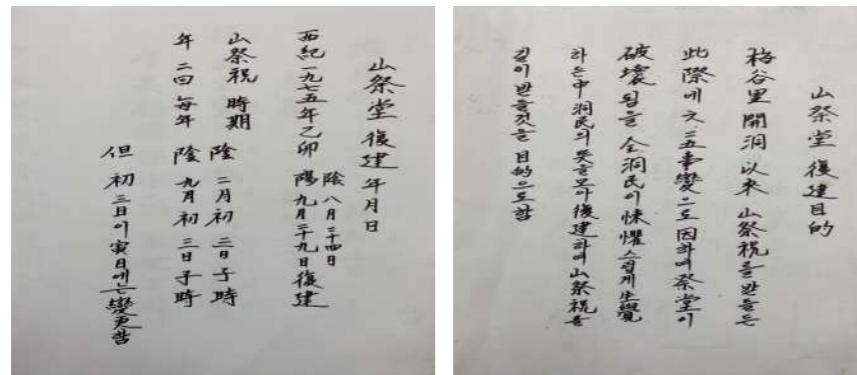
3. 양주지역의 마을 의례: 산신제

양주지역에서 가장 널리 많이 행해졌고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산신제이다. 산신제는 지역에 따라 산제, 산치성, 산고사, 산제사 등의 이름으로도 부른다. 그러나 이들 모두 산신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고 형식도 따로 구별되지 않기에 여기서는 산신제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한다.

양주지역에 유달리 산신제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양주지역이 산지가 많은 경기 북부에 속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사람이 눈으로 확인



한국전쟁 때 파손되어 1975년에 복원한 맹골마을 산제당(당집)



맹골마을 산제당 복건 목적을 기록한 문서

할 수 있는 자연 가운데 가장 높고 크며, 수렵과 채집의 주 대상이 산이었기 때문에 산신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산악신앙은 예부터 존재했으며, 양주지역의 산신제는 많이 보고되어 있다. 그 가운데 지금도 거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 산신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맹골마을 산신제 모습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맹골마을 산신제이다. 맹골마을은 양주시 남면 매곡리에 속해 있다. 매곡리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수원 백씨로 구성된 집성촌이며, 주변에 감악산을 비롯해 효촌 저수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맹골마을에서는 독특하게도 봄과 가을에 각각 산신제를 지낸다. 즉 매년 음력 2월과 9월에 날짜를 정해서(택일) 두 차례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다. 제사는 마을 뒷산에 있는 당집에서 지내는데, 이 당집은 한국전쟁 때 무너진 것을 1975년에 복원한 것이다. 그곳에는 제사에 필요한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

맹골마을 산신제에는 제관을 비롯해 6명의 사람이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제관은 마을의 어른이 맡고 축관은 이장, 나머지는 각각 산신제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준비한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은 당집에서 한다, 산신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당집으로 올라가 제물을 준비한다. 과거에는 제사상에 올리는 술인 조라를 미리 만들어 올렸으나 최근에는 마을에서 판매하는 전통주를 올린다. 산신제는 자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관을 갖추고 거행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은현면 도하1리(항동마을)에서 행해지는 산신제



도하리 마을회관과 보호수
(경기-양주-44)

이다. 도락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도하리의 다른 이름인 향동은 마을 입구가 목처럼 좁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 입구에 보호수가 서 있다.

도하리 향동마을은 도락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매년 음력 9월 1일에 도락산 산제사 터에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도락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향동마을에서도 과거에는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산신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가을에만 지낸다. 도락산은 불곡산과 더불어 양주시를 대표하는 산으로 예부터 주민들에게 믿음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향동마을도 과거에는 봄과 가을에 성대하게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향동마을 산신제를 지내는 곳은 예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던 공간이었으나 사유지가 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전쟁에도 멸절했던 신목은 전원주택을 지으며 베어냈고, 제단으로 쓰던 상들도 현재의 자리로 옮겨야 했다. 주민들은 산신제에 쓰는 제기함과 상여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광적면 가납리 가래비마을에서 행해지는 산신제는 한국전쟁 3년을 제외하면 매년 거르지 않고 지내왔다. 가납리 산신제는 제사를 지내는 터는 있으나 당집이나 신목이 없으며 어느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지 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도락산을 향해 지낸다는 점에서 도락산 산신에게 향한 제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근 가납리 능안말에서는 도락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왔으나 언젠가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가납리 산신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가납리 마을이 풍수지리에 따르면 봉어혈의 형국인 탓에 오리를 키우지 않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오리를 키우면 젊은이가 죽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산신제에 대한 믿음도 매우 강한데 2년 정도 산신제를 지내지 않자 청년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 이후 산신제를 거르지 않고 지낸다고 한다.

장흥면 교현리 산신제는 상장봉의 산신당에서 음력 9월에 지내는 제사이다. 원래는 3월 초와 9월 초 두 차례 산신제를 지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9월에만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산신제를 지내는 산신당은 상장봉 산자락에 있는데 별도의 건물은 없으며, 두 그루의 소나무를 당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다.

남면 경신리에서는 감악산 남쪽 월봉산 정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예전에는 소를 잡아 축제처럼 치렀으나 차츰 간소해졌다. 산신제를 지내는 당집은 없으나 주변에 오래된 나무가 있어 신목으로 생각했다.

이 외에도 양주지역에서는 여러 산신제가 행해졌다. 표는 디지털양주문화대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양주지역의 산신제를 정리한 것이다.

양주지역의 산신제 현황

지역	제사일	특징	신당 및 제당
광적면 가납리 (가래비마을)	음력 10월 1일	가래비마을 뒷산, 한국전쟁 3년 제외 매년 거행	도락산 산신으로 추정, 당집 없고 흙으로 만든 제단
광적면 가납리 (능안말)	음력 9월 9일	중단	도락산 산신에게 제사
광적면 효촌1리 (회내미마을)	음력 9월 3일		국사봉 산신, 당집은 원래 초가였으나 1971년 새 마을사업 때 시멘트 보수, 1994년 신축
광적면 효촌2리 (효계동마을)	음력 9월 2일		원래 시멘트 당집이었으나 2000년대 조립식 건물로 바뀜
남면 경신리	음력 11월 7일 이전(격년 시행)	상을 당하면 다음 해로 연기, 소머리와 다리는 참여 자끼리 나눔	월봉산 산신, 당집은 없고 주변에 신목(참나무) 있음
장흥면 교현리	음력 9월 2일 (또는 9월 3일)	과거에는 봄·가을 2회 제사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을만 지냄	상장봉의 산신당, 당집은 없고 소나무 두 그루 아래에서 제사
장흥면 교현리 (이안동마을)		마을 주위에 고속도로와 철길이 건설되자 1997년 장승을 세움	장승을 신물로 삼아 제사, 장승을 삼각산 산신으로 믿음
장흥면 울대2리	음력 10월 초	과거에는 큰 규모로 지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	태봉 밑 바위 주변, 바위 위 뒷산신제, 바위 아래 아랫산신제
장흥면 울대1리	음력 3월과 9월	과거에는 무당을 불러 굿 형식으로도 지냄	오봉산 산신 2명(할아버지, 할머니), 마을 동쪽 갓 바위 아래 당집(2칸 목조 기와집)
회정동(회정1리)		별말, 과골, 새골 중 별말에서 진행, 전통 마을 해체로 중단	과골 제당에 바위와 우물 있었음, 신당이나 신목 없음
백석읍 방성리	음력 10월 중	제사 후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나눠 먹음	불국산 산신, 당집이나 신목은 없고 제단 존재
백석읍 홍죽1리 (안골)	음력 10월(산신제)	음력 7월 1일(마미신 들제사)	은봉산 산신, 당집 없고 소나무 신목 있음, 산기슭에 산제터 있음
백석읍 홍죽2리	음력 10월 1일	인근 홍죽2리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제사	월암산 산신
백석읍 홍죽3리 (천죽)	음력 10월 1일	1970년대 산제당 앞에서 폭약 터뜨리자 마을에 홍사 발생, 1977년 굿을 통해 평화 되찾음	월암산 산신, 원래 당집은 토담 초가였으나, 1996년 시멘트 슬레이트 지붕 신축, 신목(굴참나무)
백석읍 기산리 (안고령마을)	음력 10월 1일	1990년대 이후 중단	고령산 산신, 원래 당집이 있었으나 1970년대 소실, 신목은 수령 200년 소나무
장흥면 부곡리	음력 3월과 9월 초 (2회)	윗가마골과 안골 따로 지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	인륜봉 산신, 인륜봉에 당집 있음(시멘트벽, 슬레이트 지붕)
유양동(유양리)	음력 8월	도당굿과 달리 남자들이 주관, 봄·가을 2회 제사했으나 현재 중단	불국산 산제터, 당산나무(600년 수령)
남면 신암리·황방리	신암리: 음력 9월 황방리: 10월 초	삼국시대부터 유래, 원래 봄·가을 2회 제사, 산신에 대한 믿음 존재	감악산 산신(매우 영험한 산신), 감악산 정상에 사당(감악사) 있음
어둔동	음력 10월 초	가을 동제 형식, 현재 중단	홍복산 산신, 2칸 규모의 당집 있었음
은현면 도하리 (항동마을)	음력 9월 1일	과거 봄·가을 2회 지냄	도락산 산신, 당집이나 신목 없음

비고 : 디지털양주문화대전에 소개된 산신제를 토대로 구성함.

4. 양주지역의 마을 의례: 도당굿과 도당제

마을 의례 가운데 경기도 지역에는 굿의 형태로 진행되는 도당굿이라는 게 있는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역의 마을 굿과 다를 것이 없다. 도당굿은 말 그대로 무당을 불러서 굿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유교식으로 진행하면 도당제가 된다. 오늘날 양주지역에서 도당굿은 전승되지 않으며, 도당제 또한 크게 약해진 상태이다.

양주지역의 대표적인 도당굿은 유양리 도당굿이다. 유양리 도당굿은 국수당이라는 당집에서 했기 때문에 국수당굿이라도 불렀다. 유양리 도당굿도 마을의 평온과 행복을 빌기 위해 마을의 수호신에게 기원했던 굿으로, 3년에 한 번씩 음력 3월에 무당을 불러서 불국산 자락의 국수당에서 거행했다. 도당굿이 여성들이 주관하여 진행했다면 가을에 하는 도당제는 남자들이 주관하는 행사였다. 다만 도당굿은 무당을 부르고 상차림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 때문에 종교가 다른 사람이 늘어나고 굿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경비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1980년대에 중단되었다. 한편 1997년에 도당굿을 일시적으로 복원했으나 그 이후로 행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살펴볼 도당제는 장흥면 삼상리에서 지낸 마을 의례인 삼상리 도당제이다. 삼상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홀수 해에 제물을 차리고 마을을 수호하는 도당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삼상리 도당제는 당산제나 산치성 등으로도 불렀는데, 그것은 삼상리의 도당제가 산신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축문도 산고사로 되어 있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측면에서 산신제로 볼 수도 있다.

삼상리 도당제는 1979년 10월 1일(음력)에 제사를 지낸 이후 중단했다가 1997년에 마을에 홍사가 거듭되자 무당을 불러서 도당굿과 함께 도당제를 지냈다. 이후 경비가 많이 들어서 도당굿은 지내지 않고 도당제만 유지했

다. 삼상리에는 따로 당집이나 신목이 존재하지 않아 제사를 지내는 터에 천막을 치고 도당제를 치른다.

양주지역의 도당굿 현황

지역	제사일	특징	신당 및 제당
유양동(유양리)	매 3년 음력 3월	여자들이 주관, 경비 문제로 1980년대 중단, 1997년에 일시 복원 후 중단	불곡산 지락, 당집은 국수당(유양초등학교 뒤편), 신목은 향나무
장흥면 삼상리	매 2년(홀수 해) 음력 9월 9일	경비 문제로 1975년 도당굿 중단, 마을 흥사로 1997년 도당굿 거행, 유교 형식의 도당제는 유지	당집과 신목은 없으며, 산제 터에서 천막을 치고 지냄
장흥면 삼하리 (매내미마을)	음력 9월 9일	참나무 아래에서 제사, 산신을 포함한 5신(신격은 모름)에게 제사, 도당굿은 격년 도당제는 매년 지내다가 도당굿은 중단	신목은 참나무, 원래 두껍바위가 있었으나 군인들이 없앴
삼송동	매 3년 10월	무당을 불러 소나무에 치성을 드리는 마을굿으로, 소나무에 지내는 도당제(도독제)도 병행, 1970년대 도당굿 중단, 이후 도당제 중단	신목은 소나무, 당집 없음

비고 : 디지털양주문화대전에 소개된 도당굿(도당제)를 토대로 구성함.

삼송동 도당굿은 삼송동에서 지내던 곳으로, 3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에 무당을 불러서 마을에 있는 소나무에 치성을 올렸다. 이 소나무는 도당나무로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고, 그 때문에 도당나무 앞으로 상여가 지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삼송동에서는 소나무에 지내는 제사를 도당제라고도 하는데 달리 도독제라고도 불렀다. 삼송동 도당굿과 도당제는 1970년대에 중단되었다.

삼하리 매내미 도당제는 장흥면 삼하리 매내미마을에서 마을의 평온과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던 마을 제사이다. 매내미마을에서는 매년 자라봉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 예전에는 참나무 주변에 두껍바위가 있었으나 군인들이 없애는 바람에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원래 매년 지내되 격년으로 무당을 불러서 도당굿을 했는데, 40~50년 전에 도당굿

은 중단되었다. 매내미 도당제는 다른 지역의 마을 의례와 달리 도당신을 비롯해 다섯 신을 동시에 모시는 제사라는 특징이 있어 다른 산신제와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도당신 외 다른 신격에 대해 전해지는 것은 없다.

5

교육, 향교부터 학교까지, 배움의 현장

1. 고구려의 태학, 고려의 박사 파견, 그리고 조선의 서당

교육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이 아닌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예부터 인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나 살면서 체득한 경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며 다음 세대로 문화와 문명을 전승하였다.

한국이 참담했던 한국전쟁 이후 폐허를 딛고 오늘날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뜨거운 교육열과 높은 교육 수준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반도에서는 예부터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기록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는 태학이다.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설립된 국립학교로서, 귀족의 자식들을 입학시켜 지도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무예를 가르쳤다. 또 지방에는 지방 호족의 자식들을 위한 사학기관인 경당이 있었다.

백제의 경우는 오경박사 등 박사제도가 있었고 일본에 유학을 전해주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학교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신라는 682년(신문왕 2)에 국립학교인 국학을 설치했고, 성덕왕 때 유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를 갖추었다. 이후 유학은 오랫동안 관리 양성의 수단이 되었다.

고려에 들어서는 수도 개경에 국립종합대학인 국자감을 세웠고, 지방의 교육을 위해 지방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명을 보내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게 했다. 이는 개경에 있는 국자감의 지방 분교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 당시 양주지역도 12목의 하나였기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가 파견되어 양주지역의 교육을 담당했다.

조선은 고려의 교육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이라는 이름도 1304년(고려 충렬왕 30) 무신 정권기에 폐지했던 국자감을 부활시키면서 붙인 이름이다. 성균관이 중앙의 국립학교라면 지방의 국립학교는 향교였다.

향교는 고려 때 지방에 박사와 교수를 보내 지방의 인재를 육성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를 세웠다. 향교의 공간은 배향과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제사 공간인 대성전과 교육 공간인 명륜당으로 크게 나뉜다. 양주지역에 향교가 들어선 것은 조선 건국 초인 1401년(태종 1)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고, 기존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라는 국립학교 중심의 교육만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립학교 외에 사립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립학교는 서원과 서당이였다.

서원은 조상 또는 선현을 모신 사당과 교육이 결합한 것으로, 1543년(중종 38)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 시초이다. 서원이 양반 중심의 교육기관이었다면 서민 중심의 교육기관은 서당이였다. 서당은 고려 때부터 시작되어 전국 곳곳에 있었기에 교육기관 가운데 숫자가 가장 많았다. 양주지역에도 많은 서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성균관과 향교, 서원과 서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체제에 변화가 생긴 것은 구한말이었다. 19세기 말 갑오경장과 같은 사회변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지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교육제도로 바뀌었다.

2. 국립 교육기관 양주향교와 사립학교 서당

양주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은 고려 때의 것이다. 고려의 국립학교로 992년(성종 11) 개경에 세운 국자감은 처음에 개경과 지방의 청년을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 중에 낮은 타향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향수에 시달리다가 귀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조정은 이에 대한 방책으로 국자감을 지방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즉 지방의 중심에 자리한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명씩을 보내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지방의 중심지인 목에 이른바 분교를 세워 지역의 청년들을 교육한 것이다.

당시 양주지역도 12목의 하나였기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가 파견되어 교육이 시행되었다. 교육받을 대상은 지방의 청년 가운데 학행이 뛰어나고 의서에 능통한 자를 지방관이 중앙에 추천했다.

양주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시대였다. 오늘날

양주의 교육기관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지방 국립학교였던 양주향교이다. 기록에 따르면 양주향교는 1401년에 세워졌고 많은 유학자를 양성하고 배출했다.

현재의 양주향교는 유양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처음 세워진 곳은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과거 양주목의 치소가 있었던 고읍동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506년(중종 1) 양주목이 부활할 때 양주관아와 함께 현재의 자리와 가까운 곳에 세워졌다.

양주향교는 두 차례나 불에 타는 큰 환란을 당했다. 먼저 임진왜란이란 전란을 만나 불에 탔고 1610년(광해군 2)에 재건되었다. 이후 긴 세월을 지역의 교육에 힘쓰다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적인 환란 때 다시 불에 탔다가 1958년에 일부가 새로 건립됐다. 당시 양주지역의 유림은 지역의 중심지를 복원하기 위해 1958년에 우선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과 동무·서무를 복원했다. 그리고 1984년에 강의를 하던 명륜당까지 복원했으나 아직 기숙사의 역할을 하던 동재와 서재는 복원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이런 복원 과정은 오늘날 향교가 지닌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즉 향교는 크게 과거의 위대한 성현을 모시는 공간인 대성전과 동무·서무, 그리고 현재의 교육을 담당하는 명륜당과 기숙사인 동재·서재로 나뉘는데, 먼저 복원된 곳은 성현들의 배향을 위한 공간이다. 이는 현재의 향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교육이 시행되면서 교육적 기능이 현저하게 약해진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지식 교육 이상으로 인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오랜 역사를 토대로 예절과 인성 교육을 강조해온 향교가 주목받고 있다. 양주향교에서도 선비체험, 청소년 예절 학교, 테마가 있는 양주향교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재 양주향교는 1983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고 건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호 양주향교 의삼문과 입구의 느티나무 보호수



유생들이 학문을 익히던 교육 공간 양주향교 명륜당

앞에 역시 보호수로 지정된 500여 년 된 느티나무가 향교를 찾은 방문자를 반갑게 맞아준다.

향교와 달리 사립학교였던 서당은 양주지역에서 계속 존재해왔다.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서당은 광적면의 모둔재 서당으로 1972년에 폐교했다고 전해진다. 『양주향교지』(양주향교, 2001)에 따르면 양주지역에는 조선 후기부터 해방까지 200여 년 동안 200여 개의 서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와 달리 넓은 지역을 품고 있었던 양주지역은 그 넓이에 맞게 수많은 서당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서당이 많이 개설된 시기는 1895년 소학교령이 공포되었을 때이다. 당시 주민들이 새로운 학교를 거부하면서 마을마다 서당이 생겼고, 해방 이후에도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요구되면서 그 대안으로 서당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오늘날의 양주시에 있었던 서당의 흔적을 일부나마 살펴보면 표와 같다. 다만 입으로 전해진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연도가 정확하지 않다.

19~20세기 양주지역의 서당

이름	개설 연도	지역	훈장	이름	개설 연도	지역	훈장
마전서당	1869~1943	양주읍	이창희	부곡서당	1930~1950	장흥면	이회근
광전서당	1849~1920	양주읍	김상옥	한산서당	1945~1960	남 면	송종욱
간촌서당	1890~1935	장흥면	이교형	봉암서당	1945~1960	은현면	윤건식 · 황태수
특성서당	1927~1929	은현면	정화서				
덕계서당	1927~1953	회천면	이완근	옥정서당	1945~1965	회천면	왕영주
특성서당	1930~1931	은현면	김두현	모둔재	1959~1972	광적면	이방림

출처 : 양주향교, 『양주향교지』, 2001.

표는 오늘날의 양주지역에 소재했던 서당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1923년 7월 17일 기사에 광적면의 ‘모범계몽서당’ 이 소개된 것에

楊州郡內에는義務教育하는處有三個所인디(一)同郡九里面長朴完植氏는講習所를設立하고校舍々々附하얏스며每年正租十餘石과雜用費를寄附하야가며熱心으로面內人民의子弟를教育한다하며(二)同郡蘆海面道峯里樓院勞働夜學校는同校長嚴燦燮、總務鄭光賢兩氏의周旋下에서教師金溶榮氏가樵童牧豎를會集하야無料로熱心教授한다하며(三)同郡積而廣石里의模範啓蒙書堂은同里李載和、李鍾胤、金昌燮三氏의公益事業으로貧寒한兒童에게는紙筆墨々々供給하야熱心으로教授한다는디學父兄의致賀는勿論이오該地方人士들은極口稱頌한다더라(楊州)

광적면 '모범계몽서당' 신문 기사(『조선일보』, 1923년 7월 17일)

서 보듯이 표에 소개한 것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다른 서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당은 입학이나 휴학이 자유로워 농사를 짓는 서민의 자녀 교육에 적합했다. 흔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를 짓다가 겨울에는 서당에서 글을 읽고 공부했다. 이런 자유로운 성격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기관이 변했어도 서당은 꾸준히 명맥을 유지했다. 이런 서당의 전통은 일제강점기의 외국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학당이나 배움의 열망을 지닌 지역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야학 등으로 이어졌다.

3. 식민 지배를 위한 일제의 기초 교육과 이에 저항한 양주 군민의 민족 교육

일제강점기 때의 교육은 고등 교육을 억제하고 기초 지식을 토대로 하

는 보통 교육과 실업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일제는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지식 개발이나 비판의식, 독립사상 등과 같은 향상된 수준을 바라지 않았다. 이들의 목적은 지배를 위해 필요한 적당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1911년 「공립보통학교비용령」을 공포해 기존의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의 재산을 몰수하고 보통학교 유지비에 충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일제에 저항하는 구심점인 유림의 힘을 억누르려는 정책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때 양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민 근대 교육기관은 양주공립소학교였다. 1899년 9월 20일 주내면 유양리에 건립되었는데, 1919년에 현재의 의정부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뒤를 이어 양주지역에 들어선 학교는 남면보통학교였다. 남면보통학교는 1941년에 남면국민학교가 되었다가 현재는 남면초등학교가 되었다. 현재 양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인 남면보통학교는 1921년 8월 30일에 개교했으며, 1994년에 양덕국민학교가 남면초등학교 양덕분교장으로 편입되었다.

남면보통학교의 뒤를 이어 1923년 4월 27일에 개교한 유양공립보통학교(현재 유양초등학교), 1927년 5월 19일에 가남공립보통학교(현재 가남초등학교), 1928년 7월 20일에 장흥공립보통학교(현재 송추초등학교)가 차례로 개교했다.

이 가운데 광적면에 세워진 가남공립보통학교는 당시 2개 면에 1개의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백석면과 광적면, 은현면에 보통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당시의 광적면장(김관진)을 비롯해 3개 면의 유지들(백남용·서승복·이하용·김풍진 등)이 참여해 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조직해 애쓴 결과로 세워진 학교였다. 이 내용은 1926년 9월 14일 『동아일보』에 실려 있다.

公立普校 期成會組織
楊州廣積人士

現下朝鮮教育制度에 二面一校의 制가 普及되지 못한 地方이 多하나 京城 附近한 地方인 楊州郡 白石、廣積、隱縣 三面에 是尙 今 外지 普通教育 이 波及되지 못하야 總督府 學務當局 에 外도 地域上으로 나 形便上으로 나 中央地에 一校의 施設이 必然함을 覺悟하고 爾來 有意中이나 尙 今 外지 施設이 未되야 近三千餘戶에 千餘名 學齡兒童이 就學할 處가 無다 外道 路에 外 妨礙하디니 此을 遺憾으로 思하고 廣積面 長金 龜鎮氏 以外多數의 有志가 奮發하야 公普期成會를 組織하고 方 今 當局에 認可 申請을 手續中이라 是대 該認可만 得하면 基金은 面內有志의 自發的으로 完成할 을 見하깃음으로 不遠 汗 將來에 山間僻地에 一 大 曙光이 有함을 見하리라 하디며 期成會 任員은 如左 하디라

白南容、徐承復、金龜鎮、李友鏞 外若干人

광적면 유지들이 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조직해 학교 설립에 나섰다는 신문 기사(『동아일보』, 1916년 9월 14일)



삼상초등학교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1932년 5월 1일에 회천공립보통학교(현재 덕정초등학교)를 필두로 1932년 9월 20일 백석보통학교(현재 양주백석초등학교), 1935년 5월 1일 삼상간이학교(현재 삼상초등학교), 1935년 7월 31일 은현공립보통학교(현재 은현초등학교), 1937년 7월 1일 효촌간이학교(현재 효촌초등학교) 등이 속속 설립됐다.

이렇게 오늘날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가 각 지역에 세워진 것은 일제의 교육 방침, 즉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고등교육을 배제하고 기초

적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보통학교는 모두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양주의 어린이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양주시 초등학교 현황(가나다순, 2021년 현재)

학교명	개교	소재지	학교명	개교	소재지
가남초등학교	1927	광적면 부흥로 793	송추초등학교	1929	장흥면 호국로 499
고암초등학교	2000	양주시 고암길 320	신지초등학교	2006	백석읍 양주산성로574번길 20
광사초등학교	2010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12	양주덕산초등학교	1963	양주시 평화로 1418-6
광송초등학교	2006	양주시 삼승로58번길 100	양주덕현초등학교	1937	양주시 부흥로 1989
남면초등학교	1921	남면 개나리18길 100	연곡초등학교	1958	백석읍 월암로170번길 107
남면초등학교 양덕분교	1962	남면 은남로119번길	옥빛초등학교	2020	양주시 옥정로4길 38
덕계초등학교	2004	양주시 평화로1489번길 29	옥정초등학교	2017	양주시 옥정로5길 42-9
덕도초등학교	1971	광적면 광적로224번길 122	유양초등학교	1923	양주시 부흥로 1373-7
덕정초등학교	1932	양주시 덕정1길 28	울빛초등학교	2021	양주시 옥정동 1086
도둔초등학교	2007	양주시 고덕로 89-1	울정초등학교	2015	양주시 옥정동로 245-41
만송초등학교	2011	양주시 고읍로 117-32	은봉초등학교	1999	백석읍 꿈나무로 321
양주백석초등학교	1932	백석읍 중앙로223번길 10-11	은현초등학교	1935	은현면 화합로 912-20
봉암초등학교	1963	은현면 삼육사로 473	주원초등학교	2007	양주시 고암길 242
산북초등학교	2000	양주시 평화로1261번길 96-46	천보초등학교	1947	양주시 화합로 1650
삼상초등학교	1935	장흥면 일영로 641	칠봉초등학교	2001	양주시 회정로 156
삼송초등학교	2005	양주시 삼승로38번길 112	회정초등학교	2001	양주시 평화로 1567
상수초등학교	1964	남면 화합로 503	회천초등학교	2002	양주시 고암길 73
상패초등학교	1947	은현면 은현로312번길 121-208	효촌초등학교	1937	광적면 화합로248번길 18



유양초등학교(출처 디지털양주문화대전)



남면초등학교(출처 디지털양주문화대전)



덕정초등학교(출처 디지털양주문화대전)



양주백석초등학교(출처 디지털양주문화대전)

한편 양주지역에는 일제의 보통학교 설립과 달리 농민들이 공부하기 위해 스스로 세운 학교도 존재했다. 정식 명칭은 농벗학당으로 내촌마을에 있었기에 내촌학당이라고도 불렸다. 농벗이라는 말은 ‘농민’과 친구를 뜻하는 ‘벗’이 합쳐진 말로 농민이 함께 모여 공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학당이라는 말은 배우는 곳이라는 뜻으로 학교와 서당을 합쳐놓은 듯이 들린다. 이런 점에서 농벗학당은 양주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인 시설 교육기관이었다.

농벗학당은 1929년에 회천면 봉양리 내촌마을에 사는 정귀현 씨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농벗학당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참여를 유도했다. 개교 후 2년만인 1931년 5월에는 24평 규모의 교실을 새롭게 지었으며, 당시 학생 수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지역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배움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일제의 관심을 끌었고, 1932년 2월 16일에 도지사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다. 허가받지 않은 학교라는 이유였다.

이렇게 농민들 스스로 세웠던 학교는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고 말았다. 이후 농벗학당에서 지은 교실은 해방 이후 덕정초등학교 봉양분교로 사용되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폐교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교육은 효과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기초 교육을 유지하려는 일제와 이에 대해 저항하는 민족 교육이 함께 존재했는데, 이는 양주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 해방 이후 양주의 교육과 교육기관

현재 양주지역의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21년에 세워진 남면초등학교이다. 그리고 양주지역 최초의 중학교는 1954년에 덕



덕정중학교(출처 디지털양주 문화대전)



남문중학교

정리에 개교한 공립학교 덕정중학교이다. 또 가장 오래된 사립 중학교는 남문중학교이다. 남문중학교는 이후 1957년 10월 20일에 미군 제1군단 사

령부의 주선으로 새로운 교사를 신축해서 이듬해 1월 8일에 신축 교사 4개를 건립했다. 뒤를 이어 양주지역에 개교한 중학교는 조양중학교였다. 조양중학교는 1968년 광적면 광석리에서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이후 30여 년 동안 양주지역에는 새로운 중학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 기간에 남양주와 동두천이 양주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등 행정구역이 축소되었을 뿐 현재의 양주지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반증한다.

이후 2000년대 이후 신도시가 개발되고 2003년 군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2001년 덕계중학교와 고암중학교, 2002년 양주백석중학교, 2005년 삼승중학교, 2006년 덕현중학교와 회천중학교가 잇달아 개교했고, 옥정신도시와 관련해서 2015년에는 옥정중학교, 2021년에 옥빛중학교가 개교했다.

양주시 중학교 현황(가나다순, 2021년 현재)

학교명	개교	소재지	학교명	개교	소재지
고암중학교	2001	양주시 고암길 305-18	양주백석중학교	2002	백석읍 양주산성로574번길 38
남문중학교	1955	남면 개나리18길 1	옥빛중학교	2021	양주시 옥정동로3길 57
덕계중학교	2001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66-13	옥정중학교	2015	양주시 옥정로5길 55
덕정중학교	1954	양주시 화합로 1397	조양중학교	1966	광적면 부흥로 757
덕현중학교	2006	양주시 고읍로35번길 21	회천중학교	2006	양주시 고암길 77
삼승중학교	2005	양주시 삼승로38번길 136			

고등학교의 사정도 중학교와 비슷했다. 1961년에 남면에 남문농업고등학교가 개교한 이후 중학교와 같은 이유로 거의 40여 년 동안 새로운 고등학교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한동안 양주의 교육기관이 주로 현재의 동두천과 남양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자료

를 살펴보면 중학교는 16개 가운데 3개만이, 고등학교는 13개 가운데 1개만이 지금의 양주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전체 29개 가운데 단 4개만 현재의 양주시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만큼 지역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 이런 쏠림 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2000년 전후까지 기다려야 했다.

한편 남문농업고등학교는 양주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남문농업고등학교는 처음에 농업과 관련된 특수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가 농업보다 상업을 중시하는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1979년에 남문상업고등학교로 개편했다. 또 1989년에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정보처리과를 신설했으며, 1996년에 남문종합고등학교로 다시 이름과 성격을 바꾸었다. 이후 2003년에는 관광경영과와 인터넷정보과, 2007년에는 조리과학과가 새롭게 생겼고, 2008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로 새롭게 개명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남문농업고등학교 이후 현재의 양주지역에 처음 개교한 고등학교는 거의 40여 년만인 1999년에 문을 연 덕정고등학교였다. 이후 신도시 개발과 인구의 증가, 시 승격 등과 맞물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6개의 고등학교가 새롭게 개교했다.

양주시 고등학교 현황(가나다순, 2021년 현재)

학교명	개교	소재지	학교명	개교	소재지
덕계고등학교	2004	양주시 평화로1489번길 34	양주백석고등학교	2006	백석을 꿈나무로 206
덕정고등학교	1999	양주시 화합로 1488	옥빛고등학교	2021	양주시 옥정로4길 12
덕현고등학교	2011	양주시 고읍북로 36	옥정고등학교	2015	양주시 옥정로7길 47
양주고등학교	2008	양주시 삼승로38번길 78-52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1961	남면 개나리18길 1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출처 디지털양주문화대전)



덕정고등학교
(출처 디지털양주문화대전)



서정대학교
(출처 디지털양주문화대전)

한편 현재 양주시에에는 고등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3개나 있어서 지방의 교육도시라고 불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가장 처음 양주에 나타난 대학교는 2001년에 개교한 서정대학교이다. 서정대학교는 사립학교로 양



경동대학교 메트로폴 캠퍼스
(출처 경동대학교 홈페이지)

주 최초의 전문직업 양성 대학이었다. “힘을 기르자”는 설립 철학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과 신문화 창조교육, 직업교육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 현재 서정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8개 학과), 자연과학계열(6개 학과), 공학계열(5개 학과) 등 전체 19개의 학과가 있으며, 특히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는 국가시험 100% 합격을 자랑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표적인 지역 거점 대학의 위상을 뽐내고 있다.

서정대학교에 이어서 2014년에는 2개의 대학이 양주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경동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가 그것이다. 양주시 최초의 4년제 대학이었던 경동대학교는 지역 여러 곳에 분교를 두고 있는데, 양주에는 메트로폴 캠퍼스로 부르는 양주캠퍼스(16개 학과)가 고암동에 자리하고 있다.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는 경기 드림캠퍼스로 불리며 서정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은현면에 자리하고 있다. 만화와 영화 등 예술과 관련된 4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한편, 경동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가 양주에 캠퍼스를 개설한 것은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특별법」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경기도 북쪽은 북



예원예술대학교

한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외 과밀화 방지 등을 이유로 대학교 설립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주한 미군이 떠난 자리에 대학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2개 대학이 양주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로써 양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양주시 대학교 현황(2021년 현재)

학교명	개교	지역
예원예술대학교	2014	은현면 예원대학로 56
경동대학교	2014	양주시 고암동 청담로 95
서정대학교	2003	은현면 화합로 1049-56

5. 남문학원과 조양학원

양주지역의 근대 교육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문학원과 조양학원이다. 이들 두 학교법인이 해방 이후부터 양주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2000년 이전까지 양주지역의 학교 설립 정체기에 양주시 교육의 중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2000년까지 현 양주에서 개교한 중·고등학교는 모두 5개교이다. 중학교는 덕정중학교(1954), 남문중학교(1955), 조양중학교(1966)이고, 고등학교는 남문농업고등학교(1961)와 덕정고등학교(1999)이다. 그중 공립학교인 덕정중학교와 덕정고등학교를 빼면 해방 이후 50여 년 이상 현재의 양주시에는 3곳의 중·고등학교만 존재했고, 이들은 남면의 남



조양중학교
(출처 디지털양주문화대전)

문학원과 광적면의 조양학원에 속한 학교였다.

남문학원은 1955년 3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1964년에 학교법인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 현재 설립 66주년을 맞이한 양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법인이다. 남문학원은 감악산과 가까운 남면 신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남문중학교와 한국의식과학고등학교를 품고 있다. 한국의식과학고등학교는 매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2020년 까지 총 5,60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양중학교를 설립한 조양학원은 1965년 12월에 인가받고, 1966년 3월에 조양농림기술학교를 개교하였다. 이어 1967년에 조양학원을 설립하고, 1968년에는 조양중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양중학교는 교육 목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 육성”에 두고 2020년 제50회 졸업생까지 총 1만 1,23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남문학원과 조양학원은 사립학교법인으로서 오랫동안 중·고등학교가 부족했던 양주지역의 교육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양주 교육기관의 산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참고문헌

양주군, 『양주군지』, 1978.

양주군, 『양주군지』, 1992.

양주문화원, 『양주의 근현대 이야기』, 2020.

디지털양주문화대전(<http://yangju.grandculture.net/yangju>)

6

시장, 예나 지금이나 매일 열리는 양주의 시장

1. 시장의 탄생

양주 지역은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과 가깝고 조선시대에는 수도 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늘 수도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특히 조선시대의 양주는 한양의 동북부에 위치해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다.

그래서 양주 지역에는 여러 곳에 역과 원이 있었고 이 지역을 왕래하는 관리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으로 양주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했다.

이렇게 양주 지역은 도성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상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1770)를 보면 당시 7곳에 시장이 개설되어 있었



조선시대 가래비장이라고 불렸던 가래비시장

음을 알 수 있다. 가라비장(3, 8일), 동도천장(5, 10일), 신천장(2, 7일), 고주내장(5, 10일), 대탄장(4, 9일), 북도천장(1, 6일), 구곡장(1, 6일)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괄호 속의 숫자는 시장이 열리는 장날이다. 즉 가라비장(3, 8일)은 매월 끝자리가 3인 날과 8인 날일에 장이 섰다는 뜻으로,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장이 섰음을 가리킨다. 이렇듯 양주 지역의 시장은 장날이 빠지는 날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시장권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매일 어딘가에서는 장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들 시장 가운데 신천장의 ‘신천’은 다른 말로 하면 신내로, 오늘날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서 개설된 시장이었다. 조선을 대표하는 사찰이었던 회암사의 스님들이 신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팔았다고 해서 스님이 찾아온다는 뜻인 ‘승래(僧來)’, 즉 승래장터라고도 불렀고, 이 승래에서 신내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도 있다.

신천장이 개설되었던 신내는 북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는 교통의 요지여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신내에는 주막과 숙박업소인 여각이 많았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은 오늘날에도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고주내장은 오늘날의 양주시 고읍동에 개설되었던 시장이다. 고주내는 조선 전기에 양주의 읍치가 있었던 곳으로 주내(州內)라고도 불렀다. 그러다가 종종 연간에 읍치가 양주시 유양동으로 이전을 하여 주내가 바뀌면서 옛 주내라는 의미로 고주내라고 하였다. 고주내장이 개설된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었다.

대탄장이 섰던 대탄은 오늘날의 연천군 전곡리의 대탄진이라는 여울에서 유래했다. 대탄(大灘)은 크고 넓은 여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한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이곳을 지나는 강을 한탄강이라고 부른다. 대탄은 큰 바위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지나는 배들이 종종 이 바위에 부딪

혀 좌초되곤 했다고 전한다. 대탄장은 대탄진 주변에서 장이 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도천장이 섰던 동도천은 동두천의 옛 이름이다. 동도천은 동쪽으로 흐르는 개울이라는 뜻인데, 동쪽에 머리(頭)가 있다는 뜻을 가진 동두천으로 바뀌었다가 오늘날에는 머리 대신에 콩[豆]을 써서 동두천이라고 부른다. 동두천은 1981년에 양주에서 떨어져 나갔다.

구곡장은 구곡역이 있었던 곳으로 한양에서 가평이나 춘천으로 갈 때 지나는 역이었다. 구곡장이 섰던 곳은 오늘날의 남양주시에 속하는데 남양주시는 1980년에 양주에서 분리되었다.

이 외에도 1872년에 제작된 양주의 지도를 보면 광릉천장과 추교장, 동두천장, 덕소장 등이 기재되어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 덕소장과 광릉천장은 오늘날의 남양주에 속해 있고 추교장은 신천장의 다른 이름이다.



1872년 지방지도 양주 지도
에 기록된 시장과 누원점(지도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 양주 지역 시장의 발달과 변천

양주의 시장은 조선 후기에 큰 변화를 겪었다. 이 무렵 전국적으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물로 바치던 방식에서 쌀로 통일해서 바치게 한 대동법의 시행으로 시장을 통한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상업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를 통해 유통 구조와 물자의 흐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양주는 수도 한양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 깊이 끌려 들어갔다.

양주 지역에서 이런 변화를 주도했던 것은 누원점이었다. 누원점은 조선 초기 덕해원이 있던 곳이다. 덕해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함경도를 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덕해원은 달리 다락원이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은 덕해원 건물에 다락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었다.

역(驛)과 원(院)은 국가에서 관리들의 공무를 위해 설치한 교통과 숙박 시설이었다. 역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었고, 원은 상인과 같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 원을 대신해서 나타난 것이 점(店)이었다. 점은 대체로 원이 있었던 곳에 나타났다. 원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이나 국가의 지시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숙식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점은 다른 말로 주막이라고도 불렀고, 주점, 여점, 점막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주막은 돈을 벌기 위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오늘날의 여관이나 호텔과 같은 전문 숙박업소였다. 주막이 곳곳에 들어선 것은 조선 전기와 달리 여행객이나 상인들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통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막은 점점 확대되었다. 그리고 차츰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단계를 지나서 창고를 짓고 물품을 보관해 주거나 마구간을

설치해서 소와 말을 돌봐주기도 했다.

덕해원이 쇠퇴하고 난 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양주 누원점이었다. 누원점은 오늘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해당한다. 한양에서 12km(30리) 정도 떨어져 있다. 누원점이 등장한 것은 이곳이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누원점은 한양을 기준으로 하면 수유리점 다음으로 거쳐야 하는 지점이었다. 여행자는 이 길을 통해 오늘날의 의정부와 포천을 거쳐서 철원, 함경도로 향했다.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자 누원점의 남쪽에 주막촌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누원리는 상하 둘로 나뉘었다. 하누원리는 오늘날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었다.

함경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어물과 마포, 약재가 증가하여 상인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누원점은 큰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상인들이 누원점을 활용하게 된 것은 한양 도성에서 12km 떨어져 있어서 이른바 금난전권의 영역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경제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종로에 시장을 개설할 권리를 얻은 육의전과 시전상인들이 일정한 영역 내에서 독점권을 인정받는 것이 금난전권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등장한, 흔히 사상 도고라고 부르는 민간 상인들은 금난전권 내에서 장사할 수 없었다. 한양에서 북쪽으로 금난전권이 행사되는 곳은 수유고개와 우이천 정도였다.

누원점은 우이천에서 약 4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금난전권의 영역 바깥이었고, 이런 이유로 민간 상인들이 몰려드는 계기가 되었다. 누원점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모여든 것은 17세기 후반이었다. 누원점이 번성하게 되자 이곳에 시장을 개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누원점의 성장을 못마땅하게 여긴 시전상인들의 반대로 시장을 개설하지 못하다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시장이 개설되었다.

누원점에서 주로 취급했던 물품은 함경도에서 올라오는 명태, 청어, 대

구와 같은 어물과 북포라고 불렀던 마포(삼베)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 명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덩달아 함경도의 명태 수확량이 대거 늘어났다.

수요와 공급이 생기자 어물을 손상 없이 운송하기 위해 보존 방법도 개발되었다. 명태와 수산물의 경우는 무엇보다 운송이 중요했다. 명태, 청어, 대구, 문어, 오징어 등은 말려서 상품화하는 것이 개발되었다. 또 명태, 대구, 청어의 알과 멸치 등을 항아리에 담아서 발효시켜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명태와 같은 어물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온 삼베인 북포도 누원점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이었다. 북포는 여름철 옷감이기도 했고, 상복이나 수의를 제작하기 위한 수요가 많은 상품이었다. 심지어 삼베는 화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품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는 삼베가 바로 북포였다. 이 북포를 독점한 것이 누원점의 상인들이었다. 누원점의 상인들은 한양의 칠패와 이현, 이웃한 포천의 송우점, 광주의 송과장 등 민간 상인들과 연대하며 조정을 등에 업은 시전상인들과 맞섰다. 이 때문에 특히 피해가 컸던 어물전과 포전의 시전상인들은 누원점의 독점을 막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조정에 압박과 규제를 요구했다. 그것은 누원점이 함경도에서 올라오는 어물과 북포를 독점해서 때로는 물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누원점이 금난전권의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1792년 정조 때에 시전상인들이 누원점에서 어물을 독점해 한양의 생선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광릉을 참배하고 돌아가던 정조는 누원점에 들러서 오히려 상인들을 격려했고 이들의 상업행위를 보장했다. 이후 18세기 말에 금난전권이 소멸하면서 19세기 한반도의 상업은 민간 상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장하던 민간 상인들은 19세기 중후반부터 밀려오기 시작한 외국의 거센 파도에 한풀 꺾였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3. 일제강점기 양주의 시장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3년 기록이 남아 있는 시장은 한강 연안에 있는 미금면 삼패리에서 개설되었던 평구시장이다. 평구시장에는 아홉 채의 상설노점 있었고, 주변 지역인 포천, 가평, 양평, 광주, 홍천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규모가 컸다.

특히 평구시장은 큰 우시장이 있어서 경상북도 영천과 대구,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도 상인들이 찾아올 정도로 장세가 컸다. 1910년대에 소값이 크게 뛰면서 평구시장의 우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당시 우시장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중개하는 거간이 35명 있었다고 전한다. 1913년 평구시장이 기록한 연 거래액은 7만 4,796엔이었고, 시장에 나오는 상인은 많을 때는 80명이었으며 평균 50명을 유지했다. 또 장을 보러 나오는 손님이 많을 때는 250명이었으며, 평균 120명을 유지했다.

평구시장은 1923년에는 이미 일제가 정한 시장 규칙에 따라 공설시장으로 바뀌었는데, 부지 면적은 약 3,388㎡ 정도였다. 장날은 변함없이 끝자리가 1일과 6일이었고, 그해의 연 거래액은 19만 8,169엔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평구시장의 대표적인 거래 품목은 소였다. 시장 주위에는 목책을 두르고 계류장이 설치된 우시장이 있었다. 소를 거래하는 상인이 장날 평균 50여 명을 헤아렸고, 소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중개인이 13명 있었다. 평구시장이 있었던 미금면 삼패리는 1980년 양주에서 분리된 남양주에 속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후반 양주 지역에 개설되어 있던 시장은 7곳이었다. 그중 가납장과 덕정장은 『동국문헌비고』에 나왔던 가라비장과 신천장의 다른 이름이다. 가납장은 가라비장의 다른 이름이며, 덕정장은 신천장이 변한 것이다. 덕정장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개통되고 덕정역이 생기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교통의 중심지가 신내(신천)에서 덕정역으로 바뀌었고, 시장 또한 덕정역 주변으로 이전을 하면서 덕정장으로 바뀐 것이다. 1930년대 후반 양주 지역에 개설되어 있던 시장의 현황은 표와 같다.

1930년 후반 양주 지역 시장 현황

시장 이름	소재지	장날	연 거래액(원)
광릉천장	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2, 7일	29,294
마석우장	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3, 8일	124,039
의정부장	양주군 양주면 의정부리	3, 8일	232,356
동두천장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5, 10일	60,510
덕정장	양주군 회적면 덕정리	2, 7일	177,674
가납장	양주군 광주면 가납리	1, 6일	46,984
금곡장	양주군 계곡면 금곡리	기록 없음	기록 없음

출처 : 문정창, 『조선의 시장』, 1941.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양주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삼팔선과 가까웠던 양주는 한동안 상업행위가 제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행정구역의 재편이었다. 1963년에 양주의 중심이었던 의정부가 양주에서 떨어져 나갔고 차례로 1980년에는 남양주가, 이듬해인 1981년에는 동두천이 양주에서 분리되었다.

이 때문에 양주의 시장은 개설된 숫자도 크게 줄었고 시장의 장세도 크게 약해졌다. 그러나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서 수도권의 확장과 함께 전철이 연결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4. 오늘날 양주 지역의 시장

[가래비시장]

양주 가래비시장은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에서 개설되는 전통시장으로, 끝자리가 4와 9로 끝나는 날이 장날인 정기시장이다. 시의 중심과 연결된 도로가 있으며, 전철은 양주역을 이용하면 가깝다. 광적면의 가남사거리에서 그대로 직진하면 광적면사무소가 나오고 그 근처에 시장을 알리는 간판을 만날 수 있다.

가래비시장은 조선 후기의 기록인 『동국문헌비고』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등장한다. 구한말에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동대문 북쪽 3대 시장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장세를 자랑했다. 경기도 북부의 3대 시장은 포천의 솔모루장과 파주의 공릉장(봉일천장)이 꼽힌다.

가래비장은 다른 이름으로 ‘왔다 갔다 가래비장’ 이라고 불렸다. 그것은 동서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솔모루장과 공릉장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가래비시장은 조선시대에는 가라비라고 불렀는데, 가라비와 가래비는 모두 갈에서 유래했다. 갈은 갈림길, 즉 두 갈래로 나뉘는 삼거리를 의미한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가래비장은 늘 사람들로 붐볐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은 가래비장터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1919년 3월 28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있었고, 이때 3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지금도 가남리 732-4번지 일대의 논을 만세담이라고 부르



끝자리 4일과 9일에 열리는 가래비시장 장날



하루 100그릇만 한정 판매하는 가래비시장 곰탕집

며, 매년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그때를 기억한다.

한편, 가래비시장은 우시장으로도 유명했다. 조선시대에는 하루에 400마리를 거래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우시장이 함께 개설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우시장은 사라졌고, 1940년대에 지금의 자리로 장터도 이전했다. 우시장은 1960년대에 잠깐 다시 개설되었지만 5~6년 만에 사라지고 말았다. 가래비시장은 1965년 4월에 새롭게 개장을 한 이후 변함없이 정기시장으로 개설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또한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가래비시장에서는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 버섯, 야채 등이 많이 나오고 의류와 잡화, 먹을거리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된다.

[덕정시장]

덕정시장은 양주시 덕정동에서 개설되는 전통시장이다. 장날은 끝자리 2일과 7일로, 양주시의 동부를 대표하는 시장이다. 특히 경원선 덕정역 주변에 장이 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덕정시장은 경원선 철도 덕정역이 생기고 장터를 역 주변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덕정시장이라 불리게 되었다.

덕정장은 경원선 덕정역이 생기면서 신천장에서 바뀐 이름이다. 덕정장의 규모가 커진 것은 한국전쟁 중에 영국군과 터키군이 이곳으로 진주한 다음의 일이었다. 군대에서 흘러나온 군수물자가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에는 포목점이 호황을 누리며 장세를 유지했다. 과거에는 우시장도 크게 열렸으나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다.

덕정시장은 과거에 장터만 덩그렇게 있었는데, 1970년대 농협 연쇄점이 생기면서 상가가 들어섰고, 오늘과 같은 형태가 된 것은 1980년대였다. 오늘날에는 역 주변에 골목이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장날이면 매우 혼잡해진다. 덕정시장은 전철역인 덕정역 바로 앞에 있어서 접근성이



덕정시장 (교체)



덕정시장에 인접한 경원선 덕정역 (교체)

한 물건들이 선보인다.

[신산시장]

신산시장은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전통시장이다. 남면사무소와 가까운 곳 골목에 길게 자리하고 있으며, 광적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동두천 시내에서 접근하는 것이 빠르다. 장날에는 농산물, 의류, 잡화, 식료품 등이 주로 팔리고, 계절에 따라 산나물, 종자, 농산물 등이 함께 팔린다.

남면 신산리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연천에 속했고, 해방 이후 잠시 과주에 속했다가, 1946년 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신산시장은 남면사무소 주변에서 끝자리 2일과 7일에 장이 선다. 신산시장의 원래 이름은 입암(笠岩) 시장으로 우리말로 갯바위장이라고도 부른다. 입암이라는 말은 망당산 북쪽 기슭에 인형 모양의 큰 바위가 있고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입암시장은 원래 토교장에서 유래했다. 토교(土橋)는 흙다리라는 뜻으로 신산리 흙다리에서 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토교장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었는데, 허씨 성을 지닌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시장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면 입암리에 시장이 열리리면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입암장 또는 갯바위장으로 바뀌었다.

갯바위장은 하천 천변에서 열렸는데 일대가 홍수로 폐허가 되면서 남면 상수리로 장을 이전해야 했다. 그러나 1875년에 다시 대홍수로 시장이 물에 휩쓸리자 아예 입암천 동쪽에 새로 장터를 구해서 이전했다. 이후 갯바위장은 번창했고, 경기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한편, 함께 개설되었던 우시장은 잦은 침수 때문에 1950년대 말경에 폐쇄되었다.

갯바위장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교통이 변하여 1972년에 남면 신산리에 신산시장이 개설되면서 장세가 약해지다가 폐쇄

되었다. 갯바위장에서 많이 팔린 것은 약초, 곡물, 생선, 신발, 의류, 과일, 용기 등이었다.

신산시장은 주변에 군부대가 늘어나 직업군인과 그 가족들의 전입하여 인구가 증가한 데다가 군부대에 납품하는 부식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주변에서 생산된 쌀과 잡곡을 유통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거래가 활발했다. 그러나 1990년대 교통이 크게 변화하고 대형마트 등이 등장하면서 신산시장의 활기도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4년과 2006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현대화를 진행했다.

한편, 신산시장은 2022년 초반 완공을 목표로 신산시장복합센터 공사를 하고 있다. 센터가 완성되면 더욱 편리한 모습으로 지역 주민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東國文獻備考(동국문헌비고)』

조선총독부, 『朝鮮의市場(조선의 시장)』, 1924.

문정창, 『朝鮮의市場(조선의 시장)』, 1941.

이철호, 『장터순례』, 유럽, 1991.

주영하 외, 『사라져가는 우리의 오일장을 찾아서』, 민속원, 2003.

양주문화원, 『양주의 근현대 이야기』, 2020.

양주시청(www.yangju.go.kr).

7

축제, 시민을 하나로 만드는 시·공간

1. 축제의 기원

축제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생겨났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예부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등과 같은 축제를 거행했다. 이들 축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모두가 즐겁게 먹고 마시는 한마당 잔치였다. 당시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중국의 문헌인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고대 한국인들이 제천의식 후 먹고 마시며 춤추는 것을 기록해놓았을 정도였다.

고대의 축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인 제천의식이었던 것은 농경과 관련이 있다. 신석기시대 이후 인류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모여 살게 되었다. 이렇게 집단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생

겨나는 갈등이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중재자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맡은 것이 하늘이었다. 게다가 하늘은 또한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햇빛을 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래서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중재로 그동안 쌓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먹고 마시며 춤추었던 것이 축제의 일반적인 기원이다.

양주지역은 유적 발굴을 통해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했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예전에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했을 것이다. 다만 축제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행위여서 그 모습이 남아 있지 않고, 그나마 축제 현장에 대한 기록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추측만 할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록이 남아 있는 양주지역의 축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 양주에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은 이주민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원래부터 양주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있으나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도 많다. 이들이 진정한 양주의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축제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지역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과거와 차별점이 있는 현대적인 축제의 의미도 생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양주지역은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의 축제가 행해졌다. 비록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됐으나 원래 매년 개최하는 많은 축제가 있다. 여기서는 양주지역에서 행해지는 이름난 축제 몇 개 살펴보려고 한다.

2. 꽃향기의 향연,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최근 양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축제로는 단연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천일홍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꽃을 소재로 한 꽃축제이다. 이 축제를 기획한 것은 전국 최대 규모인 천일홍 꽃밭 조성을 통해 양주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연결, 시민 휴식 공간 제공,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개최되는 곳은 양주시 광사동의 양주 체험관광농원이라고도 부르는 나리농원이다. 이 농원은 12만 4,708㎡(약 3만 7,000평)에 이르는 넓은 공원으로 3만 3,000㎡의 공간에 천일홍 꽃밭을 조성해 축제를 개최한다. 이 꽃밭에는 천일홍 외에도 장미와 칸나, 코스모스, 구절초, 핑크몰리 등 50여 종의 꽃이 자리하여 화려한 자태를 자랑한다. 특히 최근에는 핑크몰리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집단을 이뤄 피는



제2회 천일홍 축제 포스터

양주 나리농원의 핑크몰리와 천일홍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이모저모



제의 면모를 살펴보고 있다. 2019년 제4회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9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행해졌다. 또 꽃이 전시된 축제장은 원래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9월 27일까지만 개방하였다. 이처럼 기간을 줄였음에도 약 24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특히 9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밤 10시까지 야간에도 개장해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4회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천일의 사랑, 꽃과 빛으로 물들다”라는 제목과 함께 막을 올렸다. 행사는 메인무대와 천일홍무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메인무대에서 진행된 전야제에는 경기도립예술단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경기도가 추진한 ‘Let’s DMZ’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9월 21일 메인무대에서는 경기도립예술단의 무용과 초청 가수를 중심으로 하는 뮤직페스티벌이 진행되었고, 22일에는 경기소리보존회, 마술쇼,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 가수왕을 뽑는 시민 참여형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천일홍 노래자랑이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 및 불꽃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돼 시민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천일홍무대에서는 인형극,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비보이와 힙합팀의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이 행해졌다.

한편, 양주시의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2019년에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이듬해인 2020년에는 경기관광대표축제에 이름을 올리는 등 경쟁력이 높은 축제임을 입증하였다. 실제로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은 축제의 성과, 현장의 평가, 안전 평가, 기획, 콘텐츠 등 다양한 기준 항목을 심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의 저력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로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면 도비 지원과 경기도 후원 명칭 사용, 축제 방문객의 매출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홍보 마케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어가행렬로 시간여행 하는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양주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곳은 단연 회암사지이다. 회암사지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번성했던 사찰이었다. 이런 번성의 뒤에는 왕실의 후원이 있었는데, 특히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와의 각별한 인연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성계는 스승이던 왕사 무학을 회암사에 모시고 자주 회암사를 찾았으며, 왕위를 물려준 뒤에는 한동안 회암사에서 머물며 수도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회암사는 조선 초기 국가와 왕실의 원찰(願刹)이 되어 많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다. 그러나 송유억불 정책을 썼던 조선 후기로 가면서 불교는 쇠퇴했고 회암사 또한 불태워져 무너지고 절터만 남고 말았다. 현재 회암사지는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었고, 오랜 발굴조사와 종합 정비가 진행 중이며, 2016년에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이모저모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시민들과 함께 시간여행을 하고 이를 통해 역사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목적으로 회암사지에서 개최되는 축제이다. 처음 개최된 것이 2017년 10월 14일로 비교적 최근이고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제1회 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10만 명에 이르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 제1회 축제를 스케치하면 다음과 같다.

제1회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태조 이성계의 힐링캠프’ 라는 매우 흥미로운 부제와 함께 개최되었다. 프로그램 중 덕정역부터 회암사지까지 약 4.3 km 구간(덕정역 → 회천3동주민센터 → 회천초등학교 → 중흥S클래스 → 회암사지 유적공원 → 회암사지)에서 이성계의 회암사지 행차 모습을 재현한 어가행렬은 가장 눈에 띄는 행사였다. 당시 탤런트 이원종이 태조 이성계로 분장했고, 양주목사는 이성호 양주시장이, 무학대사는 회암사 주지 혜성 스님이 맡아서 행렬을 주도했다.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람객들은 직접 왕이 되어 왕실 생활을 체험하는 왕실문화탐방 등 70여 개의 체험·전시 부스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끽할 수 있었다. 한편 축제장 곳곳에서는 소놀이굿, 상여회다지소리 등 양주 무형문화재 공연과 의정부시립무용단의 전통 창작무용극 「태조 이성계」, 극단 민들레의 전통연희극, 예원예술대학교 실용음악 공연, 국악합주 등 각종 공연이 펼쳐졌고, 퀴즈대회 ‘칭동금탁을 울려라’ 등도 진행되었다.

왕실체험은 어가행렬과 함께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 다른 축제에서 흔하지 않은 왕실축제라는 이름에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강무장에서는 이성계가 되어 말을 타보는 승마체험, 이성계가 되어 활을 만드는 체험, 회암사지에서 출토한 문양으로 연을 만드는 체험, 조선의 병장기를 직접 사용해 보는 체험, 투호나 제기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 등이 준비되었고, 도자기와 궁중음식, 한복, 미술, 사주, 과거시험, 한의학 등을 소재로 한 체험들도 준비되었다.

한편 메인무대에서는 양주시가 자랑하는 무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와 양주소놀이굿 등의 공연이 진행되었고, 잔디광장에서는 남사당놀이, 댄스 플래시몹, ‘왕실의 보물을 찾아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4. 지역주민 화합의 자리, 감악문화축제

양주시 남면과 파주시 적성면에 걸쳐 있는 감악산은 경기 오악(五嶽)의 하나로 꼽히는 명산이다. 경기 오악은 감악산을 비롯해 운악산, 관악산, 화악산, 송악산으로 경기 지역의 뛰어난 산을 가리킨다. 감악산 자락에서는 매년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양주를 대표하는 축제의 하나인 감악문화축제가 그것이다.

감악문화축제는 밖으로는 경기 오악의 하나인 감악산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안으로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놀이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이다. 축제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6월 둘째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9월 넷째 일요일로 옮겼다가 이후 9월 둘째 일요일로 고정해서 개최하고 있다.

감악문화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남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대는 평소에 큰 소리조차 내지 않는 조용한 지역이지만, 축제가 개최되면 2,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축제를 즐긴다. 남면에 있는 남문중학교와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가해서 축제의 편의를 도우며, 주민들은 남면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갈고뎠은 솜씨를 선보인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9년 제15회 감악문화축제는 농악대의 길놀이로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알렸고, 인근 25사단 군악대를 비롯해 아이돌 걸그룹, 오케스트라 등의 초청 공연이 펼쳐졌다.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감악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감악문화축제



감악문화축제 이모저모



2019년 제15회 감악문화축제 포스터

하는 댄스, 기타와 국악 연주, 에어로빅과 방송댄스 등이 무대를 장식했다. 또 한쪽 부스에는 소묘나 수채화 같은 전시, 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등의 체험 공간이 마련되었고, 먹거리장터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화려한 불꽃놀이였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감악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감악노래자랑이었다. TV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형태를 본뜬 감악노래자랑은 주민들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자리이자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었으며, 폐회식 때 시상식이 행해졌다.

감악문화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는 남면에 있는 신산체육공원이다. 축제

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곳은 남면사회단체협의회이며, 남면주민자치위원회와 남면농협 등이 후원으로 참여한다. 행사 비용은 시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기업체 등의 후원으로 충당한다. 한편, 과거에는 감악문화축제와 더불어 11월에 감악문화의 날 행사도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말았다.

5. 어린이축제의 진화, 양주시 가족문화대축제

축제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기는 행위이다. 이때 기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모와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전통 시대의 가족은 어른이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아이가 중심을 이룬다. 이에 양주시에서는 1999년부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양주시 어린이축제를 개최하였다. 어린이축제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축제였다. 주로 광적면 광석리에 있는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고, 아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과 군부대의 군악대 연주 등 많은 볼거리가 준비되었다.

2010년 5월 5일 제12회 양주시 어린이축제는 고읍지구에 있는 하늘물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연희단 버들소리가 길놀이를 이끌며 축제를 시작했고, 인형극, 전통 마당놀이, 움직이는 조각상과 같은 공연과 거리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체험 행사로는 트램펄린, 신비한 매직버블, 슬라이드 놀이터, 한지 탈 꾸미기, 전통 대나무 활 만들기, 팥빙수 만들기 등과 같은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고읍지구 하늘물공원에서 펼쳐진 제12회를 끝으로 양주시 어린이축제는 막을 내렸다. 대신 2011년부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다문화 가족 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축제의 성격을 바꾸었다. 일단 이름부터 양주 어린이축제에서 양주시 가족문화대축제로



2019 양주시 가족문화대축제



2019년 양주시 가족문화대축제 포스터

변경했다. 이름을 바꾼 것은 가족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매력적인 양주의 모습을 함께 즐기기 위함이었다.

축제의 성격과 이름을 바꿔 2011년 5월 5일에 처음 열린 제1회 가족문화대축제는 필룩스조명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축제장을 찾았고, 그에 호응하듯 비눗방울·실내조명·음악이 어우러진 버블 매직 쇼, 인체 및 사물의 그림자를 이용한 그림자 공연, 청중과 함께하는 코믹과 위트의 퍼니 밴드 등이 펼쳐졌다.

가장 최근에 열린 양주시 가족문화대축제는 2019년 5월 5일 제97회 어린이날 옥정중앙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소풍!”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양한 공연과 체험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 무대에서는 뮤지컬 인형극, 군악대와 함께하는 가족 퍼레이드, 버블쇼 등이 진행되었고, 체험 활동으로는 키즈 크리에이터, 슬라이드 만들기, 캐리커처 체험, 포토존 즉석 인화 사진 촬영 등이 행해졌다. 또 플레이존과 어드벤처존에는 에어바운스와 미니 바이킹, 미니 기차, 키즈 라이더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한편, 2019년 가족문화대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감동 양주 가족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였다. 축제의 이름에 걸맞게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는 계기를 선사했고,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시청 로비에서 전시하였다.

6. 천생연분마을 연꽃 인연축제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와 함께 양주시에는 꽃을 소재로 한 축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일영계곡 입구에 자리한 천생연분마을에서 연꽃을 소재로 진행되는 축제가 그것이다.

천생연분마을은 장흥면 삼상리에 소재한 마을로 이름부터 연꽃과 관련이 있는 마을이다. 여름이면 연꽃이 활짝 피는 천생연분마을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나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곡릉천이 마을을 휘감아 돌고, 마을 뒤쪽으로는 노고산이 솟아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을에서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화훼, 쌀, 채소 등을 생산하고 있다.

천생연분마을이 연꽃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및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장흥면 삼상리에 천생연분마을을 만들고 연꽃단지를 조성하면서 2005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다. 약 200m에 달하는 나무 데크가 중앙을 가로질러 있는 연꽃단지는 마을 중심의 마을정보센터 바로 앞에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마을 특징을 살려 2012년부터 연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 제1회 천생연분마을 연꽃축제는 “연으로 맺은 추억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연으로 맺은 추억 만들기’를 ‘인연’으로 줄이면서 공식 명칭이 양주시 천생연분마을 연꽃 인연축제가 되었다.



장흥면 천생연분마을 천생연분 연꽃 인연축제 퍼레이드



2017년 제6회 인연축제 포스터

2017년 제6회 천생연분 연꽃 인연축제 프로그램

시간	행사	구체적인 내용
12:00~	체험부스/ 장터 운영	먹거리장터, 특산물 판매, 카페 등
13:40~14:00	행사 안내	
14:00~15:00	작은 운동회	박 터뜨리기, 대형 윷놀이
15:00~15:20	연 요리 콘테스트	연 요리 솜씨 대결
15:30~16:30	1부 공연	난타, 다이어트 댄스, 무용 등
16:40~17:00	연꽃 퍼레이드	
17:00~17:30	폐막식/ 시상식	
17:40~20:00	2부 공연	색소폰 연주, 풍물놀이, 댄스, 기타 연주 등

인연축제는 기본적으로 연꽃을 소재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과 연꽃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연꽃 퍼레이드, 연으로 만든 음식 경연 등이 대표적인 행사이다. 연꽃 퍼레이드는 다양한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주민과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이 함께 사물놀이의 장단에 맞춰 마을을 걷는 행사이다.

한편, 천생연분 연꽃 인연축제는 매년 연꽃이 피는 7월 초 주말에 개최하였으나 제8회째인 2019년에는 9월 7일에 개최하였다. 또 철저한 마을 주도형이면서도 양주시의 다른 체험 마을인 초록지기, 맹골마을, 비암마을 등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이다.



2017년 제6회
천생연분
연꽃 인연축제
프로그램



전통문화의 향연

제2편

1

지역별 문화재, 양주의 보물

1. 문화재를 찾아서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문화재도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마법을 부리듯 똑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오랜 세월을 걸쳐 사람들이 누린 삶과 문화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긴 역사를 배경으로 사람들의 삶과 활동이 있었던 양주지역에도 그 시간과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문화재가 전해지고 있다.

양주지역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고려 이후 수도와 인접한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늘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양주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치열했고, 그것은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해지는 문화재는 이런 역사와 문화 활동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문화재는 비석이나 탑처럼 형태가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문화재

와 노래나 놀이처럼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재로 나뉜다. 과거에는 유형문화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주고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물건을 만들어 팔던 산업사회에서, K-문화로 보듯 지식과 문화를 가공해서 파는 지식·문화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이다. 관광지는 역사를 배경으로 한 문화나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재의 보존 가치에 따른 분류도 있다. 세상의 모든 문화재는 제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지정문화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해서 보존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해서 보존하는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뉜다. 국가지정문화재에는 잘 알려진 국보와 보물을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이 속한다.

2. 양주의 국가 지정문화재

양주시의 국가 지정문화재는 보물 5점, 사적 3점, 천연기념물 1점, 중요민속자료 1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2점 등 모두 12점이다.

양주시 국가 지정문화재

명칭	문화재	소재지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보물 제387호	회암동 산8-1번지 회암사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보물 제388호	회암동 산8-1번지 회암사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보물 제389호	회암동 산8-1번지 회암사
회암사지 사리탑	보물 제2130호	회암동 산14-3 회암사지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보물 제1708호	호국로 550번길 346-11(장흥면)
회암사지	사적 제128호	회암동 산14-3 회암사지
온릉	사적 제210호	장흥면 호국로 255-41(일영리)
대모산성	사적 제526호	백석읍 방성리 789
황방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278호	남면 황방리 136
별산대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부흥로 1399번길 47
소놀이굿	국가무형문화재 제70호	백석읍 방성4리 618-2
매곡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남면 매곡리 282-3

보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커 국가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인데, 5점 중 4점이 회암사지와 관련이 있고, 또 그중 2점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스승 무학대사와 관련 있다. 먼저 고려 말기의 승려로 회암사를 중건했던 나옹 화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가 있다. 비석의 모습은 당나라의 양식을 닮았으며, 비문의 글은 고려 때의 유학자 목은 이색이 나옹 화상의 생애와 업적을 담아 기술했다. 1997년 화재가 발생해 비석의 몸통이 파손되었으며, 현재 비석 몸체를 품는 아래쪽의 귀부는 회암사에 있고, 비석의 몸체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무학대사와 관련된 보물은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과 그 탑 앞에 있는 쌍사자 석등이다. 무학대사탑은 조선 전기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묘탑으로 1407년(태종 7)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탑 앞에는 사자 두 마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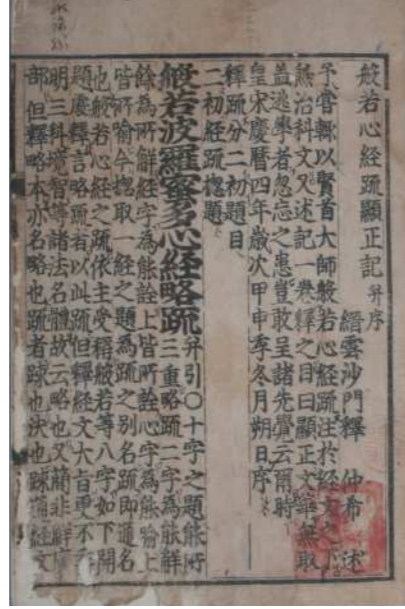
파손 이전의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왼쪽)와 회암사에 있는 귀부(출처 문화재청)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왼쪽)과 그 앞에 있는 쌍사자 석등(오른쪽)(출처 문화재청)

석등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한 쌍사자 석등이 있는데 이 또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은 2021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조선 전기 왕실에서 발원해 건립한 진신사리탑이다. 탑의 형식과 장식 문양 등이 왕실 불교미술의 여러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탑이다. 그리고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왼쪽)과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출처 문화재청)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는 1464년(세조 10)에 한글로 번역된 불경이다. 당나라의 범장이 찬술한 『반야심경약소』와 송나라의 중희가 찬술한 『현정기』를 합쳐서 번역한 책이다. 현재 양주 송암사에 보관 중인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는 1495년(연산군 1)에 인쇄한 것이다.

보물에 이어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과 시설의 자취를 국가가 인정해서 지정하는 사적을 살펴보자. 양주지역의 사적은 회암사지, 온릉, 그리고 대모산성 등 모두 3점이다. 이들 가운데 회암사지는 별도 항목으로 수록했기에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온릉은 조선 11대 중종의 첫 왕비인 단경왕후 신씨의 능이다. 능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부를 때 쓴다. 한국의 능(조선왕릉)은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단경왕후는 중종반정으로 왕비가 되었으나 아버지 신수근이 중종반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폐위되었다가 영조



단경왕후 신씨의 묘 양주 온릉의 능침(사적, 출처 문화재청)



양주 대모산성 북문지 주변 잔존 성벽(출처 문화재청)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대에 복위되어 온릉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대모산성은 임진강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한 지리적인 배경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방어를 위한 성곽에 더해 행정 치소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대모산성은 양주지역이 전술적 요충지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는 유적이며, 1980년부터 발굴이 이루어져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양주지역의 천연기념물로는 황방리 느티나무가 유일하다. 느티나무는 동아시아의 따뜻한 지역에 분포하는 나무인데, 줄기가 굵고 수명이 길어 마을의 정자나무나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당산나무 역할을 많이 하였다. 높이가 24.5m에 이르는 황방리의 느티나무는 수령이 850여 년 정도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온전해 보인다. 황방리 느티나무는 이 마을에 살던 밀양 박씨의 조상이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매곡리 고택은 명성황후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피난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원래 안채, 사랑채, 행랑채, 별당채로



양주 매곡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어졌으나 현재는 안채와 행랑채만 남아있다. 황후가 거처할 집으로 건 축된 만큼 매우 정교하게 지어진 집이다.

3. 양주의 경기도 지정문화재

한편 지정문화재에는 국가 외에 시·도에서 지정한 것도 있다. 양주지역은 경기도에 속해 있기에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양주지역에는 43개에 이르는 많은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는 종목에 따라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나뉜다.

무형문화재는 노래나 춤처럼 일정한 모양이 없으나 예부터 전해진 전통 예술과 기술을 가리킨다. 양주지역의 무형문화재는 나전장과 양주상여·



양주의 무형문화재. 왼쪽부터 나전장 김정열 작품 (출처 문화재청), 양주상여·회다지소리(출처 문화재청), 양주농악

회다지소리, 양주농악 등 3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나전칠기는 조개, 소라, 전복 등의 껍질로 가구나 기물의 면을 칠과 함께 장식하는 기술이다. 상여·회다지소리는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소리와 무덤의 흙을 다질 때 부르는 소리를 가리킨다. 농악은 집단노동을 할 때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하는 음악으로 달리 풍물이나 두레라고도 부른다.

양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된 경기도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이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다. 태고종에 속한 청련사에 보관 중인 유형문화재가 11점, 문화재자료가 4점으로 가장 많고, 회

암사지와 관련된 것이 3점, 송암사가 2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기념물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물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양주지역에 지정된 기념물은 모두 8점이다. 그중 5점이 양주와 관련된 역사 인물의 묘역이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권율 장군,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을 저술한 이수광, 조선의 대표적 청백리였던 백인걸,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이준, 조선 중기의 청백리였던 최명창 등이 그들이다.

이 외에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념물이 3점 있다. 임진왜란 때 최초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백석읍 연곡리의 해유령전첩지,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명필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비롯한 여러 암각문이 남아 있는 노고산독재동추사필적암각문, 양주 관아가 있던 관아지가 그것이다.

문화재자료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와 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한 것을 가리킨다.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편의상 함께 살펴본다. 양주지역의 경기도 지정 문화재자료도 불교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 책의 '절'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 외에 양주지역의 교육을 담당했던 양주향교, 옥정리에 있는 선돌, 죽산안씨의 종가 죽산안씨연창위종가, 전성부원군 이준 선생의 영정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양주시 경기도 지정문화재

종목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무형 문화재	제24호	나전철기장(나전장)	양주시 평화로 1399번길 10	
	제27-가호	양주상어·회다지소리	양주시	
	제46호	양주농악	광적면 광적로155번길 77	
유형 문화재	제50호	니옹선사 부도 및 석등	회암동 산8-1번지	
	제51호	무학대사비	회암동 산8-1번지	
	제82호	어사대비	유양동 산33-102번지	
	제206호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물	양주시 회암동 산8-1	
	제305호	양주 송암사 육경합부	호국로 550(장흥면)	
	제336호	양주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물	양주시 장흥면	
	제337호	양주 청련사 관음보살좌상 및 복장물	양주시 장흥면	
	제338호	양주 청련사 현왕도	양주시 장흥면	
	제339호	양주 청련사 비로자나괘불도	양주시 장흥면	
	제340호	양주 청련사 칠성도	양주시 장흥면	
	제341호	양주 청련사 지장시왕도	양주시 장흥면	
	제342호	양주 청련사 감로도	양주시 장흥면	
	제343호	양주 청련사 산신도	양주시 장흥면	
	제344호	양주 청련사 독성도	양주시 장흥면	
	제349호	양주 육지장사 예념미타도량참법	양주시 백석읍	
	제363호	안표 초상화 및 교지	양주시	
	제364호	양주 청련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장흥면 권율로 169(청련사)	
	제365호	양주 청련사 아미타불괘불도 및 복장물	장흥면 권율로 169(청련사)	
	기념물	제2호	권율장군묘	장흥면 권율로 223(석현리)
		제39호	해유령전첩지	백석읍 연곡리 산38번지
제49호		이수광선생묘	장흥면 삼하리 산90-1번지	
제58호		백인걸선생묘	광적면 화합로147번길 296-43	
제97호		노고산독재동추사필적암각문	장흥면 삼하리 산65번지	
제120호		이준선생묘	남면 신산리 1-1번지	
제167호		양주관아지	유양동	
제178호		송석최명창묘역	덕계동 산64번지	
민속문화재	제1호	회암사지맷돌	회암동 산14-1번지	
문화재자료	제1호	석조나한상	양주시 장흥면	
	제2호	양주향교	부흥로1423번길 50(유양동)	
	제81호	전성부원군이준선생영정	남면 개나리21길 61-8(신산리)	
	제89호	양주옥정리선돌	옥정동 627-1번지, 산94-1	
	제103호	죽산안씨연창위종가	광사로 131-27 (광사동)	
	제135호	양주회암사지공선사부도비	회암동 산 8-1	
	경제161호	양주 석굴암 석조불좌상	석굴암길 519(장흥면)	
	제162호	양주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석굴암길 519(장흥면)	
	제178호	대혜보각선사서	호국로 550번길 346-11(장흥면)	
	제187호	양주 청련사 아미타불회도	장흥면 권율로 169(청련사)	
	제195호	양주 청련사 소조독성좌상 및 복장물	장흥면 권율로 169(청련사)	
	제196호	양주 청련사 시왕도 및 사자도	장흥면 권율로 169(청련사)	

4. 지역별 향토유적

앞에서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양주지역의 문화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란 없다. 다만 지정할 만큼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희소성이 떨어져 보편적인 가치를 확보하지 못한 문화재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비지정 문화재로 보호한다. 비지정 문화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군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재다. 이는 달리 향토유적이라고도 부른다.

사실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그 지역의 소중한 보물이다.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문화 활동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어 고유성과 보편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양주의 각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다른 지면에서 여러 문화재를 깊게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는 각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한눈에 보기에 좋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려고 한다. 또 앞에서 지정문화재를 다루었기에 향토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향토유적은 2015년 시행된 양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향토의 역사 및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양주시는 모두 18개의 향토유적을 지정했는데, 이들 가운데 양주시 향토유적 제1호였던 대모산성은 국가 사적으로 승격했고, 이준 선생 묘와 양주 동헌(양주 관아지)이 경기도 기념물이 되면서 현재 모두 15점의 문화재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남면의 향토유적.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해수 선생 묘, 홍지 선생 묘, 홍서봉 신도비, 홍서봉 묘

1) 남면의 향토유적

남면은 이름과 달리 양주지역의 가장 북쪽에 자리한 곳이다. 그것은 남면이 양주시 북쪽에 있는 연천군에 속해 있을 때 가장 남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남면에는 모두 3개의 향토유적이 있다. 이해수 선생 묘와 홍지 선생 묘, 홍서봉 신도비 및 묘역이 그것이다.

남면의 향토유적

명칭	문화재	소재지
이해수 선생 묘	양주시 향토유적 제5호	남면 한산리 산1
홍지 선생 묘	양주시 향토유적 제11호	남면 상수리 산55-1
홍서봉 신도비 및 묘역	양주시 향토유적 제17호	남면 감악산로52번길 23-12

이해수 선생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도승지를 지냈다. 묘는 남면 신산리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가는 도로 왼쪽에 전의 이씨 묘역이 있고 그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해수 선생 묘는 조선 후기 묘역의 형태와 묘갈 및 석물의 형태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또 묘 앞에 있는 묘갈에는 한국전쟁 때 생긴 탄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역사의 편린을 보여준다.

홍지 선생은 고려의 유신으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친분이 있어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거부하고 낙향해서 시와 글로 세월을 보낸 학자이다. 홍지 선생 묘는 상수리 망당산 남쪽에 있는 남양 홍씨 묘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 남양 홍씨 묘역은 무학대사가 한양을 수도로 삼을 때 묘역이 있는 남면 상수리 일대가 국가의 기쁨과 근심을 함께 할 자리라고 했고, 홍지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나라에서 장지로 내린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홍서봉 신도비 및 묘역은 조선 중기 영의정에 올랐던 홍서봉(1572~1645)과 관련된 유적이다. 묘는 남양 홍씨 묘역 내에 있으며, 묘 왼쪽 아래에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2005년에 건립된 비각 내에 보존되어 있다.

2) 은현면의 향토유적

은현면의 은현은 이전의 행정구역이었던 목은면과 현내면에서 한 글자씩 따서 생긴 이름이다. 현재 상패리, 용암리, 하패리, 도하리, 선암리, 봉암리 등 12개 리로 편성되어 있다. 은현면에는 남을진 선생 묘 및 신도비, 송질선생 묘 및 신도비, 남희 선생 묘 등 모두 3점의 향토유적이 있다.



남을진 선생 묘 및 신도비

은현면의 향토유적

명칭	문화재	소재지
남을진 선생 묘 및 신도비	양주시 향토유적 제2호	은현로 382번길 28
송질 선생 묘 및 신도비	양주시 향토유적 제8호	선암리 산15-1
남희 선생 묘	양주시 향토유적 제10호	도하리 산16

남을진 선생은 고려의 유신으로 조선 건국 이후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며 거부하고 감악산 남선굴에 은거하다가 삶을 마감했다. 남을진 선생의 묘와 신도비는 봉암리 서원말에서 하패리로 건너가는 도로변에 있는 비석골에 있다. 비석골은 남을진 선생의 신도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신도비는 1784년(정조 8) 남을진을 배향하는 사우인 정절사에 사액을 내릴 때 세운 것이다.

송질 선생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영의정을 지냈다. 묘는 선암리 능골마을과 새말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능골마을이라는 이름은 송질의 묘가 능처럼 화려한 것에서 유래했다. 송질 선생 묘 아래에 손자와 차남의 묘가 있고, 그 아래에 신도비가 비각 안에 보존되어 있으며, 묘소 아래에 송질 사당이 있다.



송질 선생 묘 및 신도비



송질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다. 연산군 때 홍귀달은 손녀를 궁중으로 보내라는 왕명을 거역했다가 귀양을 갔고, 도중에 황해도에 있는 용천역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훗날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영위사였던 송질이 용천역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 밤에 바깥에서 누군가 송질 선생을 불러 나가보니 홍귀달이었다. 송질은 홍귀달을 안으로 들였고, 추우니 따뜻한 술을 대접해 달라는 청을 듣고 술을 데워 대접했다. 홍귀달은 송질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손에게 축복을 내린 뒤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 뒤 송질은 영의정에 올랐고 자손들도 크게 출세했다.

남희 선생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병조참판을 지냈다. 남희선생 묘는 조선 전기 묘비석과 문인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인정을 받아 향토유적으로 선정되었다.

3) 광적면의 향토유적

광적면은 옛 명칭인 광석면과 석적면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의 이름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름에서도 산으로 에워싸인 넓은 들판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다. 광적면에는 2점의 향토유적이 있다. 양주지역의 향토유적이 대체로 묘역과 신도비에 집중되어 있는데 광적면의 경우는 정문과 바위라는 독특한 유적들로 구성되어 있다.

광적면의 향토유적

명칭	문화재	소재지
최제·최혁 효자정문	양주시 향토유적 제7호	현석로 495번길 52-11
빗집바위(울암)	양주시 향토유적 제14호	덕도리 산97-1

먼저 우고리 가재울마을에 있는 최제·최혁 효자 정문이 있다. 정문은 과거 국가가 충신이나 효자와 효녀, 열녀 등의 아름다운 행실을 널리 기리고 알리기 위해 그 사람이 살던 마을의 입구나 집 앞에 세운 문을 가리킨다. 달리 정려나 정려문이라고도 부른다.

최제는 40년 동안 생모를 모시듯 계모를 모셨는데, 아버지가 객지에서 전염병에 걸리자 구걸을 하며 지성으로 섬겨 회춘하게 했다. 최제의 손자인 최혁은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대변을 맛보아 병의 위중함을 알고 자기 손가락의 피를 내어 회생시켰다.

최제의 정문은 1854년에 정문이 내려졌고 이듬해에 정문이 건립되었다. 최혁의 정문은 1869년 양주지역의 유림 200여 명이 발의해서 내려졌다.

광적면에 있는 또 다른 향토유적인 빗집바위는 생김새가 빗을 넣어두는 기구인 빗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달리 울암이라고도 불리는데, 직경 6m가 넘는 바위 5~6개가 포개져 있고, 두 번째 바위는 돌로 쪼



남희 선생 묘(정면 및 측면)



최제·최혁 효자 정문 정려문각(왼쪽) 및 최혁 효자 정문(오른쪽)



여러 방향에서 본 빗점바위

개져 있다. 쪼개진 바위 사이로 소나무가 자라 있고, 바위 면에는 1870년 덕도리에 사는 수원 백씨 가문에서 새긴 명문이 있다.

이 명문의 이름은 「수원백씨각처선농기」로, 그 내용은 수원 백씨의 주요 인물에 대한 사적과 묘소가 있는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선영의 묘갈을 새겨 영원토록 남기고자 하였으나 …… 재물이 부족함이여!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누가 바위에 글을 새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빗점바위는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있고, 빗점바위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과거 양주지역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어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았다.

4) 백석읍의 향토유적

백석이라는 말은 18세기 문헌인 『여지도서』에 등장하는데, 산성에 하얀 돌이 있어서 백석(白石)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백석읍에는 36개의 행정리가 속해 있으며, 3개의 향토유적이 전해지고 있다.

백석읍의 향토유적

명칭	문화재	소재지
윤자운선생 묘 및 신도비	양주시 향토유적 제9호	홍죽리 산27
조영무 별묘	양주시 향토유적 제12호	연곡리 산25
양주들노래	양주시 향토유적 제18호	오산리 516-5

먼저 홍죽리에 있는 윤자운 선생 묘 및 신도비부터 살펴보자. 윤자운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영의정까지 지냈다. 묘와 신도비는 가남사거리에서 장흥면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가면 홍죽리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윤자운 선생 묘 아래에 부인의 묘가 있고 묘소 아래에 신도비가 비각에 보존되어 있는데, 옛 신도비 옆에 새로 만든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신도비를 새로 세운 것은 옛 신도비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모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연곡리에 있는 조영무 별묘는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조영무의 사당이다. 두 차례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왔던 조영무는 그의 장례 때 태종이 직접 찾아와 조문할 정도로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전한다. 사당 안에는 위패와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한편 조영무의 묘와 신도비 등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자리하고 있다. 조영무 별묘는 연곡리 지령산 기슭에 있다.

건물은 삼문과 사우로 이루어져 있고 삼문 중 중문에는 조영무의 호를



윤자운 선생 묘와 신도비비각



조영무 별묘



양주 들노래 시연



만 휴암묘라는 현액이 걸려 있다. 원래 조영무 별묘는 현재의 장소에서 서북쪽으로 1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1914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949년에 담을 보수하고 별묘를 중수했다.

양주 들노래는 양주시의 향토유적 가운데 유일한 무형문화재이다. 양주 들노래는 과거 농사를 지을 때 모심기와 논매 때 부르는 노래로, 「소모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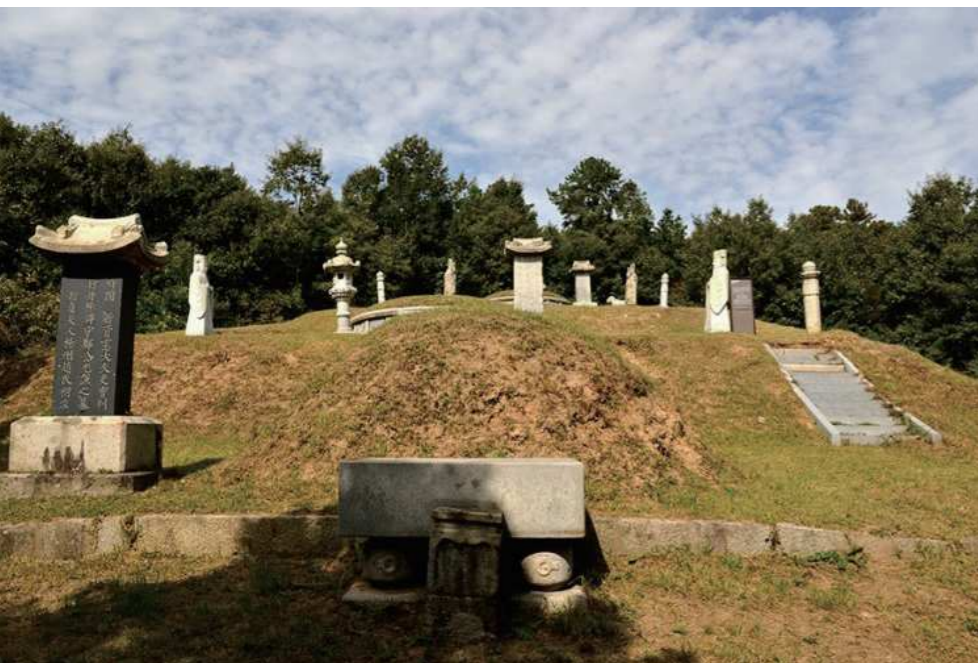
양주 들노래는 농업의 쇠퇴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나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고 양주들노래보존회가 만들어지면서 다행히 그 명맥이 전승되고 있다. 양주 들노래는 2010년 제8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제에 나가 대상을 받았다.

5) 산북동·회암동·옥정동의 향토유적

양주시에는 읍면(邑面)뿐만 아니라 도시화 된 동(洞)도 있는데, 그곳에도 향토유적이 있다. 산북동에는 정민시 선생 묘 및 신도비와 정렴 선생 묘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민시 묘 및 신도비(출처 양주디지털문화대전)



정림 선생 묘(출처 클릭양주)

산북동 · 회암동 · 옥정동의 향토유적

명칭	문화재	소재지
정민시 묘 및 신도비	양주시 향토유적 제3호	산북동 산92번지
정림 선생 묘	양주시 향토유적 제4호	산북동 산92번지
회암사지 당간지주	양주시 향토유적 제13호	회암동 산8
윤근수 사당	양주시 향토유적 제16호	옥정동 776-2

정민시는 18세기의 유학자로 정조를 세운 때부터 보살폈고 정조의 총애를 받아 이조판서까지 올랐다. 정조가 친히 어필과 전교를 내려 건립한 정민시의 신도비에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부터 정조가 즉위할 때 공을 세운 홍국영의 기록도 담겨 있어 당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정조의 꿈이 담긴 수원화성의 장락당에는 정민시가 쓴 상량문이 있다. 정민시의 신도비는 묘에서 50m쯤 아래로 내려간 곳에 있는 비각 내에 보존되어 있다.

산북동의 온양 정씨 묘역에는 정민시 외에도 조선 전기의 학자인 정림의 묘도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림은 천문 · 지리 · 의학 · 점복 등에 능했고, 생육신으로 유명한 매월당 김시습과 토정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과 함께 조선의 3대 기인의 하나로 꼽힌다. 정림은 약재에도 뛰어나 종종 병에 걸리자 내의원의 추천으로 종종을 진찰하기도 했다.

정림은 신기하고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남겼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대낮에도 그림자가 없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 이야기는 그의 호를 따서 ‘정북창설화’ 또는 ‘북창 정림 선생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정림의 비석은 1779년(정조 3) 그의 8대손 정민시가 썼는데 그의 일대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림의 비석에는 한국전쟁 때 총탄을 맞은 흔적이 남아 있다.



회암사지 당간지주(출처 문화재청)



월정 윤근수 사당

또 문화재가 준비한 회암사지에도 향토유적이 하나 있는데, 회암사지 당간지주가 그것이다. 당간지주는 깃발과 같은 형태의 불교 장엄물인 당을 걸기 위한 2개의 기둥을 가리킨다. 회암사지의 당간지주는 현재의 위치에서 왼쪽으로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회암사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신도시가 들어선 옥정동에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윤근수의 사당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윤근수의 사당은 그의 호를 따서 월정사라고도 부른다. 처음 건립된 사당은 사라지고 주춧돌만 남았는데, 1990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했다.

윤근수는 특히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는데, 그의 글씨는 영화체라 불리며 많은 찬양을 받았다. 참고로 윤근수의 묘는 현재 북한에 속해 있는 과거 경기도 장단에 있다.

윤근수 사당은 조선 중기 사당의 형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며 최근 신도시 조성과 함께 인근에 독바위 공원, 독바위 정상 등과 연계해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또 경기도 문화재자료인 옥정리 선들도 가까운 곳에 있다.

2

회암사, 왕실이 사랑했던 사찰

1. 회암사 가는 길

양주시에는 많은 사찰이 있고 유명한 사찰도 꽤 있으나 양주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을 꼽는다면 단연 회암사이다. 회암사는 양주시 천보산에 자리한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그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흥미로운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다.

회암사가 있는 천보산은 남북으로 길게 산들이 이어져 병풍처럼 길게 뻗어 있다. 회암사는 그 병풍처럼 이어진 산들을 등지고 앞쪽에 펼쳐진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절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남쪽으로 흔히 말하는 남향이다.

회암사를 잘 모르고 처음 찾아가면 언뜻 혼란이 생긴다. 왜냐면 회암사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절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무너진 회암사가 있었던 회암사 터(회암사지)가 있고,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불교의 총본산이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은 회암사지



양주 회암사지 문화재



조선 말기에 세운 조그만 암자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때 보전을 지어 불상을 봉안하고 1977년에 법당을 새로 지은 회암사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발길이 먼저 만나게 되는 회암사지에서 멈추면 회암사에 있는 무학 대사 부도와 쌍사자 석등 등과 같은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회암사지와 더불어 회암사도 가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회암사지와 회암사가 함께 존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불교를 향한 고려와 조선의 서로 다른 시각 때문이다. 즉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와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의 이념이 회암사지와 회암사라는 독특한 형태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회암사지와 회암사는 찾아가기 편리하고 접근성도 뛰어나며 주차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나들이하기에도 매우 좋다. 또 회암사지에는 회암사지박물관이 있어서 회암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탁 트인 회암사지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역사와 문화를 즐기며 다니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회암사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사찰이었다. 회암사는 이런 규모와 역사 외에도 당시의 불교와 정치, 양주지역의 지리적 인 배경 등 여러 점에서 시사하는 것이 많은 사찰이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전경



지공 선사 진영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2. 고려와 회암사

회암사의 옛 모습을 찾으려면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회암사가 언제 건립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시대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이른 내용은 『동국여지승람』 권 2에 ‘고려 명종 4년(1174) 금나라의 사신이 고려를 찾았다가 회암사에 들렀다’는 기록이다. 또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에는 1313년(충선왕 5)에 고려를 대표하는 승려 보우가 13살의 나이에 회암사에 거주하는 광지 선사에게 출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1376년(우왕 2)에는 큰 규모로 회암사를 중건하는데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이야기는 멀리 인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도 마가다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난 지공 선사는 여덟 살에 나란타사에 출가해 계를 받았다. 당시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이기도 했던 나란타사는 이슬람의 침입으로 폐교가 되었는데, 지공은 마지막 졸업생이었다.

지공 선사는 인도 전역의 순례를 마치고 중국 원나라로 교화했다. 그는 원나라 천자에게 불법을 펼칠 정도로 뛰어난 고승이었다. 그런 그가 1326년(충숙왕 13) 3월 고려를 찾아와 2년 반 동안 머물러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법회를 열었다. 이때 회암사에도 들렀는데 회암사의 주변 지형이 그가 출가했던 나란타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머릿속 깊이 기억했다. 그는 원나라로 돌아간 뒤에도 고려에서 찾아오는 유학 승려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한편 지공이 고려를 찾았을 때 당시 8살의 나이로 그에게 보살계첩을 받았던 이가 있다. 바로 고려 말의 고승 나옹 선사이다. 그는 20살 때 친구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고 출가를 해 회암사에서 정진한 결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으로 건너가 지공 선사를 찾아 공부하며 명성을 떨쳤다.



나옹 선사 진영

나옹 선사가 고려로 돌아올 때 지공 선사는 “삼산(三山)과 양수(兩水)가 합치는 중간에 절을 세우면 불법이 융성하리라”라는 말을 전했다. 여기서 삼산은 삼각산이고 양수는 한강과 임진강을 가리킨다. 지공의 뜻은 과거에 그가 보았던 회암사 주변의 산과 물의 모습이 나란타사와 같으니 회암사를 중건하라는 의미였고, 나옹은 그 뜻을 따라 회암사를 새롭게 중창했다.

그런데 회암사를 중건할 때 관아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에 조정에서 나옹을 밀성군(오늘날의 밀양)으로 추방했다는 내용도 전해진다. 이는 그만큼 회암사를 향한 민간의 관심이 지대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나옹은 262칸 규모를 가진 회암사의 완공을 보지는 못했다. 밀성군

으로 가던 도중에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암사의 낙성은 그의 제자 각전이 했다. 그리고 나옹 선사의 부도와 석등을 회암사에 조성했다. 이미 회암사에는 지공 선사가 입적했을 때 원나라에서 가져온 지공의 영골을 모신 부도가 세워져 있었다.

중건을 마친 후 회암사는 국내 최고의 사찰이 되었고, 국가와 왕실의 원찰이 되었다. 원찰은 소유자가 소원을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절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국가와 왕실의 원찰이 되었다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391년 공민왕 때 왕이 남경에서 돌아오면서 회암사에 들러 대규모 불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화려한 치장을 하고 왕이 직접 향로를 받들고 왕비, 세자와 함께 밤을 새워 예불을 올렸으며 많은 재물을 시주로 바쳤다고 전한다.

회암사는 한때 승려가 3,000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했다. 고려 말의 유학자인 이색이 “집과 그 모양새가 굉장하고 아름다워 동방에서 첫 번째”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름다운 절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회암사는 고려 말기 전국 사찰의 총본찰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는 신진사대부로 불리는 유학자들이 대두하며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이기도 했다. 이런 불교를 배척하는 척불의 강한 바람을 막고 회암사가 조선 이후에도 최고 사찰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보호 때문이었다.

3. 이성계와 회암사

조선 왕실은 건국 이후 유학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암사를 원찰로 삼았다. 그것은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의 의중이 깊이 개입한 탓이었

다. 이성계는 회암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며 한양을 수도를 정할 때 왕십리와 관련된 흥미로운 고사를 남긴 무학대사와 관련이 있다. 무학 또한 원나라로 지공 선사를 찾아가 제자의 연을 맺은 사이였다. 따라서 지공과 나옹, 무학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회암사였다.



무학대사 진영

실제로 현재도 회암사에는 지공 화상과 나옹 선사, 무학대사의 부도와 비가 세워져 있다. 인도에서 시작해 원나라와 고려를 잇고 그것이 현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각별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회암사는 한양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태조 이성계는 왕의 스승, 즉 왕사 무학대사를 회암사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의 법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를 대거나 다른 곳으로 행차할 무학대사를 접견한다는 이유를 대고 회암사를 방문했는데, 그 횟수가 무려 7차례였다. 즉, 1393년(태조 2)에는 1월과 2월, 1394년에는 8월, 1398년에는 2월, 1402년(태종 2)에는 6월과 8월, 1406년에는 6월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심지어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한동안 회암사에 머물기도 했다.

이성계는 회암사를 찾을 때마다 곡식과 옷감을 내렸고, 행차하지 않을 때도 법회를 위해 곡식과 면포를 하사했다. 왕위를 선양한 후에도 왕에게 요청해 여러 번 논과 밭을 내리게 했다. 또 회암사에 거주할 때 계를 받고 육식을 금하는 등 승려와 비슷한 삶을 살았고, 1402년에는 무학대사와 함께 회암사의 중건을 도모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회암사는 온갖 부역을 면제받았고, 왕실에서 개최하



무학대사탑

태조 이성계 어진
(국보, 출처 문화재청)



는 법회를 대부분 회암사에서 거행하며 왕실의 원찰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이성계는 왕사 무학대사를 위해 그가 살아 있을 때 미리 묘탑을 회암사에 만들게 하였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 탑에 안치하고 탑비를 세워 주는 등 극진한 예우를 다했다.

한편, 조선은 건국 후 잠시 한양을 떠나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었는데, 이때 지리적인 문제로 왕실과 회암사의 관

계도 조금 멀어졌다. 그러나 다시 한양으로 복귀하고 태종이 왕위에 앉으면서 회암사와의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1402년 태종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당시 회암사에 머물고 있던 이성계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성계가 승려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육식을 하지 않아 몸이 상하고 쇠약해졌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태종은 무학대사를 비롯한 승려들에게 자기가 회암사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모두에게 벌을 주겠다고 크게 화를 냈다. 이에 놀란 무학대사는 태종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인근의 암자로 몸을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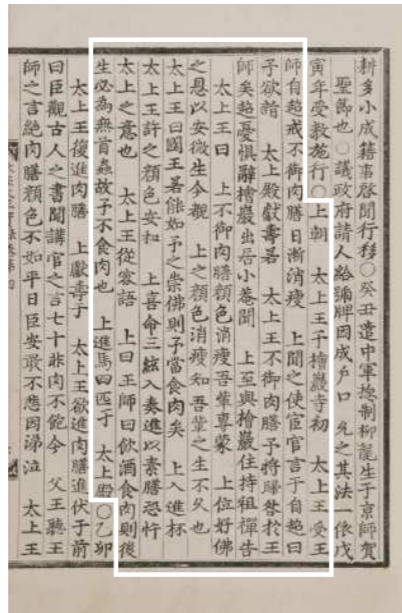
태종이 회암사에 도착하자 태조가 아들이자 왕인 태종에게 불교를 믿으면 고기와 술을 먹겠다고 차분하게 권유했다. 이에 태종도 한걸음 물러났다. 태종은 고기가 없는 나물 반찬으로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렸고 이성계도 여기에 화답하듯 함께 나온 술을 마셨다고 한다.

태종은 개인적으로 불교를 신앙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건국자이자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의 뜻을 따라 회암사를 각별하게 대우했다. 전국 사찰의 재산에 제한을 줄 때도 회암사는 예외 규정을 두어 관대하게 대우했고, 호조에서 회암사에 전답을 지급하지 않자 사헌부에서 조사하게 만들어 전직 호조 판서에게 책임을 묻는 등 회암사를 보호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나자 왕실과 회암사의 관계가 다시 느슨해졌다. 1408년 5월 이성계가 이승을 떠나자 태종은 그해 7월 당시 세자였던 양평대군을 회암사로 보내 칠재(七齋)를 지내게 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중국 사신인 황엄도 회암사에 은 50냥을 시주했다. 태조 이성계와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회암사는 이성계 사후 조금씩 그 힘을 잃었고 왕실과의 관계도 과거와 비교해 느슨해졌다.

4. 조선과 회암사

고려는 통일신라의 뒤를 이어 불교를 숭상했으나 조선은 잘 알려진 것처럼 유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수용했고 불교를 억압했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을 건국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교가 무너지고 절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때 왕실의 비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회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여 불교의 힘은 차츰 약해졌고 회암사 또한 그 운명에



태조 이성계가 회암사에 머물 당시의 『조선왕조실록』 기사(『태종실록』 태종 2년 8월 2일)



회암사 중수를 위한 경찬대회 관련 『조선왕조실록』 기사(『세종실록』 세종 16년 4월 10일)

서 벗어나지 못했다. 태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 때부터는 회암사에 대한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세종이 즉위한 해인 1418년에 회암사의 승려들이 절에 속한 여자 노비를 간음한 사건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 이 때문에 상소가 빗발치자 그해 11월에 회암사를 비롯한 각 사찰의 노비를 없애고 말았다. 그러나 세종은 승려들이 전답까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회암사에 100결의 토지를 내리

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1424년(세종 6) 예조에서 올린 문서를 보면, 전국의 사찰 18곳의 토지 소유 가운데 회암사가 단독으로 보유한 토지가 500결에 달하고 회암사에 거주하는 승려도 250명에 달한다고 나와 있다. 또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승려들도 거주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런 자료는 여전히 회암사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사찰임을 방증한다.

세종은 태조와 태종에 이어 시종일관 회암사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세종 16년인 1434년 회암사를 중수하기 위해 경찬대회를 개최했는데 이에 대해 유학자들이 비판을 퍼부었다. 회암사가 수리를 명목으로 하루에도 수만 명에 이르는 신도로부터 돈과 곡식을 걷어 들이고, 중전의 어머니를 비롯해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절을 찾아 유숙하는 것을 비난했다.

유학자들은 강한 목소리로 부녀자가 사원에서 유숙하는 것과 불사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종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듬해에 쌀을 희사했다. 또 1443년에 가뭄이 들자 비를 내리게 하는 불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1446년에는 회암사에 부과된 잡역을 면제했다. 이런 회암사

의 불사에는 출가한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도 참여했다.

세종 이후에도 왕실은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회암사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세종 다음으로 즉위한 문종은 재위 기간이 짧았던 까닭에 이렇다 할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세조가 왕위에 있었던 1457년(세조 3)에는 회암사의 중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464년에는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범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래가 나타나고 감로가 내렸으며 색깔 있는 안개가 퍼지는 등 좋은 징조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각사를 세웠다.

성종 즉위년인 1469년에 세조의 왕후였던 정희왕후가 하성부원군인 정현조에게 회암사의 중건을 명했고, 정현조는 당시 정양사의 주지였던 처안을 회암사로 옮기게 하고 공사를 맡겼다. 중건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자 유학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수사의 재물을 사용해서 회암사를 중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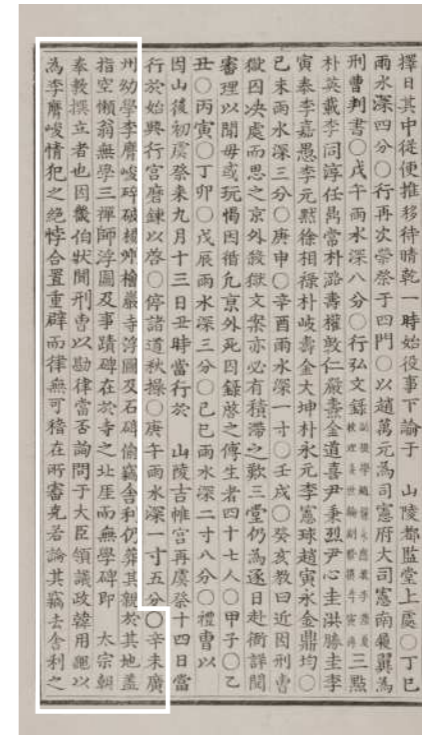
성종 역시 신하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성종은 내수사가 아니라 의숙공주가 개인의 재산을 털어서 정희대비가 추진하는 회암사 중수를 돕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니까 왕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하들의 입을 막은 것이다.

그러나 그해 6월에 덕원군과 창원군 등이 3,000여 명과 함께 회암사에서 불공을 드리고 유숙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유학자들은 왕실의 인물이 회암사에서 유숙한 것에 대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종은 그 자리에 있었던 방호련이라는 인물만 처벌했을 뿐 회암사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묵인했다. 오히려 대비의 뜻을 받들어 회암사에 속한 여러 잡역을 모두 면제시켰다. 이에 유학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으며, 1490년에는 유생 박은손이 회암사의 금불을 몰래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암사는 유학자들의 반대에도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번영을 유지했다. 연산군 때에는 도성에 있는 절을 모두 없애고 불상을 성 바깥으로 내보내

는 일이 있었는데 선종의 본산이었던 흥천사에 있던 불상을 회암사로 옮겼다.

그러나 불교를 억압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조선의 주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명종 때에 섭정이었던 문정왕후 윤씨는 불교의 부흥을 위해 보우라는 승려를 내세워 승과를 행하였고, 승려가 출가한 것을 국가가 인정해 신분을 공인하는 도첩제를 시행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1565년(명종 20)에 회암사에서 승려와 속인, 남녀노소, 귀천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나누



유생 이응준이 「지공선사비」 등을 부수고 묘를 썼다는 『조선왕조실록』 기사(『순조실록』 순조 21년 7월 23일)

어주는 불교 행사인 무차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회 전날 밤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무산되었다.

문정왕후라는 바람막이가 사라지자 유학자들의 공격은 거세어졌다. 결국 보우는 청평사로 갔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어 살해되었다. 보우의 죽음은 회암사의 쇠락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얼마 후 회암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불꽃은 200여 년에 걸친 회암사의 영광과 번영을 모두 삼키고 말았다. 『명종실록』에 “명종 21년(1566) 송도의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고, 『선조실록』에는 “회암사 옛터에 불탄 종이가 있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볼 때 화재는 1566~1595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회암사에 대한 기록이 간간히 나타난다. 1603년(선조 36)에 왕

자들이 사냥을 나왔다가 회암사에 들렀다는 내용도 있고, 1605년 선조대에 왕실에서 회암사를 지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화재 이후에는 절터만 남아서 풍상을 견디었다.

여기에 1821년(순조 21)에는 경기 광주의 유생 이응준이 술사의 말을 듣고 「지공선사비」와 「무학대사비」를 부수고 그 자리에 묘를 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국의 승려와 불교 신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비와 부도를 다시 세우고 조그만 암자를 세웠다.

이렇게 화려한 역사를 배경으로 터만 남은 곳이 오늘날의 회암사지이며 조그만 암자를 세웠던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회암사이다.

5. 회암사지의 문화재

현재 회암사지와 회암사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문화재가 남아 있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융성했던 회암사와 관련이 있으며 회암사의 세 인물, 즉 지공, 나옹, 무학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문화재는 회암사지와 회암사에 나뉘어 있으나 일반적인 명칭은 회암사지를 사용한다.

회암사지와 회암사의 지정문화재

명칭	문화재 유형	개요
양주 회암사지	사적 제128호	고려시대 사찰로 현재 절터가 남음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보물 제387호	고려시대 석비로 나옹 화상을 추모하기 위한 비석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보물 제388호	지공, 나옹의 승탑과 함께 세워져 있는 묘탑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보물 제389호	무학대사탑 앞에 있는 석등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보물 제2130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에서 2021년에 보물로 지정됨
양주 지공 선사 부도 및 석등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9호	고려시대의 승탑과 석등
양주 나옹 선사 부도 및 석등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0호	고려시대의 승탑과 석등
양주 무학대사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1호	무학대사를 기념해서 세운 비석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6호	회암사 영성전에 모셔져 있는 불상
양주 회암사지 맷돌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호	회암사지에 남북으로 나란히 있는 2기의 화강암 맷돌
양주 지공선사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5호	지공 선사 부도 앞에 있는 비석

3

절, 양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1. 절의 유래와 불교의 전래

절은 불교의 사제인 승려와 신자가 모여 수행이나 의례를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달리 사원이나 사찰이라고도 부른다. 우리 말인 ‘절’은 사찰에 가면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긴 말이라는 주장도 있다.

초기의 절은 굴의 모습이였다.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는 불상을 만드는 전통이 없었기에 따로 불상을 모실 사원을 지을 일이 없었다. 그러나 불교가 전파된 파키스탄에서 신의 상을 만드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문화가 만나면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불상을 모시기 위해 굴을 팠다. 그리고 그 안에 불상을 모셨다. 이른바 석굴사원이 그것이다.

이렇게 굴을 파서 불상을 모시는 문화가 신라까지 전해져 만들어진 것이 아름다운 불상으로 유명한 경주 석굴암이다. 석굴암은 불상을 모시는 사



굴을 파고 불상을 모신 경주 석굴암 본존불 (출처 문화재청)

찰, 즉 절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렇게 절은 원래 불상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절에 가보면 건물마다 모셔진 불상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 있다. 즉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를 모신 곳이고 미륵전은 미륵불, 명부전 또는 지장전은 죽음을 관장하는 지장보살을 모신 건물, 관음전은 관음보살을 모신 건물이기 때문에 이름만 보아도 그곳에 모셔진 것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절을 사원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한(漢)나라 때 외국에서 온 사신들을 접대하고 머물게 한 곳을 사(寺)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온 불교 승려들이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들을 홍로사라는 관청에 머물게 했고 그 이후 승려들이 머무는 곳을 〇〇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불교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을 거쳐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의 순도라는 승려가 한반도에 전래했다. 전래 초기에는 기득권을 지닌 귀족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고대 국가 체제의 정비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신라는 불교를 통해 국가이념의 토대를 닦았고 호국 사상의 고취를 통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고려는 불교문화를 한층 발전시켰고, 그를 통해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냈다. 고려가 청자를 비롯한 화려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불교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들어 보우나 무학과 같은 고승들이 있음에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파쟁이 심했고, 불교 사원이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면서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은 유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정하고 불교를 억압했다. 승려는 신분이 낮아졌고 절

은 버려졌다.

그러나 기층문화와 결합한 불교는 조선에 이어 일제강점기 때의 지독한 탄압도 이겨내고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양주지역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수도와 근접해 있는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불교 또한 빠르고 넓게 전해졌다. 오늘날 양주지역에는 석굴암, 백화암, 회암사 등 세 개의 전통사찰을 비롯해 많은 사찰이 존재한다. 먼저 양주지역의 전통 사찰부터 살펴본다.

2. 양주지역의 전통사찰

양주지역에는 많은 사찰이 있는데,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은 3곳으로 석굴암, 백화암, 회암사가 그곳이다.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사찰을 정해진 법에 따라 지정한 사찰이다. 양주지역 전통사찰의 숫자는 적지만 그 하나하나의 면모는 대단하다.

1) 양주 오봉산 석굴암

장흥면 오봉산(해발 683m) 자락에 있는 오봉산 석굴암은 양주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건립 연대는 신라 문무왕(626~681)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 절을 건립한 사람은 원효와 함께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이었던 의상대사이다. 그리고 고려 공민왕 때 왕사였던 나옹 화상이 3년 동안 수행 정진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오봉산 석굴암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전각이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오늘날의 석굴암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54년부터 초안 스님을 중심으로 중건한 이후의 일이다.



1. 양주 오봉산 석굴암 전경
2. 오봉산 석굴암 대웅전
3. 오봉산 석굴암 대웅전에 모신 삼존불
4. 석굴에 지은 오봉산 석굴암 나한전
5. 오봉산 석굴암 비로자나불
6. 오봉산 석굴암 종각과 범종
7. 오봉산 석굴암 범종 세부



오봉산 석굴암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우이령길 내에 있어서 신자가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하기 힘든데다가 높은 곳에 있어서 등산하듯 걸어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높은 곳에 자리한 까닭에 뛰어난 전망을 볼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아름다운 산사음악회도 개최해왔다. 이 산사음악회의 이름은 ‘오봉산 석굴암 단풍 음악제’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한편 오봉산 석굴암은 중부지방에서 제일가는 나한 신앙 도량으로 꼽히는데, 사람들의 소원을 빨리 성취해 주는 나한에 대한 신앙이 특히 발달한 사찰이다. 나한 신앙은 통일 신라부터 발달했으며 고려 때 크게 융성했던 것으로, 절에서 나한전이나 영산전, 응진전 등에 나한을 모셔둔 법당이다.

오봉산 석굴암이 영험한 도량임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석굴암은 산 높은 곳에 있어서 물이 귀했다. 물이라고는 석굴암의 석굴 안 왼쪽 바위틈에 있는 작은 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샘은 신기하게도 강수량과 상관없이 부정한 일이 생기면 말랐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 사찰을 중건할 때 우막을 짓고 백일기도를 하던 처사가 몰래 뱀 말린 것을 먹었는데 그 때문에 한동안 샘의 물이 말랐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부정한 것을 먹거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신도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물이 마른다고 한다.

2) 불곡산 백화암

두 번째로 살펴볼 전통사찰은 유양동 불곡산 자락에 있는 백화암이다. 백화암 역시 건립 연대가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백화암을 건립한 것은 신라 말기 최고의 고승으로 꼽히는 도선국사라로서 오봉산 석굴암과 유사한 성격이다.

백화암은 통일 신라 때인 898년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당시 이름을 불곡사라고 했다.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선조 25)에 불에 탔으나 1598년에 중건했다. 조선 초기의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불곡산 불곡사



1. 불곡산 백화암 대웅전
2. 불곡산 백화암 대웅전 법당 삼존불
3. 불곡산 백화암 마애삼존불

의 기록이 전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 한참 후인 1923년에 월하 화상이 사찰 전체를 새롭게 중건했으나 이 또한 한국전쟁으로 모두 불타고 말았다. 백화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956년 성봉 화상이 절을 새로 복원한 뒤의 일이며, 1968년에 중건하면서 요사채를 신축했고, 1985년에는 대웅전과 산신각을 중수하였다. 백화암은 절 입구에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고 절 바로 아래에 약수터와 우물이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1841년에 세운 양주 목사 서염순의 선정을 기리는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백화암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애삼존불상이다. 백화암 뒤쪽으로 난 길을 따로 올라가면 산 중턱에 규모가 큰 마애삼존불상이 나타난다. 이 마애삼존불상은 비교적 최근인 1997년에 조성된 것으로, 가운데 아미타불이 앉아 있고 양쪽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서 있는 형상이다.



3) 양주 회암사

회암사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전국 사찰의 총 본찰이자 왕실의 원찰이었다. 그러나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 조선의 이념에 따라 불교의 교세는 크게 기울었고 회암사 또한 방치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번창했던 회암사는 현재 회암사지라는 절터로 남아 있다. 그 절터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회암사라는 절이 나온다.

현재의 회암사는 19세기에 새롭게 지어졌는데, 그 계기는 엉뚱하게도 유학자의 만행이었다. 당시 회암사는 200여 년 이상 방치된 절터로 남아 있었는데, 1821년(순조 22) 경기도 광주(廣州)의 유학자 이용준이 회암사에 조상의 묘를 쓰면 가문이 번성할 것이라는 술사 조대진의 말을 듣고 절터에 있던 지공 화상의 비와 무학대사의 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묘를 쓰



1. 회암사지 위쪽에 새로 중창한 현재의 회암사 전경
2. 회암사 조사전
3. 회암사 조사전 내 목조여래좌상



1.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2. 경기도 유형문화재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3. 경기도 유형문화재 무학대사비
4.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국의 승려와 불교 신자들이 들고일어나 항의함으로써 이용준은 유배당했고, 경기도의 승려들이 1828년에 비석과 부도를 다시 세웠다. 그리고 옛 회암사를 수호하고 그 비석과 부도를 지키기 위해 조그만 암자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회암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용준이 묘를 쓴 것이 오히려 회암사가 다시 살아나는 데 도움을 준 셈이다.

1922년에 봉선사의 주지가 새롭게 보전을 지어 불상을 봉안하고 지공선사, 나옹선사, 무학대사 등 회암사 대표 인물들의 영정을 모셨다.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77년으로 서북쪽에 큰 법당을 지은 뒤였다. 회암사는 회암사지와 이어져 있는 탓에 비석과 부도 등 뛰어난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앞의 세 사찰은 현재 남양주시에 있는 조계종 소속 봉선사의 말사들이다. 남양주시가 최근까지 양주에 속했던 지역이었기에 봉선사 또한 양주

지역을 대표하던 전통사찰이었고, 그 때문에 현재 양주시의 세 전통사찰을 말사로 두게 된 것이다.

양주시 전통사찰

명칭	등록번호	건립 시기	주요 연혁	위치
회암사	전통사찰 제13호	1328년(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 때 창건 왕실의 원찰 여말 선초 최대 사찰 조선 중기 소실 1828년 무너진 탑비 복원 1977년 법당 건립 	양주시 회암사길 281(회암동 4)
백화암	전통사찰 제82호	898년(신라 효공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898년 도선국사 창건 임진왜란 때 소실 1598년 중건 한국전쟁 때 소실 1956년 복원 	양주시 부흥로 1325-194
석굴암	전통사찰 제97호	신라 문무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상대사가 창건 공민왕 때 나옹 화상 3년 동안 수행 한국전쟁 때 소실 1954년 초안 스님 중건 	양주시 장흥면 석굴암길 519

참고로 봉선사는 969년(고려 광종 20)에 법인 국사가 창건했으며, 당시에는 운악사라고 불렀다. 1469년(예종 1) 세조의 명복을 비는 절이 되면서 이름을 봉선사로 바꾸었다.

3. 양주의 불교 문화재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한 이후 오랜 세월 불교는 우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는 불교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양주지역에도 불교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양주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회암사지와 회암사에는 보물급인 무학대사탑 앞 쌍사

자 석등을 비롯해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다. 다만 회암사지와 회암사의 문화재는 다른 지면(회암사, 왕실이 사랑했던 사찰)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양주지역의 사찰 가운데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청련사이고 오봉산 석굴암과 육지장사도 여러 지정문화재를 품고 있다. 다만 오봉산 석굴암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청련사와 육지장사를 살펴보겠다.

1) 양주 청련사와 지정문화재

양주 청련사(이하 ‘청련사’)는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태고종 소속의 사찰이다. 청련사의 원래 이름은 안정사였다. 안정사는 827년(신라 흥덕왕 2)에 창건되었고, 1395년(태조 4)에 무학대사가 중건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가 조선의 도읍지를 정할 때 당시 안정사의 석벽 아래에서 7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도읍지를 알려주어 경복궁에 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무학대사는 무학봉 뒤에 큰물이 생기면 절이 크게 번창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조선 말기에 상수도 보급을 위한 대현산배수지가 생겼고 이후 안정사는 크게 번영했다고 전한다.

안정사는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중건을 거듭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절이 모두 불탔고 1965년에 복원했다. 이때까지 안정사의 위치는 무학대사가 기도하던 자리인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절의 토지가 매각되면서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의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이후 2010년에 태고종 종정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참여한 낙성 대법회를 개최했고 이때 이름도 안정사에서 청련사로 이름을 변경했다.

청련사는 그 기원이 천년이 넘는 탓에 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다. 11개의



양주 청련사 소장 경기도 유형문화재. 왼쪽은 관음보살 좌상 및 복장물이고, 오른쪽은 「아미타불회도」이다(출처 재단법인 청련사 극락원).

경기도 유형문화재를 비롯해 5개의 경기도 문화재자료가 절 안에 존재한다. 문화재는 대체로 불화와 불상이다.

양주 청련사 지정문화재 현황

명칭	문화재	내용
아미타불괘불도 및 복장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5호	불화 1점, 복장물 9점
석조지장보살좌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4호	1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36호	불상 3구, 복장물 7점
관음보살좌상 및 복장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37호	불상 1구, 복장물 1점
현왕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38호	1점
비로자나괘불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39호	1점
철성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0호	1점
지장시왕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1호	1점
감로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2호	1점
산신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3호	1점
독성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4호	1점
아미타불회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87호	1점
석조여래좌상 및 복장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94호	불상 1구, 복장물 5점
소조독성좌상 및 복장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95호	불상 1구, 복장물 7점
시왕도 및 사지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96호	4점



육지장사 입구의 지장보살(앞)과 대웅보전(뒤)

2) 육지장사와 지정문화재

육지장사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의 도리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육지장사는 비교적 최근인 199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에 대웅보전에 본존불, 석가모니불, 육지장보살의 점안식을 봉행하며 문을 열었다.

절 이름에 들어가 있는 지장(地藏)은 죽음을 관장하는 보살로, 명부전이나 지장전에 모셔져

있다. 특히 지장은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보살로 남았으며,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흔히 지장보살은 지옥, 아기, 축생, 수라, 하늘,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여섯 세상인 육도의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로 알려져 있고, 육지장사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실제로 육지장사에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육지장 6만 부처가 모셔져 있다.

육지장사에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9호로 지정된 예념미타도량참법이라는 문화재가 있다. 양주 육지장사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아미타불에게 지극한 마음을 갖고 여러 죄업을 참회하는 법회의 절차를 수록한 책자로 1474년 왕실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삼아 해인사에서 복각한 목판본 10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오봉산 석굴암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1호로 지정된 양주 석굴암 석조불좌상과 역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2호로 지정된 석조지장보살좌상,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2-1호로 지정된 석조나한상이 있다.

그리고 송암사에는 보물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05호 『육경합부』가 보관되어 있다.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는 1464년(세조 10)에 중국 당나라의 법장이 찬술한 반야심경약소와 송나



육지장사 진신사리탑(출처 육지장사 홈페이지)와 예념 미타도량참법(출처 문화재청)

라의 중희가 찬술한 현정기를 합쳐서 번역한 불경이다. 송암사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78호 『대혜보각선사서』도 전하고 있다. 『육경합부』는 조선 초기에 널리 읽혔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비롯한 여섯 권의 경전을 휴대하기 편리하게 하나로 묶은 책으로, 우리나라 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혜보각선사서』는 송의 승려였던 대혜종고(1088~1163)가 당대의 지식인과 관료 등에게 쓴 편지글을 모은 책이다.

양주지역 사찰의 문화재(청련사 제외)

명칭	문화재	소재지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보물	송암사
양주 송암사 육경합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05호	송암사
양주 석굴암 석조불좌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2호	석굴암
양주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2호	석굴암
양주 석굴암 석조나한상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2-1호	석굴암
예념미타도량참법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9호	육지장사
대혜보각선사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78호	송암사

양주지역 사찰의 문화재(청련사 제외, 출처 문화재청)
 ①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② 양주 송암사 육경합부, ③ 대혜보각선사서, ④ 양주 석굴암 석조불좌상, ⑤ 양주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⑥ 양주 석굴암 석조나한상



4. 양주의 사찰과 절터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디지털사전 형태로 정리한 디지털양주문화대전에 따르면 양주지역에는 현재 앞서 살펴본 전통사찰 3개를 포함해 46개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종단으로 분류하면 조계종을 비롯해 26개의 종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계종과 태고종이다. 특히 조계종은 사찰과 신자 수에서 월등히 앞선다. 앞의 전통사찰 3개를 포함해 육지장사, 광불사, 문수사, 무량사, 송암사, 도림사 등이 조계종에 속한 사찰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청련사를 비롯해 사리암, 등락사, 기원정사, 관음사 등이 태고종에 속해 있다.

이들 여러 사찰 가운데 창건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대표적인 사찰로는 조계종에 속한 송암사를 꼽을 수 있다. 송암사는 땅속에서 나온 불상 때문에 건립된 사찰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72년 장흥면 부곡리에 살고 있던 유만길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약사여래상을 발견했다. 약사여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약사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부처이다. 병이 나오면 근심이 사라지듯 약사여래는 번뇌를 없애주기도 하고 어리석음이라는 병을 고쳐주기도 한다. 그래서 약사여래는 약함이나 약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유만길은 약사여래를 모시기 위해 그곳에 토굴을 짓고 정성껏 모셨다. 약사여래가 토굴에서 벗어나 법당을 갖게 된 것은 유만길의 손자인 유길성에 의해서였다. 그는 1923년에 약사여래를 모실 약사전을 지어 봉안했고 이때 삼성각도 함께 건립했다. 그래서 송암사는 약사여래의 영험이 뛰어난 절로 소문이 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았다. 이후 1962년에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을 준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 양주지역의 사찰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것은 절터이다. 현재 양주지역에는 6개의 절터가 확인되고 있다. 양주를 대표하는 회암사지를 비롯해 선암리 절터, 어둔동 절터, 왜골 절터, 용암리 절터, 원각사지 등이 그곳이다. 이 가운데 회암사지는 다른 항목에서 다루었기에 자세한 설명은 줄인다.

은현면의 선암리 절터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법당 터는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 무너졌고 몇몇 토기 조각 등이 발견되었다. 주변에 여산 송씨의 집성촌과 묘역이 많았다는 점에서 여산 송씨의 문중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둔동 절터는 고려시대의 절터로 확인되었으나 창건과 폐사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고려와 조선의 석불과 유물들이 남아 있다.

유양동 불곡산에 있는 왜골 절터는 훼손이 심해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5층 석탑의 옥개석과 토기 조각 등이 조금 발견된 정도이다.

은현면 용암리 절터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농지 개간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고 파손된 석불좌상과 방형의 대좌만 남아 있다.

장흥면 울대리 원각사지는 한국전쟁 무렵에 건물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석축 기반부가 잘 보존된 채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절터가 있는 곳에서 사패산 정상 쪽에서 조금 아래에 법륜중에 속해 있는 원각사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과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종교의 세력이 과거와 달리 약해지고 있다. 이는 불교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종교가 지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일반 대중을 위한 오늘날의 불교는 삶에 지친 사람들의 심신 안정이나 죽음을 다루는 장례와 명복을 비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양주지역의 사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거나 납골당을 운영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템플스테이는 회암사를 비롯해 육지장사, 홍곡사 등이 운영하고 있고, 청련사는 극락원이라는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찰이 직간접적으로 수목장을 진행하고 있다.

4

신도비, 비문으로 만나는 역사와 인물

1. 죽은 인물의 삶을 기록한 비석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다. 죽음은 사람이 삶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고, 인류는 이를 받아들여 삶을 죽음에서 구별하기 위해 장례라는 의례를 만들었다. 즉 장례는 삶과 죽음이 섞이지 않게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늘날 장례는 대부분 화장(火葬)으로 진행되는데 과거에는 대체로 땅에 묻는 매장이 중심이었다. 매장의 경우에 그 몸을 묻은 곳을 흔히 무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무덤에도 구분이 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이라고 부르고, 왕족의 무덤이 확실하나 그 주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총(塚)이라고 부른다. 총의 경우 무덤에서 나온 대표적인 물건으로 무덤의 이름을 붙이는데, 금관이 나온 금관총, 천마의 그림이 발견된 천마총이 유명하다. 또 무덤의 주인을 알 수는 없으나 귀족의 것으로 추정될 때 분(墳)을

신도비(출처 문화재청). 왼쪽부터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보물, 이성계), 인평대군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포천), 평정공 윤호 신도비(경기도 문화재자료, 연천)



붙이고, 왕이 아니었으나 아들이 왕이면 원(園)을 붙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묘(墓) 또는 무덤이라고 부른다.

묘 앞에 세우는 신도비라는 말에서 신도(神道)는 죽어서 신이 된 사람의 길이라는 뜻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 무덤에 묻힌 사람의 살아온 길을 비석에 기록해 놓은 것이 신도비이다. 신도비는 대체로 무덤의 남동쪽에 남쪽을 향해 세운다. 남동쪽에 세우는 것은 신도가 그 방향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나 신도비를 세울 수는 없다. 뛰어난 공적을 지닌 사람만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다. 신도비를 처음 세운 것은 중국인데, 우리나라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나 고려 때부터로 추정되면 당시에는 3품 이상의 관직에 재직했던 인물만 신도비를 세웠던 듯하다.

그러나 조선에 들어서는 2품 이상의 관직에 올랐던 인물만 신도비를 세울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 또 조선 초기에는 태조 이성계(건원릉)나 세종대왕의 능(영릉)처럼 왕의 무덤 앞에도 신도비를 세웠으나 문종 때 왕릉에 신도비 세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공신이나 석학 등 뛰어난 인물의 경우 관직과 상관없이 왕의 명령으로 신도비를 세울 수 있게 했다.

신도비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신도비가 삶과 죽음이 만나는 지점임을 알게 된다. 즉, 신도비는 죽어야 세울 수 있는데 그 비석에 담기는 내용에는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담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도비는 죽음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신도비는 말 그대로 비석이기 때문에 내용을 담을 공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서전을 쓰듯이 한 인물의 삶에서 일어난 세세한 사건까지 다룰 수는 없다. 한 인물의 삶을 압축적이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야 했기에 문장이 뛰어난 신도비가 많다.

또 비석의 소재가 돌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돌은 오래가는 십장생의 하나로 한번 새기면 긴 세월을 버틸 수 있다. 따라서 한 인물의 삶을 반영구적인 돌에 새겨 그의 삶과 죽음을 오랫동안 기린다는 점이 그러하다.

신도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묘의 남동쪽에 세운다. 따라서 신도비는 묘와 함께 조성된다. 이렇게 묘와 신도비, 묘표, 동자석 등이 함께 조성된 곳을 묘역이라고 부른다.

양주지역은 많은 인물을 배출했고, 그 때문에 훌륭한 인물의 묘역도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도비도 많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비문으로 보는 양주의 역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에는 41개의 신도비가 존재한다.¹⁾ 여기서는 그 모든 신도비를 다룰 수는 없기에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비문으로 보는 양주의 역사』에 따르면 양주지역에 산재한 신도비는 39개인데, 이 자료에서 빠진 송석 최명창 묘역에 있는 신도비와 정민시 선생 묘에 있는 신도비를 더하여 41개이다.

양주지역 신도비 현황(가나다순)

인물(생몰년)	소재지	인물(생몰년)	소재지
권대항(1610~1666)	덕정동 산40	이교약(1653~1728)	은현면 도하리
권부(1475~1547)	회천2동(덕계동)	이성구(1584~1644)	장흥면 삼하리 산90-1
권율(1537~1599)	장흥면 석현리 산168-1	이수광(1563~1628)	장흥면 삼하리 산90-1
권철(1503~1578)	장흥면 석현리 산168-1	이택(1509~1576)	남면 신산리
김극립(1472~1531)	마전동 산68	이희겸(1516~1579)	장흥면 삼하리 산90-1
남양부부인 홍씨(1410~1456)	은현면 용암리	임권(1486~1557)	울정동
남을진(1331~1393)	은현면 봉암리 24	임유겸(1456~1527)	울정동
박건(1434~1509)	장흥면 일영리 산73	임추(1482~1534)	울정동 273
박노(1584~1643)	회정동 산44-3	임호신(1506~1556)	울정동 237
박율(1520~1569)	회정동	정민시(1745~1800)	산북동 산92
박이서(1561~1621)	회정동	정엽(1563~1625)	장흥면 일영리
백인걸(1497~1579)	광적면 효촌리 산26	조상경(1681~1746)	광사동
성희안(1462~1513)	장흥면 일영리 산65-1	조흡(1591~1661)	광사동 산102-1
송인(1516~1584)	은현면 선암리 산15-1	최명창(1466~1536)	덕계동 산64
송질(1454~1520)	은현면 선암리 산15-1	한세환(1470~1522)	장흥면 삼상리
신공제(1469~1536)	장흥면 부곡리	한숙(1494~1560)	광적면 비암리 산8-3
오혁(1709~1769)	장흥면 석현리	홍계적(1680~1722)	남면 상수리 산62-1
윤수열(1602~1666)	봉양동	홍서봉(1572~1645)	남면 상수리 산55-1
윤지운(1416~1478)	백석읍 홍죽리 산27	홍숙(1464~1538)	장흥면 울대리 산55-2
윤택(1630~1726)	봉양동	홍처후(1599~1673)	남면 입암리 산3

2.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양주의 신도비

양주지역의 묘역 가운데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모두 5곳이며, 신도비가 남아 있는 곳은 4곳이다.²⁾ 행주대첩을 이끈 조선의 장수 권율, 조선 중기의 유학자 백인걸, 한국 백과사전의 효시라고 평가되는 『지봉유설』의 저자 조선의 문신 이수광, 조선 중기의 학자로 청백리로 알려진 송석 최명창 묘역이 그곳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양주의 묘역과 신도비

이름	위치	현황
권율 장군 묘	장흥면 석현리 산168-1번지	경기도 기념물 제2호
백인걸 선생 묘	광적면 효촌리 산26	경기도 기념물 제58호
이수광 선생 묘	장흥면 삼하리 산90-1	경기도 기념물 제49호
송석 최명창 묘역	덕계동 산64번지	경기도 기념물 제178호

1) 권율 장군 신도비

권율 장군 신도비는 높이 186cm, 가로 81.5cm, 두께 39.5cm의 크기를 갖고 있다. 신도비 첫머리에는 “조선국팔도도원수 증영의정영가부원군시충장권공신도비명(朝鮮國八道都元帥 贈領議政永嘉府院君諡忠莊權公神道碑銘)”이라고 적혀 있다. 권율 장군 신도비의 글을 지은 사람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영의정까지 올랐던 신흙(1566~1628)이다.

권율 장군 신도비에는 고려 태조로부터 권씨 성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집안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임진왜란 때 광주 목사가 되어 전장

2) 신도비가 없는 곳은 경기도 기념물 제120호로 지정된 이준 선생 묘이다. 대신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1호로 지정된 '전성부원군 이준 선생 영정' 이 보관되어 있다.



권율 장군 묘역과 신도비 비각

에 나가서 싸우게 된 내용과 전란 내의 여러 공을 세운 내용이 따라 나온다. 특히 행주대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도비에 따르면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이 끝난 해인 1598년에 병 때문에 사직을 원했으나 왕(선조)의 만류로 조정에 남아 계속 전쟁에 임했고, 이듬해인 1599년 여름에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그해 7월 6일 병을 이기지 못하고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음을 알리고 있다. 그 이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조 임금은 몹시 슬퍼하시며 조호를 거두고 부봉을 내렸다. 그리고 따로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공에게는 찬성을 추증하였다. 7월에 양주 홍복산 양지바른 곳에 하관하니 이곳은 선영이 있는 곳이다.

권율 장군 신도비에는 이렇게 권율 장군의 사망을 알린 다음에 부인과 자식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권율 장군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가 실려 있다. 그리고 시가 한 수 기록되어 있다. 행주대첩을 알리는 인상적인 한 구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팔도가 다시 불타 재가 되었는데 행주에서 크게 무찔러 근심을 없애니
사직에 아름답게 빛나도다.

이곳저곳에서 뛰어나게 적을 무찌르신 공은 우리들이 감히 넘을 수가 없도다.

권율 장군의 신도비에는 신흙의 글 외에 덧붙여 쓴 글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조선 후기의 학자로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1683년 봄에
권율 장군을 칭송하는 글을 덧붙였고, 1861년 여름에는 그의 10대 외손인
이유원이 직계 후손을 소개하는 글을 덧붙여 놓았다.

2) 백인걸신도비

백인걸신도비는 높이 245cm, 가로 90cm, 두께 26cm의 규모이다. 신도비
첫머리에는 “유명조선국 자헌대부 의정부 우참찬겸동지경연사 증승정대
부 의정부 좌찬성 겸판의금부사 지경연사 시충숙 휴암백공신도비명” 이 적
혀 있는데 그가 역임했던 관직고 시호를 길게 나열한 것이다.

백인걸신도비의 글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썼
다. 송시열은 신도비에서 백인걸의 삶과 관직의 경력을 소개하고 인종의
외삼촌 윤임을 둘러싼 사건으로 파직하고 유배 가야 했던 내용을 실었다.
이어 유배에서 풀려난 후 양주 목사를 역임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뒤
따라 나온다.

양주 목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없애니
백성들이 비를 세워 칭송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1579년 9월 29일에 서울에서 향년 83세의
나으로 세상을 떠났고, 선조가 백인걸이 병에 걸렸을 때부터 장사를 지낼



백인걸 선생 묘역과 신도비



때까지 어의를 보내
문병했다는 것과 부
의를 보내 제사를 지
내는 것에 은혜를 배
풀었다는 내용이 나
온다. 또 선조가 백인
걸의 죽음에 대해 남
긴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려있다. 여기서 현

재는 현명한 재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賢宰)가 죽으니 지극히 놀랍고 슬프구나.

그리고 그해 겨울에 양주의 석적리에 장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실려 있
다. 백인걸신도비에는 이 외에도 조선의 개혁자였던 조광조의 인연, 성
품과 그에 얽힌 고사, 출생 및 부모와 자식 등 가족에 관한 내용도 상세하
게 소개되어 있다. 송시열은 마지막에 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백인걸을 칭
송하였다.

늙은 시절 장한 마음 그 절조를 누가 꺾겠는가.

뒤틀린 것을 즐기는 자들이여, 나의 편을 막지 마라.

..... (중략)

산과 같이 우러러보니 강한(江漢) 같고 추양(秋陽) 같네.

그 향기를 찾아내어 그 여광을 빛냈으니



이수광 묘역과 신도비 비각

2) 이수광신도비

이수광은 그의 호 지봉을 딴 『지봉유설』의 저자로 유명한 학자이다. 이수광의 신도비는 높이 245cm, 가로 112.5cm, 두께 32cm의 크기를 갖고 있다. 첫머리의 제목은 “유명조선국 중대왕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령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행정헌대부 이조판서 겸지경연춘추관사 동시정균관사 홍문관제학 증시문간이공신도비명”으로 매우 길다. 그만큼 여러 관직을 거쳤다는 뜻이다.

이수광신도비는 다른 신도비와 달리 1628년 이수광이 풍증으로 쓰러졌다가 12월 26일에 세상을 떠난 것부터 시작한다. 왕은 이수광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조회를 열지 않고 조의와 부의를 했으며, 다음 해 2월 양주 서산에 있는 선산에 장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시호를 문간(文簡)으로 정하고 영의정에 추증했다. 여기서 문간은 배움에 부지런하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고 하고, 한결같이 덕을 베푸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신도비는 이수광의 죽음을 알린 다음에 그의 가계를 소개하고 어

머니와 어릴 때의 고사를 알리고 있다. 어릴 때 이수광이 지은 시도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당에는 달이 있는데 소나무에 그림자가 없구나.

난간밖에는 바람이 불지 않으나 대나무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신도비에 따르면 이수광은 16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했고, 과거시험에서는 율곡 이이가 그의 답안을 보고 경탄하며 그를 장원으로 뽑았다고 전한다. 또 이수광은 임진왜란을 겪었고, 전란 이후에는 『고문주역』, 『주역언해』 등의 책을 교정했으며, 여러 차례 벼슬길에 나갔다가 물러나기를 되풀이했다. 그리고 10여 년을 은거하면서 많은 글을 남겼다. 이수광이 남긴 시문은 모두 32권으로 이 가운데 『지봉유설』이 2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수광신도비의 글은 조선의 뛰어난 문장가였던 이정구(1564~1635)가 썼는데, 이수광의 두 아들이 아버지와 오래 교류하면서 문장이 뛰어난 것이 선생님뿐이라며 자기에게 행장을 부탁했다며 신도비의 글을 쓴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신도비의 마지막에 나오는 시구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는 맑고 아득하며 성품의 바탕은 아름답다.

공은 성품에 온전함을 품었으니 순수하여 때가 지지 않았다.

그 바탕을 길러서 편안하게 하였고 그 화평함을 쌓았으니

그것은 봄의 온화함과 같으며 옥의 곧고 바름과 같았다. …… (후략)

3) 최명창신도비

최명창의 신도비는 최명창 묘역 계단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신도비

는 사각형 대석 위에 비신을 세우고 팔각지붕형 옥개석(지붕돌)을 끼워 올린 모양이다. 신도비의 글은 예조판서를 역임했던 조선 중기의 학자 김안국이 쓴 것이다. 첫머리의 제목은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겸동지경연사 오위도총부부총관 최공신도비명”인데 몇 글자가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다. 신도비를 세운 것은 1537년이다.



송석 최명창 묘역과 신도비



남을진 선생 묘역과 신도비



1) 남을진신도비

남을진신도비는 높이가 151cm, 가로 70.5cm, 두께 16cm의 크기를 갖고 있다. 첫머리의 제목은 “고려 정헌대부 참지문하부사 겸전의감사 의령남공

신도비명”이다. 신도비의 글을 쓴 것은 조선 현종 때의 문신인 조인영(趙寅永)이며 1841년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남을진신도비에는 남을진이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왕을 섬길 수 없다며 새롭게 건국한 조선에 출사하지 않은 그의 성품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남을진의 가계를 소개하고 삶과 관직 생활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조선이 건국했을 때 남을진이 고향 사천현(경남 함양) 봉황산으로 귀향한 내용이다.

나는 차마 망국의 대부가 될 수 없으므로 장차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서 농사나 지으리라.

이 말은 남을진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했던 말로 신도비에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의 조정에서 남을진을 사천백으로 봉하자 그는 ‘자기가 깊은 곳에 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며 양주 감악산의 석굴에 들어간 다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세상을 등졌다는 내용’, ‘세상을 떠난 뒤 사흘 동안 흰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다는 내용’, ‘그 굴을 남선굴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 뒤를 잇는다. 신도비의 마지막에 있는 시에 그 모습을 담은 구절이 있다.

3. 양주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신도비

양주시에서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묘와 신도비는 남을진, 송질, 윤자운, 정민시, 홍서봉 등 5기이다.

양주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묘역과 신도비

이름	위치	현황
남을진 선생 묘 및 신도비	은현면 봉암리 산50-2	양주시 향토유적 제2호
송질 선생 묘 및 신도비	은현면 선암리 산15-23	양주시 향토유적 제8호
윤자운 선생 묘 및 신도비	백석읍 흥죽리 산27	양주시 향토유적 제9호
정민시 선생 묘 및 신도비	산북동 산92	양주시 향토유적 제3호
홍서봉 신도비 및 묘역	남면 상수리 산55-1	양주시 향토유적 제17호



송질 선생 묘역과 신도비 비각

저 높은 감악산 석굴 속에 어떤 이 있어 홀로 머리를 풀었는고
 아아, 나라가 망하려 하니 홀로 벼슬을 버리고 여기에 왔네.
 그의 성품은 결백하여 이곳에서 세상을 마치셨도다.

2) 송질신도비

은현면 선암리에 있는 송질신도비는 높이 190.5cm, 가로 105, 두께cm, 26cm의 크기를 갖고 있다. 송질은 20대 초반에 상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해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대간으로부터 탐오하다는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송질신도비의 내용은 그의 죽음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즉 1520년 정월 송질이 세상을 떠나자 왕이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고, 3월에 양주 북쪽 소라산 뒤 동남향의 언덕에 묘소를 정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어 송질 집안의 가계, 삶, 관직 생활이 포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한 다음 부인과 자식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의 삶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이 좋은 시대에 부름을 받아 일찍이 시로 이름을 떨쳤고



윤자운 선생 묘역과 신도비

우리 임금이 도와 큰 운이 두 번이나 번성하였다.
 손으로 전형을 잡고 몸은 조정에 올라
 경계를 쓸고 닦아 넓게 포부를 들어냈으며
 시고 단 것을 술에서 조절하고 혼잡한 것은 칼날로 잘 요리하였도다. …… (후략)

3) 윤자운신도비

윤자운신도비는 높이 271cm, 가로 92cm, 두께 21cm의 크기를 갖고 있으며, 비문은 심하게 마모된 상태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여러 문헌에 비문의 내용이 남아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윤자운 신도비의 글을 쓴 것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세종부터 성종까지 6명의 왕을 섬긴 것으로 유명한 서거정(1420~1488)이다.

윤자운은 1438년에 진사가 되었으며, 여러 요직을 거친 후 영의정까지 역임했다. 윤자운은 탄핵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단아하고 치밀하다는 평가와 편협하고 재능이 없었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다.

윤자운의 신도비의 글도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내용에 따르면 1478년 5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8월에 양주 서촌 내죽리에 있는 선영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후 서거정이 과거 시험에 동시 합격한 인연에

기대 글을 쓰게 되었다는 이유를 밝히고, 윤자운의 가계부터 그의 삶과 관직 생활, 가족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서거정은 시를 통해 윤자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울창한 소나무여! 깊고도 길게 뿌리를 내렸도다.
 밤나무, 오동나무여! 스며 있는 덕에서 향기가 나도다.
 윤기가 흐르는 예문이어! 혁혁히 광채를 발하는구나.
 위풍당당한 문헌이어! 장건한 용모로다. …… (후략)

4) 정민시신도비

정민시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1773년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다음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정조를 보살폈으며 그 인연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 때문에 정민시의 묘 아래에는 정조가 하사한 「정와정공민시지장(靜窩鄭公民始之藏)」 비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정민시의 묘역은 정조와 관련된 역사적 명소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민시의 묘와 신도비는 온양 정씨 묘역의 왼쪽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5) 홍서봉신도비

홍서봉 신도비는 높이 225cm, 가로 92.5cm, 두께 37cm의 크기를 갖고 있다. 홍서봉의 신도비를 쓴 것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대사헌, 대제학을 역임했던 이재이다.

홍서봉신도비 글은 남양 홍씨의 가계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어 홍서봉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데, “찬란한 봉황이 구름 위를 나는” 점괘를 얻었다는 내용에 이어 6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해 1590년에 사마시에 합격



홍서봉 선생 묘역과 신도비 비각

했고 1594년에 별시에 급제해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정승에 이르기까지의 삶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5

정려문, 양주의 충신·효자·열녀

1. 정려와 정문

인류는 모여 살게 되면서 집단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사상과 장치를 고안해냈다. 이런 사상과 장치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흔히 충효(忠孝)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한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충이 필요하고, 그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것이 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충과 효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하고 번영과 발전을 유도한다. 따라서 예부터 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 충과 효를 강조하고 실제로 충신과 효자를 널리 소개하고 기려서 많은 사람이 충과 효의 세계에 동참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려(旌闈)이다. 정려는 국가에서 충효라는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효자와 충신, 열녀 등이 살았던 마을에 붉은 칠을 한 문이나 비석을 세워 기리는 풍습을 가리킨다. 또 이렇게 세워진 문

이 정문 또는 정려문이라고 부르고, 비석은 정려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정문 또는 정려문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위해 만든 문이 아니라 충효열을 기념하기 위한 문이다. 정려문과 정려비는 이런 사정 때문에 예부터 세워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고려를 거쳐 충효를 기본으로 하는 유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에 이르면 전국 곳곳에 수많은 정려문과 정려비가 세워졌다.

신라의 정려는 삼국의 역사를 다룬 『삼국사기』와 삼국의 문화와 전승을 주로 다룬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삼국사기』 열전에 효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덕(向德)은 웅천주(熊川州)의 판적향(板積鄉) 사람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선(善)이고 자는 반길(潘吉)이었는데, 천성이 온화하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칭송하였다. 어머니는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삼국사기』 권 48 열전 제8,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향덕을 기리는 정려비가 현재 충남 공주시 소학리에 남아 있다. 이 정려비는 충청도 관찰사 조영국이 1741년(영조 17)에 세운 것이다. 또 『삼국사기』 열전에는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했던 지은에게 조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리고 요역을 면제했으며, 그가 살던 마을을 효양방이라고 부르도록 했다는 내용도 전해진다. 이런 사정은 고려에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고려사』 등의 역사서에는 여러 왕이 명령을 내려 효자와 열녀 등을 찾아내고, 그들이 사는 마을 입구에 정려문이나 정려비를 세워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리게 했다.

충효를 토대로 한 유학을 선택한 조선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정려 정책을 펼치고 활용했다. 조선을 세운 태조가 건국 첫해에 정려 정책

의 방침을 밝혔을 정도였다. 그래서 대대로 왕이 즉위할 때마다 각 지역의 충신·효자·열녀 등을 보고하게 했고, 선정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문이나 비를 세워 기렸으며, 오늘날의 세금에 해당하는 요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또 일부는 상으로 재물을 내리기도 했다.

오늘날 법전에 해당하는 조선의 『경국대전』 권3 예전(禮典) 장권조(褒勸條)에는 효자와 열녀, 나라를 위해 죽은 자의 자손 등을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해서 상을 주거나 정문을 세워 주고,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고 충과 효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또 상을 받거나 정려의 대상이 되면 집안의 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신분 상승도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정려문이나 정려비와 같은 유적은 집안이나 마을의 보살핌을 받아 지금까지 잘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양주지역에도 정문과 정려각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많이 전해지고 있다.

2. 최제·최혁 효자 정문

양주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래서 유명한 정려문은 광적면 우고리(가재울마을) 232에 있는 최제·최혁 효자 정문이다. 최제와 최혁은 조손, 즉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이다. 이 정문은 최제와 최혁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문으로, 1986년에 양주시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최제(1659~1723)는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던 어른보다 먼저 하지 않았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죽을 먹으며 애도하는 것이 어른 못지않았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를 대신한 계모를 40년 동안 생모를 모시듯 지극하게 섬



가재울마을 입구의 최제·최혁 효자 정문 안내 표석



양주시 향토유적 제7호 최제·최혁 효자 정문 전경

기고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다. 또 아버지가 객지에서 전염병에 걸렸을 때 구걸을 해서 아버지의 약 시중을 들었고 정성을 다해 구완해서 건강을 되찾게 했다. 이런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유림들이 관청에 알렸기 때문이었다. 1715년(숙종 41)에 유림 대표 100여 명이 양주 본영에 최제의

효행에 대해 고했고, 이 내용은 경기도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전해졌다. 그해 겨울 포상과 함께 조봉대부 동몽교관에 추증되었다. 그리고 1854년(철종 5) 11월에 정려문을 세우라는 예조의 지시가 내려와 다음 해에 현재의 자리에 정문이 건립되었다.



최제 효자 정문

최제의 손자인 최혁(1778~1838) 또한 뛰어난 효자로서 어릴 때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이 지극했다고 전한다. 한번은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기 위해 대변을 맛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병이 깊다는 것을 알고 울었다고 한다. 물론 최혁은 울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세 번이나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어머니의 입에 피를 흘려 넣었고 결국 어머니를 살려냈다. 그래서 최혁은 출천대효(出天大孝), 즉 하늘이 낸 큰 효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내용 또한 1869년(고종 6) 양주의 유림 200여 명이 조정에 알렸다. 조정에서는 그해 겨울 효자 정문을 내리고 가석대부효조참판 겸 도지익금부사를 추증했다.



최혁 효자 정문

한편 최제와 최혁이라는 조손 관계에서 궁금한 것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있을 아버지의 역할이다. 실제로 효자 정문의 명칭에서는 빠져 있으나 최제의 아들이자 최혁의 아버지인 최규석 또한 훌륭한 효자였다.

그 또한 할머니와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 생명을 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이치다. 최규석은 1891년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



최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충주 최씨 종가

았고 가선대부에 올랐으며 1893년에는 동지돈녕부사에 제수되었다.

이런 내력을 지닌 광적면 우고리 가재울마을 최제·최혁 효자 정문은 정면 2칸(5.15m), 측면 1칸(2.35m) 규모의 맞배지붕에 방풍판이 달린 건물이다. 1986년 말 기와를 비롯해 건물의 낡은 부분을 새롭게 보수하였다. 정문 뒤쪽에 한옥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종갓집으로 여전히 최제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3. 청주 한씨 문중 정려각, 창정각

창정각(彰旌閣)은 장흥면 삼상리 산60-1에 있는 조선 후기에 건립한 청주 한씨 문중의 정려각이다. 대부분 정려비나 정문이 한두 명의 인물을 기리는 것과 달리 창정각은 여러 명의 충신, 효자, 열녀를 한 곳에 모아놓고 기리는 장소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창정각에는 청주 한씨 가문에 속한 충신 2명, 효자 5명, 열녀 3명 등 10명을 기리고 있다. 이렇게 청주 한



청주한씨 정려각 창정각과 현판

씨 집안에서 충신과 효자, 열녀 등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기리게 된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에 양반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통해 꾸준히 문중에서 관리를 배출하는 방법과 국가가 백성에게 권유하는 충효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 도덕의 실행을 통해 이름을 알리는 방식이 있었다.

창정각은 집안의 조상을 기린다는 본래의 성격에 더해서 앞에서 제시한 두 번째 방법, 즉 양반 가문의 유지를 위해 대대로 국가와 유학이 원하는 윤리를 온전하게 실행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창정각은 두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를 가진 창정각이라는 현판이 달린 정려각이고, 그 옆에 질경공묘라는 현판이 달린 한치형의 사당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창정각에서 기리는 10명의 면면은 표와 같다.

창정각에서 기리는 충신·효자·열녀

이름	내용	선정 시기	이름	내용	선정 시기
한겸	충신	1604(선조 37)	한익리	효자	1885(고종 22)
한순	충신	1669(현종 10)	한덕리	효자	1904(고종 41)
한치형	효자	세종·예종·성종	창 신씨(한정 처)	열녀	1638(인조 16)
한도제	효자	1608(선조 41)	상주 황씨(한후 처)	열녀	1638(인조 16)
한용운	효자	1800(순조 1)	개성 고씨(한경수 처)	열녀	1809(순조 9)



질경공 한치형 사당과 현판

창정각의 인물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창정각 옆에 사당이 있는 질경공 한치형(1434~1502)이다. 한치형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네 명의 왕을 섬겼으며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불리는 영의정까지 역임했다.

한치형은 강직한 인물로 이름이 높다. 조정에서 한치형의 외손자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하자 “늙은이 때문에 어리석은 아이에게 벼슬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반대했고, 연산군이 폭정을 저지르자 검소와 절제를 아뢰었다가 화를 입었다.

한편, 어느 날 한치형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검은 옷 입은 사람 수십 명이 어깨에 채색 수레를 메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한치형이 그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한치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4. 양주의 충신과 정려

양주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충신은 단연 행주치마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일궈낸 권율(1537~1599)이다.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 때 전주에서 1만여 명의 군사를 지휘하였으며, 오산 독산



권율 장군 묘역 전경



권율 장군 묘 봉분 및 석물과 묘비



권율 장군 신도비 비각(왼쪽)과 승전비(오른쪽)



여영원 정려각과 기념비

성에 진을 치고 왜군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1593년(선조 26) 행주산성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왜군을 물리쳤다. 권율의 묘소는 장흥면 석현리 산168-1에 자리하고 있다.

권율 장군이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운 충신이라면 권절(1422~1494)은 충절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권절은 평소 수양대군(훗날의 세조)과 친분이 있어서 계유정난

에 참여할 것이 제의받았으나 귀가 먹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세조가 여러 차례 관직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권절의 행위는 단종에 대한 충절에서 나온 것으로서, 단종이 복위된 이후 생육신의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1703년(숙종 29) 10월 권절에게 정문이 내려졌는데, 광적면 우고리 450에 자리하고 있다.

여영원(1595~1627)도 정문을 받은 충신이다. 그는 1627년(인조 5) 후금(훗날의 청)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이 발생했을 때 압록강의 요충지인 벽동의 수비 책임을 맡은 장수였다. 여영원은 후금과 맞서 싸웠으나 정세가 불리해지자 “적을 다 베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럽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유로 여영원은 1796년(정조 20)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정문이 내려졌다. 여영원의 정문은 봉양동 산881번지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불에 타서 사라졌다. 현재 그 자리는 군사 기지로 바뀌었지만 1992년에 정려는 복원되었다. 여영원의 정문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정려각 안에 있으며, 정려각 옆에 기념비가 있다.

홍명형(1581~1636)은 1612년(광해군 4) 문과에 장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선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그는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하였는데, 청군에게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에서 김상용이 화약에 불을 지르고 자결할 때 함께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때 부인 창녕 성씨도 함께 순절했다.

훗날 홍명형은 이조 판서로 추증되었고 강화도의 충렬사에 배향되었으며, 17세기에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충신 정문이 내려졌다. 홍명형 정려문은 전란 때 의기를 보여 준 관리에 대한 포상을 통해 병자호란 이후 뒤숭숭한 사회의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정려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현판만 남아 있던 것을 후손들이 묘소 앞에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5. 양주의 효자와 정문

충신이 되고 정문을 하사받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은 애써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란이 닥치는 등 나라에 변고가 생길 때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행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언제든 가능한 일이고, 또한 관리가 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양주지역에는 정려를 받은 효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현재 정문이 남아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먼저 주목할 인물은 남궁 지와 남궁 조 부자이다. 남궁 지는 조선 후기 당시 양주지역에 속했던 오늘날의 도봉지역에 살았다. 그의 살림은 가난했지만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할 정도로 부모를 극진하게 모셨다.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었고 대변을 맛보며 병세를 살폈다.

한번은 어머니가 쇠약해지자 고기를 드리기 위해 꿩고기를 구하려 애를



남궁 지, 남궁 조 부자의 정려 쌍정문



쌍정문과 함열 남궁씨 재실 전경



효자 남궁 지 정문(좌)
효자 남궁 조 정문(우)

졌으나 끝내 구하지 못했다. 남궁 지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다가 평이 길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가져다가 요리해서 어머니에게 대접하였고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덤 옆에 움집을 짓고 3년 동안 시묘를 했는데, 곡소리가 매일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부모가 계신 것처럼 아랫목에 앉지 않고 부모가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을 삼갔다고 한다.

남궁 지의 아들 남궁 조 또한 어릴 때부터 효행을 실천했다.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하늘에 어머니 대신에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기원했으며 손가락을 끊어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피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했다고 전한다.

훗날 양주에 살던 진사 이회종 등이 남궁 지와 남궁 조 부자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정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1893년(고종 30)에 고종이 남궁 지에게 조봉대부 동몽교관을 증직하고 정려를 하사하였다. 아울러 정려각을 지을 때 목재와 목수를 지원하였고, 그의 자손에게는 각종 세금과 잡역을 면해주라는 명도 함께 내렸다,

이들의 무덤과 정문은 양주지역이었던 현 도봉구 쌍문동에 있었으나 1967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817-1의 도락산에 있는 문중 묘역으로 묘를 옮겼다. 그리고 1995년에 정문도 복원하여 문중 묘역에 있는 도락재 재실 옆에 세웠다. 한편 도봉구 쌍문동의 쌍문(雙門)이라는 이름이 남궁 지와 남궁 조 부자, 즉 두 명이 정문을 받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박준은 1604년(선조 37) 삭주 부사를 지낸 아버지 박희성이 풍을 맞고 쓰러졌을 때 당시 어의였던 허준을 모시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박준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그의 정성과 효성에 감동한 허준이 약을 지어 주었다. 이후 다시 병이 재발하자 이번에는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여 병을 낫게 하였다.

박준은 임진왜란 때 학질을 앓는 계모 민씨를 업고 피난을 갔는데, 이 과

정에서 처자를 돌보지 못하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정과 효행이 알려져 1604년에 헌릉 참봉에 제수되었다. 6년 후 1610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3년 동안 시묘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나서 묘까지 태우려고 하자 몸을 던져 불을 끄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러자 바람이 바뀌었고 불길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한편 유림의 추천을 받은 조정에서는 박준에게 정문을 내리고 무안 현감을 제수했다. 현재 정문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효행이 적혀 있는 팔각비만 남면 신암리 감악산 백정봉에 묘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양주시 회암동에는 임일기의 정문이 있다. 그는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약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무렵 이웃집에서 난 불이 그의 집으로 옮겨 붙는 상황이었다. 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안으로 뛰어 들었다. 거센 불길에 이마가 불에 타고 열기와 연기 때문에 위험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반대로 불고 비까지 내리서 모두 무사했다. 주변에서는 그의 효성에 하늘이 감복해 비가 내린 것이라고 칭송했다.

임일기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한번은 어머니에게 올릴 음식이 없어서 곤란해 하고 있는데 평이 스스로 날아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고 물고기가 튀어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6. 기록에만 남은 효자 이야기

한편 효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정문이 내려졌다는 기록은 남아 있으나 정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효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진다. 여기서 그 모두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인상적인 몇몇 사례를 보겠다.

김성오는 가난했으나 부모를 모시는 일에는 부자에 뒤지지 않았다고 한

다. 겨울에 부모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면 얼음을 깨서 물고기를 잡아 밥상에 올렸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3년간 매일 정성을 다해 시묘한 것이 알려져 정문이 내려졌다고 한다.

김진태 역시 가난했으나 부모를 정성껏 모셨다. 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옆에서 지극하게 간호를 했으며 대변을 맛보며 병세를 진단했다. 또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먹이며 노력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예를 다해 장례를 치르고 3년 동안 정성껏 시묘를 했다. 시묘가 얼마나 지극했는지 주변에 풀이 자라지 못할 정도였다. 한때 폭우로 마을 전체가 화를 당한 적이 있는데 김진태의 집만은 무사해서 사람들이 지극한 효성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1887년(고종 24)에 정문이 내려졌다.

서명재는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했다. 겨울이면 얼음 구덩이를 깨고 물고기를 잡아 밥상에 올렸다. 한번은 의원이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의 등창이 심했는데, 그가 한 달 동안 입으로 빨아내 독을 제거해서 낫게 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60세가 넘은 고령에도 예를 다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져 포상과 정문이 내려졌다.

이복운은 가족들이 전염병에 걸리자 아버지를 등에 업고 피했다. 그러나 결국 병에 걸렸다. 그는 약을 달여 올릴 때 먼저 맛을 보아 올렸고,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을 향해 자기가 먼저 죽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이어 어머니마저 감염이 되자 한 베개를 쓰며 시중을 들었다. 이 사실이 전해져 정문이 내려졌다.

이현석은 열 살 때 어머니가 등창이 심해 그 어떤 약도 효과가 없자 사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 낫게 했다. 스무 살에는 어머니의 병에 계황을 써야 한다는 의사의 처방에 어렵게 약재를 구해 치료했다. 훗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애통해했는데 눈물이 모자라 피까지 흘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문을 내렸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람들 외에도 역사가 오래된 양주지역에는 기록에 남지 않은 수많은 충신, 효자, 열녀가 있었을 것이다. 충효열 이야기는 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그것은 어찌면 오늘날 충신, 효자, 열녀를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에 양주지역의 충신, 효자, 열녀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해진다.

6

암각문, 바위에 새겨진 글자로 읽는 옛 선비의 모습

1. 바위에 새긴 글, 암각문

암각문(岩刻文)은 말 그대로 바위나 큰 돌 등에 새겨놓은 글을 가리킨다. 암각문의 기원은 멀리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에 그림을 그렸다. 달리 바위그림이라고 부르는 암각화는 바위나 동굴 벽에 동물이나 상징적인 문양을 그린 것을 가리킨다.

암각화는 구석기시대의 것도 있으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 많이 발견된다. 스페인에서 발견된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프랑스에서 소년들이 발견한 라스코 동굴벽화가 유명하다. 한반도에서도 암각화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대표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

적인 것으로는 고래 그림으로 유명한 울산 반구대의 암각화가 유명하다.

암각문은 바위 등에 그림을 그리던 전통에서 그림 대신에 글을 새긴 것이다. 물론 단순히 그림 대신에 글을 새긴 것만은 아니다. 그림과 달리 글은 글씨의 형태도 있고 글에 담긴 내용도 있어서 차이가 난다.

암각문을 다루는 분야는 금석학이다. 금석학은 금속이나 돌에 쓴 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돌에 새긴 암각문은 금석문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금석학은 중국 청나라의 고증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명필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바위에 새겨진 글은 대부분 당시의 저명한 문인이나 학자들이 쓴 것이었기에 그들의 글씨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감성을 포함한 정신세계까지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양주지역에는 암각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장흥면 삼하리의 독재동 암각문이나 석현리의 암각문은 글자 수도 많고 명필로 꼽히는 추사의 글씨도 있어서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 찾아가기도 쉬워서 가벼운 여행 느낌으로 문화유적을 만나고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장흥면 삼하리 암각문, 노고산독재동추사필적 암각문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암각문은 달리 노고산독재동추사필적암각문이라고 불리며, 경기도 기념물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다. 노고산은 암각문이 있는 산의 이름이며, 독재동은 글씨가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계곡 곳곳에는 여러 사람이 쓴 글이 남아 있어서 이곳을 찾은 사람에게 글씨를 찾는 재미



노고산 독재동 추사필적암각문 전경(왼쪽)과 '몽재' 글자

도 선사한다. 현재 남아 있는 글은 모두 9점이다.

이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조선 최고의 명필로 꼽히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이다. 계곡 아래에 추사가 쓴 몽재(夢齋)라는 글씨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글씨를 쓴 사람이 김정희라는 것은 글씨 끝에 추사라는 김정희의 호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추사의 글씨를 새긴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몽재라는 글은 추사 김정희의 활달하고 거침없는 추사체를 잘 보여준다. 몽재라는 글씨 아래에는 갑자, 경오, 무술, 갑인이라는 간지가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몽재는 누군가의 자(字)나 호(號)이며, 아래의 간지는 그 사람의 사주일 수 있다는 정도이다.

노고산 독재동에 있는 글씨 가운데 주인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는 '미수선생장리지소(眉叟先生杖履之所)' 라는 글이 있다. 말을 풀어보면 미수 선생이 지팡이를 놓았던 장소라는 뜻인데 미수는 조선 숙종 때의 학자로 독특한 글씨체로 유명한 허목의 호인데, 눈썹이 길어 눈을 덮을 정도라고 해서 스스로 붙인 것이다.

허목은 자기가 개발한 독특한 전서 글씨로 「척주동해비」를 세워 바닷물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는 과거에 말과 글에 주술적인 힘을 담



독재동 암각문 '유마폭' 글자



독재동 암각문 '가탁천' 글자

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 허목이 양주지역의 노고산 깊은 곳에 있는 독재동을 찾아서 지팡이를 내려놓고, 즉 여장을 풀고 쉬며 놀았다는 의미가 '미수선생장리지소'는 글씨에 담겨 있다. 허목보다 후에 태어난 추사 김정희도 이곳을 찾아서 허목이 남긴 글씨를 보고 몽재라는 글씨를 남긴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수선생장리지소' 라는 글씨 주변에 비슷한 글씨체로 새긴 이시선(李時善), 임술(壬戌), 독재동(篤才洞) 등의 글씨가 있다.

이시선이 허목의 제자라는 점에서 그가 이들 글씨를 쓰거나 새기는 데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글씨 가운데 독재동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허목과 김정희의 글씨 외에도 노고산 독재동에는 여러 글씨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먼저 살펴볼 글자는 가탁천(可濯泉)이다. 가탁천은 '씻어낼 수 있는 샘'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여행을 통해 손발에 묻은 더러움, 더 확장하면 세상에서 묻은 때를 씻어낼 수 있는 샘이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면 가탁천이라는 말은 깊은 산 속의 맑은 계곡에서 더러움을 떨어내고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가탁천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암각문으로 유마폭(流磨瀑)이 있다. 흐르는 물에 돌이 마모되었다는 뜻인데, 적은 물이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학문이나 공부에 몰두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확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고산독재동추사필적암각문

이름	특징
가탁천(可濯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 가로 19cm, 세로 70cm 씻어낼 수 있는 샘이라는 의미,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해석
독재동(篤才洞)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재동이라는 지명, 독재동은 뛰어난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
몽재(夢齋)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씨 주변에 추사라는 말과 갑자, 경오, 무술, 갑인라는 글자도 새겨져 있음
미수선생장루지소 (眉叟先生杖履之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수 선생은 독특한 글씨체로 유명한 허목을 지칭 허목이 지팡이를 두고 쉬었다는 의미
유마폭(流磨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흐르는 물에 바위가 마모되었다는 의미
이시선(李時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시선은 허목의 제자로 독재동 암각문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3. 석현리 암각문

장흥면 석현리에도 바위에 글을 새긴 암각문이 여러 점 남아 있다. 석현리의 계곡을 따라 바위 여러 개에 새겨져 있는데, 석현리 암각문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 인조 때 병조참판을 지냈던 김언방이 화를 피해 양주지역 석현리에 숨어들었다. 그때 이곳에 있는 바위 8곳에 바위의 모습과 특징을 따라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새겨넣었다고 전한다.

실제로 암각문 가운데 “임오오월각(壬午五月刻)” 즉 임오년 오월에 새겼다는 글이 있고, 그 임오년이 인조 20년인 1642년이라는 말이 있으나 그 유래는 정확하지는 않다.

석현리 암각문을 찾아가면 ‘문장동천(文章洞天)’이라는 글이 새겨진 바위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동천이란 말은 풍광이 수려한 산으로 들어가는



석현리 암각문

입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문장동천은 뛰어난 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이 된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좋은 글(문장)이 새겨진 입구라는 뜻도 되고 좋은 글을 만날 수 있는 입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석현리 암각문 가운데에는 책을 보거나 읽는 바위라는 뜻을 지닌 ‘관서암(觀書岩)’이라는 글도 있다. 이는 아마도 책을 읽기에 좋은 바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따라서 문장동천과 관서암은 글과 책으로 만나 짝을 이룬다. 글과 책에 더해 옛 선비들이 즐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음악이다. 이를 증명하듯 석현리 암각문에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바위라는 ‘탄금대(彈琴臺)’라는 암각문도 있다.

한편 바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도 있다. 즉 눈을 뿜어내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진 ‘분설담(噴雪潭)’이 있다.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물이 튀며

만들어진 하얀 물방울 모습을 눈을 내뿜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만나볼 글자는 주림을 친 듯이 물이 흘러내리는 폭포라는 뜻을 지닌 ‘수림폭(水簾瀑)’이다. 바위를 타고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의 모습이 주림을 닮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구름의 그림자가 드리운 연못이라는 뜻을 지닌 ‘운영담(雲影潭)’은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생긴 물방울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하늘에 구름이 드리운 듯하다는 표현이다,

여기에 두 갈래의 물을 쏟아져 내린다는 뜻을 지닌 ‘쌍류폭(雙流瀑)’ 천길 낭떠러지를 닮은 벽이라는 ‘천인벽(千仞壁)’, 옥처럼 아름다운 대나무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을 지닌 ‘옥순암(玉筍岩)’도 있다. 하나하나 눈에 그려질 정도로 아름답고 명징한 이미지를 지닌 말로 계곡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길이 혼연일체가 된 느낌을 준다.

석현리 암각문

이름	크기	특징
관서암(觀書岩)	가로 36cm 세로 76cm	책을 보던 바위라는 의미
문장동천(文章洞天)	가로 36cm 세로 130cm	문장동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의미
분설담(噴雪潭)	가로 77cm 세로 33cm	폭포의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얀 포말이 뿜어 올라오는 연못이라는 의미
수림폭(水簾瀑)	가로 77cm 세로 27cm	마치 병풍을 친 듯이 폭포수가 바위를 타고 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
쌍류폭(雙流瀑)	가로 77cm 세로 31cm	큰 바위를 끼고 두 갈래의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
옥순암(玉筍岩)	가로 71cm 세로 33cm	마치 잘 빠진 대나무[玉筍]처럼 생긴 바위라는 의미
운영담(雲影潭)	가로 77cm 세로 26cm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하얀 안개가 피어올라 마치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과 같은 곳이라는 의미
임오오월각(壬午五月刻)	가로 17cm 세로 74cm	임오년은 1642년(인조20)으로 바위에 새겨진 글자로 시기를 알 수 있음.
천인벽(千仞壁)	가로 35cm 세로 76cm	바위가 매우 높다는 의미
탄금대(彈琴臺)	가로 67cm 세로 23cm	비파 혹은 거문고를 연주하던 바위라는 의미

4. 양주지역에 산재하는 암각문

양주지역에는 장흥면 삼하리의 노고산독재동 암각문과 장흥면 석현리의 암각문 외에도 여러 곳에 암각문이 전해지고 있다. 금화정 터 암각문과 감악산 남선굴, 덕도리에 있는 빗집바위 암각문이 그것이다.

금화정은 과거 양주 관아가 있었던 유양동에 있는 정자로 과거 금화정의 터에는 ‘금화영(수)석 관민동락(金華永(水)石 官民同樂)’이라는 암각문이 남아 있다. 관민동락이라는 말은 관료와 백성은 함께 즐거움을 누리야 한다는 의미로 당시 관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글이다. 관료는 탐욕이나 권력을 멀리하고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을 찾고 그를 통해 자기도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암각문이 있는 곳은 과거 금화정 터가 있던 곳에서 개울 건너에 있고 정자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다는 점도 위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금화정 터의 암각문 가운데 ‘금화영(수)석’은 높이 133cm, 너비 133cm 정도의 바위를 다듬어서 20cm 크기로 글자를 음각한 것이고 ‘관민동락’은 높이 70cm, 너비 150cm 바위에 12cm의 크기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음각했다.

‘남선굴(南仙窟)’이라는 암각문은 남면 황방리 감악산 중턱에 있는데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맹세하고 조선의 벼슬을 거부한 채로 동굴 속에서 지내다가 삶을 마친 남을진의 고사가 있는 곳이다. 남선굴이 언제 새겨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남선이라는 말을 고려하면 남을진과 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남선굴은 화강암 암벽을 뚫어서 만든 인공 굴이다. 굴의 규모는 높이가 2.4m에 이르고 너비 4.5m, 길이가 2m에 달한다. 굴 안에는 2개의 작은 동굴이 있고 오른쪽에는 웅덩이가 있어 물이 고이게 만들어놓았다. 왼쪽 굴에는 다시 3개의 작은 굴이 있다. 남선굴이라는 글자는 동굴 바깥에 새겨져 있다.



빗집바위 전경 및 정면

빗집바위 암각문은 광적면 덕도리에 있다. 빗집바위는 과거 빗을 쫓아두던 빗집을 닮았다는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빗집바위는 6m가 넘는 바위 5~6개가 포개져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바위가 둘로 쪼개져 있고 그 모습이 빗집을 닮았다. 바위가 쪼개진 것은 당나라의 설인귀라는 장군이 감악산에서 던진 돌이라는 전설과 땅에서 솟아났다는 전설이 함께 전해진다.

그리고 그 쪼개진 바위에 수원 백씨 집안에서 새긴 듯한 글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빗집바위 암각문은 달리 ‘수원백씨각처선농기(水原白氏各處先農記)’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수원백씨각처선농기는 바위 바깥에 가로 74cm에 세로 100cm로 바위를 깎은 곳에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 길이 630cm, 높이 123~194cm의 면에 50행에 걸쳐 전체 516글자를 새겨놓았다.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으며 글자 크기는 10cm 안팎이다.

수원백씨각처선농기는 수원 백씨 집안의 중요한 인물과 사적, 선영의 위치 등을 기록한 것으로 글을 마지막에 ‘동치 9년 경오 6월’이라는 글을 통해 글을 새긴 것이 1870년임을 알 수 있으나 누가 새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글의 마지막에 연도와 함께 “선영의 묘갈을 새겨 영원히 남기려고 했으나 재물이 부족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진실로 통탄스럽다. 모든 형제의 행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여러 종선(宗先)의 것만 새겨놓으니 이를



빗집바위 글자

용서하라(후략)”라는 내용이 담긴 글도 기록되어 있다.

빗집바위에 새겨진 수원백씨각처선농기는 수원 백씨 집안과 관련한 사적과 무덤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이를 통해 양주지역의 여러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인정을 받고 있다.

양주지역에 있는 여러 암각문

이름	위치	특징
금화영(수석 관민동락) (金華永(水)石 官民同樂)	유양동 산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화정 터 주변에 위치 • 조선시대 목민관의 정신을 보여주는 글
남선굴(南仙窟)	남면 황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말 충신 남을진과 관련 있는 유적
빗집바위	광적면 덕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백씨에서 새긴 것으로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음 • 바위 바깥에 '수원백씨각처선농기'가 안쪽에 516글자가 새겨져 있음 • 양주시 향토유적 제14호

7

놀이, 온 동네가 흥겨운 추억 한마당

1. 사라지는 전통 놀이와 양주지역의 놀이

줄다리거나 달집태우기와 같은 전통 놀이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흥겹다. 그러나 전통 놀이는 언젠가부터 우리 주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그나마 명절 때라도 만날 수 있었으나 최근 명절마저 그 성격이 휴일과 비슷해지면서 안타깝게도 멸종되는 희귀종 생물처럼 전통 놀이도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아쉬움을 느끼고 전통 놀이를 되살려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줄다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줄다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문화재 제도를 통해 전통 놀이의 보존과 발굴에 힘쓰고 있다.

세계유산이나 문화재 제도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선정해 보존하기 위한 것이

다.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의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으나 기존의 훌륭한 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지정을 통해 전통 놀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즐길 수 있다면 굳이 보존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 놀이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통 놀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사실 전통 놀이라는 말은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그건 아마도 놀이의 앞에 나오는 전통이라는 말이 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이라는 말은 역사를 통해 전승된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이런 전통의 의미와 민중들의 놀이 및 모두가 함께 즐기는 놀이라는 성격을 더하면 전통 놀이의 의미가 될 것이다.

한편 전통 놀이는 줄다리기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놀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날 때 민속놀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놀이는 조선 후기 이앙법의 보급으로 농사일을 함께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인 두레를 기반으로 노동과 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두레놀이, 두레놀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렇듯 전통과 민속, 두레 등의 의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여기서는 전통 놀이를 역사를 통해 전승된 민중들의 놀이로 사용한다.

양주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에서는 예부터 많은 전통 놀이가 행해졌다. 널리 알려진 것으로 씨름이나 줄다리기, 그네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등 계절에 따른 놀이도 있고, 남녀의 성별에 따른 놀이 등 여러 분류의 다양한 전통 놀이가 전승되었다.

전통 놀이는 대체로 농경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민중들이 현대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최근까지 오랫동안 농경을 주된 생활의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경에 직결된 세시풍속과 같은

생활의 리듬부터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등 대부분 농경을 기준으로 형성되었고, 전통 놀이 역시 다르지 않다.

놀이는 흔히 노동(일)과 대립 또는 조화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통 놀이는 농경과의 대립이나 조화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고된 농사에서 생긴 노동의 피로를 풀고 삶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전통 놀이가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양주지역의 전통 놀이 또한 농경이라는 노동과 함께 행해졌다. 그것은 양주지역 역시 오랫동안 농경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주지역의 전통 놀이 역시 다른 지역에서 행해졌던 전통 놀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양주지역에서 행해졌던 전통 놀이를 살펴보면 먼저 농경과 관련한 세시 풍속 놀이가 눈에 띈다. 음력 정월에 행해진 윷놀이와 널뛰기, 쥐불놀이, 줄다리기 등이 있고, 5월 단오 그네뛰기, 6월에는 농사와 관련해 호미씻이와 두레놀이 등이 있으며, 8월에는 씨름, 소놀이 등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산업의 변화와 도시화로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아이들의 놀이인 팽이, 썰매, 연날리기, 구슬치기, 제기차기, 자치기 등이 예전에는 많이 행해졌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신을 초대해 노는 굿도 예전에는 마을 단위로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소원을 비는 쪽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죽음의 의례인 장례에서도 노래와 율동을 통한 흥겨운 놀이로 승화시켜 망자를 보냈는데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이 또한 사라졌다.

오늘날 양주지역에 전승되는 전통 놀이는 대체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의 지원을 받아 유지하는 것과 마을 어르신 중심으로 행해지는 척사대회나 마을 의례와 관련된 놀이 정도이다. 마을 의례는 다른 지면에서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는 주로 문화재 지정을 통해 전승되는 놀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양주지역에는 먼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양주별산대놀이와 양주소놀이굿이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상여·회다지소리와 양주농악,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양주들노래도 전승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양주지역의 전통 놀이를 살펴보자.

놀이와 관련된 양주의 문화재

명칭	문화재	지정일
양주별산대놀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1964.12.07.
양주소놀이굿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1980.11.17.
양주상여·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1호	1998.09.21.
양주농악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6호	2006.03.20.
양주들노래	향토유적 제18호	2010.09.07.

2.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는 양주지역을 대표하는 놀이인 동시에 문화유산이다. 양주별산대놀이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양주별산대놀이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먼저 이름부터 살펴보자. ‘양주’는 지역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고, ‘별산대’는 산대와 별개의,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별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산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산대(山臺)는 원래 놀이를 노는 무대나 그 무대의 배경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따라서 산대 위에서 노는 놀이를 산대희라고 불렀다. 산대희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에 산대도감을 두고 관리하며 외국 사신이 오면 그들의 숙소인 모화관 마당에서 공연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인조)에 산대도감이 없어지면서 그곳에 소속되었던 예인들이 민간으로 흩어지며 놀이가 민간에 전해졌고 서울과 경기지방 곳곳에서 산대회가 행해졌다. 산대회는 말 그대로 산대, 즉 무대에서 노는 다양한 놀이를 가리킨다. 접시돌리기, 줄타기, 탈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여러 놀이 가운데 가면을 쓰고 노는 가면극(탈춤)을 따로 떼어내 만든 것이 산대놀이이다. 이와 유사한 가면극은 중국의 나희, 일본의 노(能)가 있다.

서울의 산대놀이는 주로 애오개, 사직골, 노량진, 구파발 등 서울 외곽에서 행해졌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시장이 발달한 곳이다. 이는 사람들을 시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 시장 상인들이 놀이패를 고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날의 서울 지역에서 공연했던 놀이패를 본산대라고 부른다.

이들 가운데 애오개와 사직골의 본산대는 지방으로 순회공연을 많이 다녔다. 이에 영향을 받아 지방에도 가면극을 하는 놀이패가 생겨났다. 이런 본산대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양주별산대놀이를 비롯하여 퇴계원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가 탄생했고, 황해도의 봉산탈춤을 비롯한 여러 탈춤, 경남의 동래야류와 수영야류, 오광대, 남사당패 등이 태어났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나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양주지역에서 별산대놀이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몇몇 이유와 맞닿아 있다. 먼저 양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 전문 놀이패에 의한 놀이나 연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양과 북쪽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상업이 발달했던 양주는 놀이가 전승되기 적합한 지역이었다.

또 양주가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별산대놀이가 전승되는 유양동은 당시 2,000명 이상의 인구로 이루어진 목사가 거주하는 큰 행정도시로 놀이의 전승에 유리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수도권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요인이다. 서울의 애오개, 구파발, 녹번 등의 본산대는 단오 때마다 양주를 찾아서 산대놀이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게 전승이 이루어졌다.

한편, 양주지역은 샤머니즘 전통이 강한 지역이었다. 양주는 소놀이굿 등에서 보듯이 샤머니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전통적인 의례가 살아 있고 신명 나게 노는 전통이 예부터 있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이 놀이의 전승에 유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양주지역에서 산대놀이가 행해진 것은 임진왜란 직후인 1600년대 초반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양주별산대놀이가 정착한 것은 대략 18~19세기로 추정한다. 적어도 19세기 초반에는 정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주별산대놀이는 토지신과 곡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당이 있는 사직골(현재의 유양동)에서 주로 공연했다. 사직당 앞에 넓은 마당이 있어서 놀기 좋았기 때문이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주로 음력으로 삼짚날(3월 3일), 석가탄신일, 단오, 추석, 중앙절(9월 9일), 기우제 때 놀았고, 선달그믐에 행하던 나례에 참여하기도 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강제로 중단되었다. 그러다 해방 이후 단오 행사로 복원되었다가 한국전쟁 때 탈이 불타고 전승자들이 세상을 떠나며 큰 타격을 입었다. 또 1964년에는 사직당 주변이 산사태로 소실되면서 소멸의 위기에 처했으나 그해 겨울 국가중요무형문화재(제2호)로 지정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서울 지역의 본산대놀이를 토착화한 것이며, 본산대가 사라진 현재 가장 오래된 산대놀이의 모습을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

별산대는 이처럼 서울 지역의 산대놀이의 영향을 받았으나 다른 산대놀이와 달라진 것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위세를 부리는 오만한 양반의 몰락, 과거승에 대한 신랄한 풍자, 서민의 삶이 지닌 고단함 등을 주제로 삼아 해학적으로 현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가면극이라는 점에서 권력과 불평등, 갑질 등이 횡행하는 현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그렇기에 앞으로도 계속 전승해야 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놀이다.



양주별산대놀이전수교육관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과장과 주요 내용

순서	제목	주요 내용
-	길놀이와 고사	공연을 알리기 위해 동네를 돌면서 공연 장소까지 이동
1과장	상좌춤	15~16세 어린 중이 연희자와 관객의 무사를 기원, 잡귀를 물리치며 사방신에게 공연을 알리는 의식무
2과장	움중춤	거드름춤과 깨끼춤이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춤
3과장	움중과 먹중	움중과 먹중의 재담을 통해 특권층을 풍자
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	고승인 연잎의 평화를 위한 춤, 눈을 끔적이는 연잎을 보필하며 잡귀를 막음
5과장	염불놀이	타락한 종교문화를 고발, 타락한 파계승 풍자
	침놀이	
	애사당 법고놀이	
6과장	파계승놀이	양주별산대의 대표적인 과장, 대사 없이 동작으로 진행, 늙은 중이 파계하는 내용
	신장수놀이	
	취발이놀이	

제목	주요 내용	주요 내용
7과장	익막시렁놀이	계급사회에 대한 불만과 평등한 삶을 갈구하는 내용
	포도부장놀이	
8과장	신할아버지와 미알 합미	서민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을 드러내는 연희
-	뒷풀이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춤추며 마무리

3. 양주소놀이굿

양주소놀이굿은 양주별산대놀이와 함께 양주지역을 대표하는 무형 문화유산으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소놀이굿은 주로 황해도와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 그리고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행해진 소먹이놀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달리 소놀이, 소먹이 놀음이라고도 부른다. 소놀이굿은 정월 대보름과 8월 한가위 때 주로 노는 놀이다.

소놀이굿은 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지를 흙 색깔로 칠하고 들기름을 먹인 다음 어른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소를 만든다. 지역에 따라서는 두 사람의 엉덩이를 마주하고 엮드리면 그 위에 멍석을 씌우고 한 명은 막대기를 위로 올려 머리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은 막대기를 아래로 내려 꼬리를 나타내서 소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소가 만들어지면 앞이 되는 사람과 뒤가 되는 사람 둘이 한지로 만든 소 안으로 들어간다. 앞사람은 소몰이꾼의 안내에 따라 걷고 뒷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를 안고 소가 걸듯이 걷는다. 소몰이꾼과 소 뒤에는 풍물패가 따른다.

이들이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 울음소리를 낸 다음에 “소가 배가 고파서 찾아왔습니다. 여물과 뜨물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집 주인이 밖으로 나와 소와 풍물패를 집안으로 맞아들인다. 집으로 들어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소와 풍물패는 한바탕 춤을 추며 놀고 주인은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이렇게 사람이 분장한 소와 풍물패는 밤이 이슬할 때까지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논다.

양주소놀이굿은 이러한 소놀이의 성격에 농경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소의 건강과 한해의 풍년과 평화를 기원하는 굿의 형식을 첨가한 것이다. 오늘날 소놀이굿을 하는 지역은 중부지방에서 양주지역이 유일하다. 다만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에서는 거북놀이가 행해지는데 그 성격과 놀이 방법이 소놀이와 유사하다. 양주소놀이굿은 양주지역에 속한 노해면(현 도봉구) 출신의 무당 팽수천이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서 전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주소놀이굿은 원마부 1명, 결마부 1명, 큰 소 4명, 작은 소 2명, 무당 2명, 악사 3명으로 구성된다.

양주소놀이굿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당이 제석청배를 한 다음에 마부를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한다. 무당과 마부는 재

담을 주고받는데 무당이 말을 던지면 원마부와 결마부가 교대로 타령을 하며 창을 받는다. 마부와 함께 등장한 어미 소와 송아지가 마당을 뛰어다니고 「마부가」 타령으로 소와 송아지를 소개한다. 이어 무당의 고사와 축원, 덕담이 이어지고 흥정을 통해 소를 사고팔면 집안이 잘 되도록 무당이 축원함으로써 놀이가 끝난다.

소놀이굿의 과정은 기존의 굿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양주소놀이굿은 놀이보다는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4. 양주농악과 양주들노래

전통 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흥겨운 농악인데, 이 놀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다. 농악은 말 그대로 농사와 관련이 있는 음악을 가리키는 말이며, 양주농악은 농악의 보편성과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제46호)로 지정되어 있다.

농악은 농사를 짓거나 명절 때 신명을 돋우기 위해 연행하는 음악을 말하며, 달리 풍물이나 두레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농악은 고단하고 힘든 농사일을 할 때 일의 효율을 높이고 피로를 풀거나 함께 흥겹게 일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농악이 농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양주지역이 오랫동안 농경에 종사해왔다는 것은 농악이 발전하고 전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농악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고대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악은 조선 후기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 후기에 농사공동체인 두레가 생겨나면서 농악이 크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두레는 기본적으로 농사 가운데 특히 고된 김매기를 함께 하는 공동체

였다. 그래서 '두레한다'는 말은 김매기를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레라는 말이 김매는 것에 더해 농악을 치며 노는 것까지 포함한 말이 되었다. 이후 두레놀이라는 말은 풍물을 치며 노는 농악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악을 달리 두레라고도 불렀다.

양주지역은 특히 두레가 강하게 나타났던 지역이다. 두레가 강하고 유난했기 때문에 농악 또한 그와 비례해서 그 위세가 대단했다. 실제로 1903년에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된 농악대회에서 양주 석적면 회촌동(현재의 광전면 효촌리) 두레패가 농기를 하사받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양주농악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농악은 크게 농사풀이와 걸립으로 나뉜다. 농사풀이 농악은 농사짓는 과정을 쟁과리 소리에 맞춰 율동과 춤으로 풀어내는 농악이며, 걸립 농악은 말 그대로 농악대를 앞세우고 민가를 돌면서 걸립하는 형태의 농악이다. 그중 양주농악은 농사풀이를 토대로 행해지는 농악이다. 농사풀이 농악은 주로 양주를 비롯해 김포나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양주농악의 농사풀이는 땅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밭을 밟아주는 보리밭 밟기부터 20개 동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장단에 맞춰 동작으로 묘사한다.

양주농악은 양주지역에서 삶을 일구었던 농민들의 땀과 신명이 담겨 있어서 비록 현재의 농업이 과거와는 달라졌으나 한국을 대표하고 양주를 대표하는 흥겨운 가락으로 보존에 힘써야 할 문화재이다.

농악과 더불어 농경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노동요가 있다. 노동요는 말 그대로 노동할 때 부르는 민요를 가리킨다. 「양주들노래」는 농사를 지을 때, 특히 모심기와 논을 맬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들노래를 언제부터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농경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은 농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인근 지역인 파주, 고양, 동두천 등지에서도 유사한 것이 발견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6호 양주농악



양주시 향토유적 제18호 「양주들노래」



「양주들노래」는 크게 소모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로 나뉜다. 소모는 소리에는 긴 열소리, 자진 열소리 등이 있고, 논매는 소리에는 논바닥에 들어서면서 하는 소리, 긴 방아 소리, 꽃방아 소리, 새 날리는 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주들노래」는 경기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민요의 특성을 보이는 한편, 경기도 서북부의 성격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편성과 고유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노동이 기계화되면서 들노래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히 2010년에 양주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고, 그해 제8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계승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5. 양주 상여·회다지소리

양주지역에서 전해지는 노동요 가운데 장례와 관련된 것이 「상여·회다지소리」이다. 「상여·회다지소리」는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로 나뉘는데, 상여소리는 꽃가마가 나갈 때 부르는 노래이고, 회다지소리는 봉분을 다지기 위해 달구질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따라서 「상여·회다지소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상여를 운반하고 무덤을 만들기 위해 땅을 다질 때 리듬을 맞추고 흥을 돋우기 위한 노동의 성격을 지닌 노동요에 속한다. 흔히 장례와 관련된 노래라는 점에서 슬픔만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모든 노래가 그렇지만 「상여·회다지소리」에도 삶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적지 않게 화장(火葬)을 하면서 장례 문화가 크게 바뀌었으나 과거에는 한껏 꽃으로 장식한 꽃상여에 망자를 싣고 마을에서 장지로 갔다. 상여소리는 이때 앞장선 선소리꾼이 선창하면 상여를 맨 사람들이 후렴구를 합창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상여소리는 적절한 음악적 리듬감을 통해 삶과 죽음의 허무와 기대를 드러내고, 그 공간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그리고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1호 「양주상여·회다지소리」

는 망자를 누이는 공간을 단단하게 다질 때 부르는 노래이다. 이렇게 땅을 다지는 것을 달구질이라고 부른다. 이때도 서로 신체의 리듬을 맞추기 위해 함께 노래를 부른다.

양주 「상여·회다지소리」는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소리가 전하는 곳은 백석읍 방성리 고릉말이다. 고릉말은 마을이나 능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이 점에서 「상여·회다지소리」에 적합한 지역이라 하겠다.

한편, 양주지역에서 「상여·회다지소리」가 발달한 것은 지리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과거 양주지역은 수도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로 왕릉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왕릉 조성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이 왕실의 장례 절차나 소리를 배우고 민간에 전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장례문화가 크게 변했으나 문화재 지정을 통해 과거 장례 문화와 노동요가 전승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양주 「상여·회다지소리」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산 따라 물 따라
이야기 따라

제3편

1

설화, 이야기로 읽는 양주의 속살

1. 이야기로 만들어진 세상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주고받고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산다.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기도 하고,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예수나 석가와 같은 성인들은 무엇인가 설명할 때 자주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활용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힘은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설화는 민족이나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을 통해 전해져 온 이야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설화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특정한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설화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도 엿볼 수 있다.

설화는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자연에 대한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세상에 대한 상상력 등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에 설화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토대로 한 희망과 바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설화는 특정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설화는 형식적으로 서사, 즉 줄거리가 있다. 오늘날의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위한 대본은 이런 설화에서 유래했다. 물론 오늘날의 것과 비교할 때 줄거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유효하고 흥미롭다.

양주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예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고 오고 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다녔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양주지역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명한 인물의 신동한 이야기

1) 「박문수가 초립동의 원한을 풀어준다」

박문수는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문수가 어사로 활동하면서 백성을 잘못 다스리는 관리를 처벌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데 애쓴 까닭에 그의 이야기는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양주지역에서도 억울한 원한을 풀 이야기 전승된다. ‘박문수가 초립동의 원한을 풀어준다’가 그것이다. 이야기는 박문수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버드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때 박문수 앞으로 미인이 탄 가마 1기가 지나갔다. 그 미인에게 반한 박문수는 그 가마

가 들어간 집을 찾아서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그날 밤 박문수가 소변이 급해서 잠에서 깬으나 화장실을 찾지 못해 담벼락에 실례하고 있는데 총각 하나가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았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박문수는 그대로 넘겼고, 다음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뽕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초립동이 다가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지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종이 하나를 주며 그대로 쓰면 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되어 세상을 떠돌다가 전에 묵었던 집을 찾았는데 주인의 낮빛이 좋지 않았다, 그 까닭을 묻자 아들이 하나 있어 장가를 갔는데 밤에 화장실을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했다. 박문수는 예전에 담벼락에서 보았던 총각이 떠올라 그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마을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던 특이한 총각을 불러들였다. 박문수는 그에게 어디서 글을 배웠는지 물었고 총각은 경상도 어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문수는 그 총각을 바로 잡아들였다. 집주인이 며느리로 맞아들인 여자의 친정이 경상도였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맞은 총각이 양주지역까지 따라와 신랑을 죽인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박문수에게 나타났던 초립동은 집주인의 아들이었다.

2) 「신통력을 지닌 정렴」

박문수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면 양주지역에 묘가 있는 북창 정렴 선생은 유학자이지만 불교와 도교에도 능통해 도술과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 인물이다. 여기서는 ‘신통력을 지닌 정렴’이라는 이야기를 살펴본다.

어느 날 정렴 선생이 머무는 곳에 친한 승려가 문안하러 왔다. 정렴 선생은 하인에게 술을 사 오라고 시키고 승려에게 술을 마시고 가라고 붙잡았다. 정

렴 선생은 승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술을 마시기 힘드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 승려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하인이 뛰어 들어오며 술을 사서 오던 중에 병을 떨어뜨려 깨졌다고 말했다. 정렴 선생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승려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정렴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멀리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맞히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 많다. 정렴 선생의 설화는 설화집인 『어우야담』, 『계서야담』, 『청구야담』 등에 많이 전한다.

3) 「귀신을 이긴 이탁」

남면 한산리 출신인 이탁의 이야기인 ‘귀신을 이긴 이탁’도 신기한 이야기에 속한다. 이탁은 1535년 과거에 급제한 학자이다. 하루는 서울로 가다가 과거의 숙소인 역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런데 역에 있는 관리가 이탁에게 역에 요사스러운 귀신이 살아서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하니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자 관리의 말처럼 이탁에게 토사곽란이 찾아왔다. 이탁은 귀신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인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청을 물리쳤다. 이탁은 토사곽란에 시달리면서 날이 썰 때까지 꾀꾀하게 버텼다. 날이 밝자 토사곽란은 어둠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이후 역에는 요사스러운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남면 한산리 출신인 이탁은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고 부제학을 지낸 아들 이해수와 함께 남면 한산리에 묻혀 있다.

4) 「도술에 능한 정작」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양주지역 사람 가운데 정작이라는 도술에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 양주지역에서 태어난 정작은 금강산에 들어가 도를 닦았고 의학과 서예에 뛰어났다고 전한다.

정작이 한번은 귀신에 홀린 사람에게 약을 써 주었는데 증세가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그래서 정작은 병의 증세가 바뀔 때마다 약을 지어 치료했다. 어느 날 정작의 꿈에 누군가 나타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옥황상제에게 아뢰어 그를 죽이려고 다섯 번이나 증세를 바꾼 것이니 다시 도와주면 정작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은 개의 치 앓고 여섯 번째 증세가 바뀌자 다시 약을 지어 칠했다. 그러자 귀신도 포기하고 물러났다고 한다.

또 여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친구들이 너무 덥다고 하자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부적을 던지고 주문을 외었다. 그러자 집 근처에 호수와 누각이 생겼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물이 시원했다. 얼마 후 아이가 술을 가져와 함께 마시고 잠이 들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니 낮에 모였던 작은 집이었다. 정작과 친구들은 한바탕 웃고 헤어졌다고 한다.

3. 동물이 얽힌 신기한 이야기

설화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물과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들이다. 단군신화처럼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 동물이神通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도 있다. 먼저 ‘두꺼비 신랑’을 살펴본다.

1) 「두꺼비 신랑」

예전에 양주지역에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살던 노부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가 나타나 물고기를 모두 잡아서 노부부는 생계가

막막했다. 이를 두꺼비에게 말하자 두꺼비는 자기를 집에 데려다주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과연 두꺼비를 집으로 데리고 오자 도술을 부려 양식을 만들어주었다. 노부부는 기뻐하며 두꺼비를 양아들로 삼았다.

하루는 두꺼비가 고개 너머에 있는 박판서의 막내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노부부는 이상했으나 두꺼비의神通력을 믿고 노파가 박판서 집을 찾아가 두꺼비의 혼사 이야기를 꺼냈다. 그 말을 들은 박판서는 분노하며 노파의 목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몇 차례 목을 쳤으나 매번 목이 붙었다. 하는 수 없이 두꺼비를 사위로 맞이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노파의 말을 믿어 결혼 날짜를 잡았다.

한편 두꺼비와 혼인한 막내딸은 막막했다. 두꺼비는 그런 막내딸에게 칼을 가져와 자기 목을 치라고 말했다. 신부가 실제로 두꺼비의 목을 치자 갑자기 선비가 나타났다. 두꺼비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이르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두꺼비 신랑은 여전히 자기의 원래 모습을 숨기고 두꺼비의 모습으로 생활하며 자기를 무시한 첫째와 둘째 사위를 골탕 먹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꺼비라는 허물을 벗고 선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박판서를 비롯한 모두가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유명한 동화 ‘미운 오리 새끼’, ‘개구리 왕자’ 처럼 겉과 본래의 모습이 달라 갈등을 빚다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야기이다.

2) 「여우의 장난」

양주지역에서 전하는 이 설화는 여우가 피가 많고神通력이 뛰어나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예전에 어떤 마을에 여우가 들끓었다. 심지어 여우는 장난이 심하고 사람들을 홀리기도 했다. 그래서 누군가 여우를 잡기 위해 여우가 잘 다니는 곳에 함정을 파놓았다. 얼마 후 함정에 가보니 여우는 없고 마을 어른이 들

어가 있었다. 어른이 호통을 쳤고 그 사람은 그 어른을 꺼내주었다. 그런데 그 어른은 마을이 아닌 산으로 가다가 재주를 두 번 넘자 여우로 변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은 마을의 어른을 찾아가 함정에 빠진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마을 어른은 그런 일이 없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여우로 알고 때려잡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 어른이 함정에 빠진 여우가 있으면 잡으려고 갔다가 실수로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함정을 만든 사람이 가보니 그 어른이 또 함정에 빠져 있었고 꺼내 달라고 외쳤다. 그 사람은 두 번 속지 않는다고 말하고 때려잡았다. 그런데 때려잡고 보니 마을 어른이었다. 그는 관가로 달려가 사실대로 말했고 그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4. 신기하고 기이한 이야기

1) 「산신이 옮긴 비석」

양주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에는 동물이 아닌 사람과 관련된 신기하고 기이한 이야기도 많다. 먼저 남면 황방리에서 전해지는 ‘산신이 옮긴 비석’을 살펴본다.

남면 황방리에 속한 감악산에는 큰 비석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빗돌대왕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나라의 장군 설인귀비라고도 부른다. 이 비석이 감악산 정상에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 그것이 ‘산신이 옮긴 비석’이다,

원래 이 비석은 남면 황방리 근처의 놀목리 길가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소를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보니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소는 온몸에 땀을 흘려서 털이 축축했다. 한편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소는 모두 죽어 있었다.

사람들은 신기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놀목리에 있던 비석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 비석은 놀랍게도 산 정상에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감악산의 산신령이 근처에 있는 소들을 데리고 비석을 옮겼다고 생각했다.

2) 「만 냥에 판 이심이」

‘산신이 옮긴 비석’이 산신령과 관련이 있다면, ‘만 냥에 판 이심이’는 신령한 약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다.

양주지역의 어느 마을에 예전에 부자였다가 망해서 가난해진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참나무 가지에 커다란 구렁이가 걸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 병처럼 생긴 것이 구렁이에게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먹고 있었다. 그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처음 보는 것이라 망태기에 넣고 산에서 내려왔다.

집으로 가다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에 가서 펼쳐놓았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사겠다는 사람은커녕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일어나려고 할 때 패랭이를 쓴 사람 하나가 나타나 천 냥에 팔라고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 그 가격에 팔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패랭이를 쓴 사람은 그대로 사라졌다. 그는 별것도 아닌 것을 천 냥이나 준다고 해서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패랭이를 쓴 사람은 가격이 적어서 안 파는 줄 알고 사라진 것이다. 조금 있다가 노인 하나가 그가 앉아 있는 곳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보고 만 냥에 사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싼 가격이 궁금해서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노인은 그게 몇천 년 묵은 지렁이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지렁이의 살을 조금 떼어내 펄펄 끓는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그 물을 죽은 사람에게 먹이면 사람이 살아나는 약이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영험한 약은 제값을 주고 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알려주었다. 몇천 년 묵은 지렁이를 판 사람은 다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종종 행운은 우연처럼 사람들을 찾아온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양주지역에도 그런 이야기가 여럿 전해진다.

5. 행운이 찾아오는 이야기

1) 「손목 한 번 잡고 부자가 된 뱃사공」

예전에 오늘날의 옥정동에 김수명이라는 가난한 노총각이 살고 있었다. 김수명의 직업은 뱃사공이었다. 그의 배는 서른 명 정도 태울 수 있었고 매번 서른 명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했다. 한번은 반대편으로 배를 몰고 가장 중간쯤 이르렀을 때 보따리를 든 여자 하나가 배에서 뛰어내렸다. 배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뱃사공이 책임을 져야 했기에 김수명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노인들은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 여자를 구하라고 호통을 쳤다.

김수명이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고 여자를 구해냈다. 여자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졌고 여자는 뱃속의 물을 토한 다음에 깨어났다. 김수명은 여자에게 왜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여자는 시집을 간 지 일주일 만에 과부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배를 탈 때 김수명이 자기의 손목을 만져서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해 부끄러워 죽으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배는 강둑에 도착했고 손님들은 제 갈 길을 갔다. 김수명은 나루터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갔다. 여자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김수명은 손목

한 번 잡았다고 죽으려고 한 여자인지라 목숨을 구해 준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아내로 맞아들였다.

김수명은 그렇게 그 여자와 결혼해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다. 가난했던 노총각은 손목을 한번 잡는 바람에 엄청난 행운이 찾아들어 아내도 얻고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한다.

2) 「돌이와 두꺼비의 우정」

뜨거운 우정이 행운을 안겨준 이야기도 있다. 이 이야기는 백석촌에서 전해진다. 옛날 양주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백석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곳의 서당에 돌이라는 아이와 두꺼비라는 아이가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집안도 좋고 총명했다. 다만 두꺼비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절름발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두꺼비를 놀리면 돌이가 나서서 막아주었다. 둘은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친하게 지냈다.

청년이 된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고 돌이만 과거를 보아 급제했다. 돌이는 관직 때문에 전국을 떠돌았고 마침내 병조판서까지 올랐다. 그러나 두꺼비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가세도 기울어 빈곤하게 지냈다. 두꺼비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치는 법을 배워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실력이 없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돌이는 친구를 돕기로 했다. 다음날 병조판서 집에서 말을 잃었고 그것을 두꺼비가 찾아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유명해진 두꺼비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때 궁궐에서 옥쇄가 사라지고 말았다. 조정에서는 유명한 점쟁이를 모두 불러 모아 옥쇄를 찾게 했다. 그때 관원 하나가 두꺼비를 찾아가 사실은 자기가 옥쇄를 훔쳤고 주춧돌 밑에 숨겨놓았다고 자백했다. 대신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두꺼비는 옥쇄도 찾았다. 왕은 옥쇄를 찾은 두꺼비에게 상자를 하나 내밀면서

무엇이 들어 있는지 맞춰 보라고 했다. 맞추면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두꺼비가 그 내용물을 알 턱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친구 돌이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었다. 두꺼비는 가만히 서 있다가 “돌이 때문에 두꺼비가 죽는구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이 너무 놀라며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돌에 깔린 두꺼비가 들어 있었다. 왕은 후한 상을 내렸고 두꺼비는 점쟁이 노릇을 그만두고 백석촌으로 내려와 돌이와 함께 우정을 나누며 잘 살았다고 한다.

3) 「삼천 냥을 싣고 온 소」

신에게 간절하게 빌었더니 행운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꾼이 살았다. 하루는 떡을 해서 집터를 지키는 지신인 터주에게 바치며 내일 돈 삼천 냥이 생기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 사연은 이렇다.

그때 마침 도둑이 훔칠 것을 찾아서 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농사꾼이 삼천 냥이 생기게 해달라는 것을 보며 터져 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삼천 냥은 고사하고 오늘 밤 내에 소가 없어질 것이라며 웃었다. 얼마 후 빌기를 바친 농사꾼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도둑은 외양간으로 들어가 소를 끌어들었다. 도둑은 그때 다른 집에서 훔친 삼천 냥이 있었기에 소 등에 그 돈을 싣고 몰래 소를 끌고 나갔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던 소가 도랑을 만나자 건너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도둑은 계속 실랑이를 하며 소를 도랑 건너로 데리고 가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도둑이 잡고 있던 고삐가 끊어지고 말았다. 소는 뒤를 돌더니 집을 향해 뛰어갔다. 한편 바깥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들은 농사꾼이 밖으로 나왔다가 소가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외양간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다가 소 등 위에 삼천 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농사꾼은 크게 기뻐하며 터주신에게 삼천 냥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정말로 삼천 냥이 생겼다고 좋아했다. 농사꾼은 그 이후 터주신을 정성스럽게 모셨고 복을 물고 온 소도 잘 먹여서 키웠다고 한다. 행운은 이렇게 뜻하지 않고 곳에서 나타난다.

4) 「아이로 변한 산삼」

뜻하지 않은 행운을 얻은 과부 이야기도 양주지역에서 전해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가 아이 하나와 살았다.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물을 뜯어 겨우 풀칠을 하며 살았다. 아이는 어머니가 산으로 가면 홀로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산에 간 다음에 어디선가 아이 하나가 나타났고 둘은 즐겁게 놀았다. 그날 이후 과부가 집을 비울 때 마다 아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에는 인가도 없었고, 당연히 아이도 살지 않았다.

아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음에 아이가 오면 손목에 실을 매어두라고 알려주었다. 다음 날 과부가 나물을 뜯으러 가자 아이가 다시 나타났고 손목에 실을 묶어두었다. 과부는 다음날 실이 이어진 곳을 따라가 보았다. 그랬더니 어느 곳에서 땅속으로 실이 이어져 있었다. 땅을 파보니 자기 아들 정도 크기의 산삼이 나왔다. 그러니까 산삼이 아이로 변해서 놀러 왔던 것이었다. 과부는 그 산삼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전한다.

6. 속임수 이야기

인생에는 행운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곳에 서로를 속이고 속

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렇게 속이고 속는 이야기 몇 편을 살펴본다. 먼저 만나볼 이야기는 ‘두 번 죽은 사람’이다.

1) 「두 번 죽은 사람」

언젠가 어떤 사람이 친구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가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싸움으로 번졌다. 싸움하던 도중에 친구를 때렸는데 뜻하지 않게 맞은 친구가 죽고 말았다. 정신이 번쩍 든 그는 자기가 친구를 죽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피를 냈다.

그는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친구의 손에 과자 한 봉지를 들게 하고 그 친구의 집으로 메고 갔다. 그리고 그 친구의 목소리를 흉내 내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친구의 아내는 역정을 내며 밤늦게 술을 마시는 사람을 집에 들일 수 없다고 화를 냈다. 그는 친구의 목소리로 얼어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고 되물었고 친구의 아내는 자기 알 바 아니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얼른 죽은 친구를 대문 옆에 기대어 세워놓고 도망쳤다. 그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의 아내가 대문을 열자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나가보니 뽕뽕 얼어붙은 남편이었다. 친구의 아내는 자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얼어 죽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2) 「상전을 망하게 하는 하인」

속임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약자가 강자를 속여서 놀려먹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서 양주지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상전을 망하게 하는 하인’이라는 이야기이다.

옛날 어느 양반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왕군장골때였다. 하루는 양반이 궁궐에 가면서 왕군장골때를 데리고 갔다. 길을 가다가 시장기

가 돈 양반은 하인에게 술을 사 오라고 말했다. 왕군장골때는 술을 사서 손가락으로 저으면서 왔다. 양반이 그 이유를 묻자 술을 사 오다가 채채기를 해서 코가 빠져 건져내려고 그랬다고 대답했다. 양반은 질색하며 너나 먹으라며 하인에게 주었다. 왕군장골때는 같은 방법으로 국수도 얻어먹었다. 이윽고 궁궐에 도착한 양반은 하인에게 말을 맡기면서 ‘서울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을 빼먹는 곳이니 말을 잘 간수하라’고 했다. 그러자 왕군장골때는 얼른 말을 팔아먹고 말 고삐만 쥐고 있었다. 양반이 이유를 물어보자 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눈을 잡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답답한 양반은 왕군장골때의 등에 편지를 써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왕군장골때는 집으로 가다가 노승을 만나서 갖고 있던 떡을 나누어 주고 등에 적힌 편지의 내용을 읽어달라고 했다. 편지에는 왕군장골때가 집으로 가면 바로 때려죽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왕군장골때는 노승에게 부탁해 그가 돌아가는 즉시 누이와 혼인시키고 집을 주어 따로 살게 해 주라고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몇 달 후 양반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왕군장골때는 그 집안의 사위가 되어 잘살고 있었다. 화가 난 양반은 왕군장골때를 망태기에 넣고 뒷동산에 있는 높은 나무에 매달고 다음 날 때려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때 마침 애꾸 하나가 통을 짊어지고 지나갔다. 왕군장골때는 그를 보고 ‘눈 뚫다 눈 뚫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애꾸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왕군장골때는 자기도 원래 애꾸였는데 망태기에 앉아 있으니 눈이 떠졌다고 대답했다. 애꾸는 자기도 눈을 뜨고 싶어서 왕군장골때를 망태기에서 꺼내고 자기가 대신 들어가 앉았다. 다음날 양반은 망태기 안의 사람을 확인도 하지 않고 죽였다.

이렇게 피 많은 하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된다. 그것은 엄격한 신분제로 인해 천대받았던 하인들이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사회적인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2

김삿갓, 양주에서 태어나 세상을 방랑한 시인

1. 회암동에서 태어난 김삿갓

흔히 김삿갓으로 불리는 김병연은 1807년에 조선 최고의 권문세가였던 안동김씨의 후예로 태어났다. 당시 안동김씨는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를 중심으로 세도정치의 막을 연 상태였다.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는 약 6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따라서 김삿갓이 살았던 시대는 안동김씨가 세도를 부리는 시대였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김삿갓은 세도가 아닌 고난의 방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했다.

김삿갓이 태어난 곳은 양주였다. 김삿갓이 양주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학자가 1980년대 이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김삿갓의 출생지로 회암동을 지목하고 있다. 오늘날의 주소로 하면 양주시 회암동 234-2번지 어딘가에 김삿갓의 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주소지 지역에서 기와 조각과 자기 조각이 다수 발견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누군가 살았던 집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우물터와 수령 200년 이상의 향나무가 있는 것을 볼 때 양반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이곳은 밭으로 변했고 우물터도 마른 상태이다. 다만 두 그루의 향나무를 통해서 그곳에 우물이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다. 이와 달리 강원도 영월군에 김삿갓의 생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김삿갓이 양주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것은 김삿갓이 쓴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스스로 자랑했었네, 즐거운 땅 얻어 태어났다고
한복이 바로 내가 나서 자란 고향임을 내 아노니.

한북(漢北)은 한강 이북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강원도 영월이 아니라 양주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삿갓의 삶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아버지는 김안근이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익순이다. 할아버지 김익순을 거론한 것은 그가 김삿갓의 삶에 절대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김삿갓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방랑을 떠나게 만든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 김익순이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다. 세도가의 집안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김익순은 당시 선천 부사였다. 선천은 평안도에 있는 지역이었고 부사는 지방의 장관직으로 고위직이었다.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이었다.

이때 가산 군수였던 정시(鄭蓍)가 홍경래의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것과 달리 김익순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농민군에게 항복했다. 그러다가 난이 진압되어 농민군이 관군에게 쫓기고 홍경래가 사살되자 김익

순은 자기 죄를 모면하기 위해 재빠르게 태도를 바꿔 농민인 조문형에게 거금 천 냥을 주기로 하고 농민군 참모였던 김창시의 목을 베어오라고 했다. 그리고 베어 온 목을 조정에 바치고 자기가 공을 세운 것으로 위장했다. 조문형은 약속한 대로 목을 베어 주었으나 김익순은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조문형이 조정에 사건의 앞뒤를 고발했고 조사 끝에 사실로 밝혀지면서 김익순은 왕을 속였다는 이유로 모반대역죄로 몰려 참수를 당했다.

김익순은 참형을 당했으나 안동김씨였기에 멸문지화는 면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며 김삿갓의 아버지인 김안근은 수치심에 시달리다가 39살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김삿갓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과거를 아들에게 철저히 숨겼다.

2.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방랑자

전하는 말에 따르면 김삿갓은 16살에 과거를 보았다고 한다. 이때의 시험은 중앙에서 왕이 주재하는 대과가 아니라 지방관이 주재하는 향시였다. 향시에 붙어야 대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김삿갓이 향시를 볼 때 나왔던 시제가 “가산 군수 정시의 죽음을 논하고 하늘에 사무치는 김익순의 죄를 탄식하라” 였다.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할아버지 김익순의 사정을 알지 못했던 김삿갓은 김익순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한 번 죽어서는 그 죄가 가벼우니 한번 죽어 마땅하다. 그 치욕은 동국 역사에 길이 웃음거리로 남으리라!” 라고 글까지 써서 제출했으며 그 시험에 급제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김삿갓은 어머니에게 급제한 내용을 말하다가 김익순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문제에 나온 역적



김삿갓 표준 초상화

김익순이 자기의 할아버지이며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문에 화병으로 죽었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기 할아버지를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답안지를 제출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김삿갓은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출세를 보장할 수단이었던 과거 급제가 조상을 욕보인 행위로 변하자 죄책감과 자괴감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이미 혼인한 상태임에도 집을 나와 방랑을 시작했다. 이때 김삿갓은 자기의 상징이 된 큰 삿갓을 쓰고 다녔는데, 그것은 부끄러움에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흔히 이름인 김병연 대신에 김삿갓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삿갓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상을 방랑했다. 때로 가족들이 귀가할 것을 권했으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뛰어난 글 솜씨로 당시 사대부의 악덕과 부정부패를 희롱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을 노래하며 여기저기 떠돌았다. 오늘날에도 그의 재치 넘치는 시가 많이 전한다. 한 예를 들어본다.

是是非非非是是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이 옳지 않으며,
 是非非是是非非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함이 옳지 않음
 이 아니다.
 是非非是是非非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함이 이 그른 것이
 아니며,
 是是非非是是非 옳다는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이 도리어 이
 그른 것을 옳다 함이다.

김삿갓은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방랑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전라도 동복현(오늘날 전남 화순 동복면)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안초시라는 사람의 집을 찾았다가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안초시, 출구려. 어머니가 보고 싶소, 저…… 등잔…… 불을 켜…… 꺼주소”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한다. 김삿갓의 주검은 아들 김익균이 수습했고, 묘지는 강원도 영월군 와석리에 있다.

김삿갓은 생전에 1만여 편에 이르는 시를 썼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56편이다. 그는 권문세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타고난 재주를 인정받아 크게 출세할 수도 있었으나 기구한 운명으로 일생을 문전걸석하며 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세상의 온갖 천대를 받고 인생의 어두운 면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의 시 세계가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삿갓의 자는 성심이며 호는 난고로, 영월에 그의 호를 딴 난고문학관이 있다. 1978년에 그의 후손들이 광주 무등산에 시비를 세웠고 1987년에 영월에 시비를 세웠다.

3. 양주에서 만나는 김삿갓 풍류길

양주시는 2014년 김삿갓이 태어난 회암동의 역사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김삿갓의 문학세계를 알리기 위해 3개 구간의 숲길을 조성하고 김삿갓 풍류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김삿갓 풍류길은 전체 21km에 이르며, 곳곳에 김삿갓 벽화 거리, 김삿갓 쉼터, 김삿갓 바위 등이 있다.

김삿갓 풍류길은 모두 셋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가 태어난 회암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고암동과 덕계동 일원에도 자리하고 있다.

제1구간은 전체 8.2km로 덕정역에서 출발해 김삿갓교에 이르는 길이다. 덕정역과 김삿갓교 사이에 양주의 대표적 문화재인 회암사지와 회암사지

김삿갓 풍류길 제1~2구간의 출발점 덕정역(왼쪽)과 제1구간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삿갓과 관련해서는 김삿갓 쉼터와 김삿갓 벽화 거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상세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제1구간(8.2km) 풍류길 **덕정역-태봉-김삿갓교-회암사지박물관-회암사지-회암사-삿갓 향기 쉼터-김삿갓 쉼터-김삿갓 벽화 거리-김삿갓교**

제2구간은 덕정역에서 출발해서 덕계역까지의 길로 그 사이에 화정교와 덕계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상세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제2구간(3.6km) 청담천길 **덕정역-덕정삼거리-청담 체육공원-화정교-덕계천-덕계역**

제3구간은 도락산이 포함된 길로 제2구간이 끝나는 덕계역에서 출발해 덕계공원 사거리까지의 길이다. 이 길에는 도락산 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상세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제3구간(9.6km) 도락산 숲길 **덕계역-덕계공원 사거리-숲속 체험장-덕계 저수지-지장사-웅달샘 쉼터-도락산 쉼터-금광 아파트-덕계 근린공원-덕계공원 사거리**

4. 김삿갓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양주지역에는 김삿갓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행사가 여럿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주 김삿갓 전국문학대회와 김삿갓배 바둑대회일 것이다.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는 한국예총 양주지회와 한국문인협회 양주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양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매년 5월에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개최하며, 2019년에 제13회를 맞이했다. 주최 측은 행사의 목적이 ‘조선 최고의 풍자 시인인 난고 김병연(김삿갓)의 고장 양주를 알리’며, 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그 뒤를 이을 ‘문인을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는 시와 시조의 운문 분야, 수필과 생활문의 산문 분야로 참가할 수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2019년 제13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의 상금이 300만 원이었으며, 각 수상자는 대학 입학 때 문예 특기자 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삿갓배 전국바둑대회는 2008년 방랑시인 김삿갓을 기리고 바둑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이후 매년 9월 개최하고 있다. 김삿갓배 바둑대회는 2018년 제11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해가 거듭될수록 대회 규모와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한다.



2018년 제11회 양주 김삿갓배 전국바둑대회



2015년 제9회 양주김삿갓 전국문학대회 포스터

5. 김삿갓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

김삿갓은 매우 흥미로운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영화는 1편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1957년 7월에 개봉한 『김삿갓(The Wanderer)』은 이만홍 감독이 만든 것으로 상연 시간이 96분인 흑백영화였다. 영화의 내용은 알려진 김삿갓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여기에 로맨스를 추가해서 흥미를 더했다.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선천 부사 김익순의 손자 병연(박경주 분)은 장원급제하지만 할아버지가 홍경래의 난 때 반란군에 항복한 전력 때문에 벼슬에 오르지 못한다. 이에 좌절한 그는 가족을 버리고 방랑길에 오른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타락한 세태를 개탄하는 기발한 시구를 남긴다. 그는 방랑하는 생활을 하던 중 가련(박옥란 분)이란 여자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그녀가 바로 홍경래(김승호 분)의 딸임을 알고 크게 번민한다. 가련은 김삿갓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승이 되고 김삿갓은 어느 날 길 위에서 생을 마친다.

이 영화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영화의 주제가었던 ‘방랑시인 김삿갓’이 크게 히트해서 음반이 무려 45만 장이나 팔렸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김삿갓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쓴 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창처럼 날카로운 풍자와 빙그레 웃음을 짓게 만드는 해학은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인지 음식점이나 술집 이름을 김삿갓으로 짓기도 하고, 김삿갓의 묘가 있는 영월군은 2009년에 기존의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김삿갓이 지닌 저항과 풍자라는 매력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3

임꺽정, 양주에서 태어난 조선 최고의 의적

1. 도적과 의적의 갈림길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는 사람을 도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도적질을 하는 사람을 화적이라고 부른다. 도적이거나 화적 가운데 탐관오리나 탐욕스러운 부자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의로운 도둑이라는 뜻인 의적 또는 큰 도둑이라는 뜻으로 대도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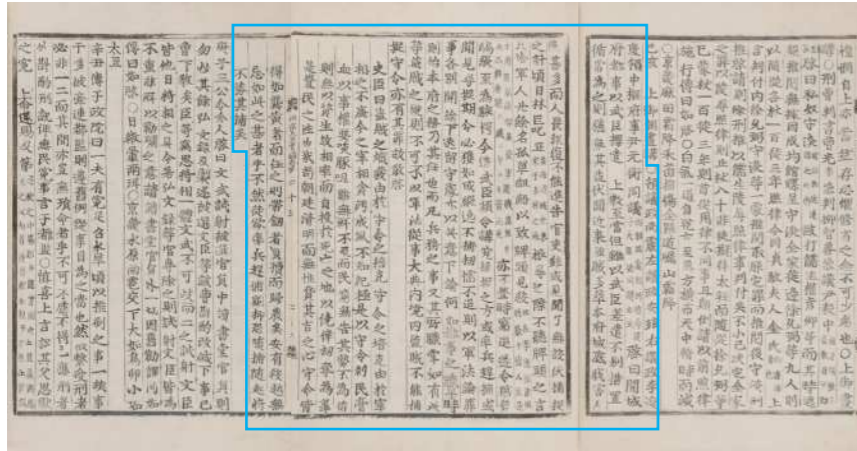
예부터 민중들은 지배자의 억압과 수탈이 심할수록 의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등장한 의적에게 열광했다. 그것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부자와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민중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 더해 부자와 탐관오리로부터 약탈당한 것의 억울함과 그로 인해 생긴 분노를 의적들이 풀어주고 달래주었기 때문이다.

동양에서 의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양산박에 모인 108명의 도적이다. 이들은 각자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갖고 양산박에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이들을 영웅호걸로 대했다. 이들을 다룬 이야기가 『수호전』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흥미를 일으키고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민중들이 사랑했던 유명한 도적들이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은 조선의 3대 도적으로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을 꼽았다. 이들 가운데 홍길동은 1500년을 전후해 서울 근처에서 활약했던 농민무장대의 지도자였다. 탐욕스러운 양반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던 농민들이 떠돌다가 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이들을 이끄는 도적의 우두머리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게 홍길동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소재로 허균이 쓴 소설이 그 유명한 『홍길동전』이다.

장길산은 조선 후기인 17세기 말에 활약한 도적 두목이다. 그는 광대 출신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무리를 이뤄 활약한 화적의 우두머리였다.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포상금을 거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으나 끝내 잡지 못했다. 이 장길산을 소재로 해서 소설가 황석영은 『장길산』이라는 소설을 썼다. 그리고 홍길동과 장길산의 중간 시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적이 있는데, 바로 양주의 임꺽정이다.

이익이 이들을 3대 도적으로 꼽은 것은 단순히 화적의 규모가 크거나 많은 재물을 훔쳐서가 아닐 것이다. 성호 이익은 이들이 단지 물건을 훔치는 도둑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가혹한 지배자에 대한 저항과 신분 해방 등의 주장을 통해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즉 백성들의 마음도 훔친 의적이기 때문에 3대 도둑으로 꼽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쩌서 도적이 되고 의적이 되었을까? 세상이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는 작은 도적은 있어도 의적은 태어나지 않는다. 의적이 태어나는 것은 사회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임꺽정이 활약했던 시기인 명종 때의 조선왕조실록인 『명종실록』에는 임꺽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좀 길지만 살펴보자.



임궡정 활동 시기의 『조선왕조실록』 기사(『명종실록』 14년 3월 27일)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오늘날 재상들의 탐오한 풍습이 한이 없기에 수령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력자들을 섬겨야 하므로 돼지와 닭을 마구 잡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런데도 곤궁한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렁이에 몸을 던져 요행과 겁탈을 일삼으니 이 어찌 백성의 본성이라? 조정이 청명하여 재물만을 탐하지 않고 어진 이를 수령으로 가려 뽑는다면 칼을 든 도적들이 송아지를 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군사를 거느려 추적하여 붙잡으려고만 한다면 붙잡은 대로 또 뒤따라 일어나 장차에는 다 붙잡지 못할 것이다. 『명종실록』 명종 14년 3월 27일.

그러니까 임궡정과 같은 의적이 태어나는 배경에는 백성들이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고, 도적이 많아지면 그들 가운데에서 의적이 생겨나는 그런 구조이다. 임궡정은 이런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양주지역에서 태어난 조선 최고의 의적 중 한 명이었다.

2. 백정의 아들이었던 임궡정의 삶

임궡정은 오늘날의 양주시에서 태어났다. 임궡정은 한자로는 임거정(林巨正)이라고 표기한다. 그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임궡정의 신분이 천민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임궡정의 아버지는 조선시대의 천민 가운데 하나인 백정이었다. 백정은 잘 알려진 것처럼 소나 돼지 등을 도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천민의 아들로 태어난 임궡정은 어릴 때부터 홀대받았는데, 심지어 마을 사람 모두가 먹는 우물물도 먹을 수 없어서 양주시의 명산인 불곡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먹고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임궡정의 몸집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 것은 불곡산의 물에는 광물질이 많은데 그것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임궡정은 덩치가 큰 청년으로 성장했다.

임궡정은 주변의 냉대와 핍박을 참지 못하고 19살에 도적이 되었다. 임궡정의 성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아마도 백정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억압과 차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인한 고달픈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분노 등이 그를 도적의 길로 내몰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임궡정은 얼굴에 털이 많아서 흔히 산도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진 청년이었다. 임궡정의 털과 수염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평안도의 한 장사꾼이 수십 명의 짐꾼을 거느리고 산을 넘기 위해 주막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얼굴에 털이 많고 수염이 긴 임궡정을 보았다. 그는 수염이 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궁금해 국수를 사 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임궡정은 수염을 양 갈래로 나눠 귀에 걸친 다음 순식간에 국수를 먹어 치웠다. 장사꾼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몇 그릇을 더 사 주었다.

얼마 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을 넘을 정도가 되자 장사꾼들이 산을 넘어가는데 수십 명의 화적이 나타났다. 그 화적들의 두령이 임꺽정이었는데 임꺽정은 자기에게 국수를 사 준 장사꾼을 알아보고 재물을 털지 않고 그대로 고개를 넘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불곡산의 물’ 과 ‘국수를 사 준 장사꾼’ 의 이야기를 통해서 임꺽정의 용모에 대해 대략적이거나 상상해볼 수 있다. 임꺽정은 덩수룩한 수염이 길게 자랐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

임꺽정이 살았던 시대의 진짜 도둑은 조정에서 우의정까지 올랐던 윤원형이었다. 그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문정왕후의 동생이었고, 임금인 명종의 외삼촌이었다. 윤원형은 이런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제 마음껏 사리사욕을 채웠다. 게다가 임꺽정이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던 황해도 지역의 핵심 지방관리들도 윤원형의 집안사람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백성들에게는 매우 고달픈 시대였다. 특히 황해도 지역은 극심한 흉년과 전염병으로 시체가 들판에 즐비할 정도였고, 생존에 위협을 느낀 농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돌다가 자연스럽게 도적이 되는 일이 많았다. 임꺽정도 그런 도적 가운데 하나였다. 날쌔고 용맹한 임꺽정은 자연스럽게 도적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임꺽정은 처음에는 지역에서 도둑질을 일삼다가 차츰 세력이 커지자 큰 시장이 있는 황해도로 향했다. 시장은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고, 그 때문에 놀이패와 도적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다. 임꺽정에 이어 훗날 장길산이 황해도를 거점으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황해도는 평양과 서울을 잇는 물류의 중심이었기에 물자가 풍부했다. 임꺽정은 황해도 구월산을 소굴로 삼아 주변 고을을 노략질했다.

임꺽정이 이끄는 화적은 황해도 일대의 관아를 습격해 창고에 쌓인 곡식과 재물을 약탈한 후 그것을 민중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의 호응을 얻

었다. 점차 상인, 대장장이, 노비, 아전, 역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꺽정의 동료가 되었고 그를 도왔다. 그래서 조정에서 임꺽정 무리를 잡으려고 해도 아전과 민중들이 미리 정보를 주어 도망치기도 했다.

이렇게 임꺽정 패거리가 민중들의 호응을 얻으며 민란의 성격으로 확대되자 1559년(명종 14) 3월 조정에서는 황해도 도적 소탕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임꺽정 무리를 반적(叛賊)이라고 규정했다. 반적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사회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임꺽정 무리에게 높은 현상금을 내걸고 토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임꺽정은 신발을 거꾸로 신어 발자국을 반대로 남김으로써 토벌대를 유인해 공격하기도 했다.

한편,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가짜 임꺽정을 내세워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한 예로 1561년 1월 황해도 순경사 이사증과 강원도 순경사 김세한이 임꺽정을 체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체포된 이는 임꺽정의 형 가도치였다. 이사증과 김세한은 그가 가도치라는 것을 알았으나 임꺽정이라고 허위 자백하도록 고문했고, 여의치 않자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들은 중형에 처해졌다.

또 의주 목사 이수철은 엉뚱한 사람을 거짓 자백시켜서 임꺽정이라고 속였고, 노파에게 임꺽정의 아내라고 자백할 것을 요구하며 인두질까지 했다가 파직 처리되기도 했다.

임꺽정은 쉽게 잡히지도 않았고 토벌되지도 않았다. 3년 이상 토벌대를 물리치고 도망 다녔다. 심지어 1560년 8월에는 서울에 나타나 그들을 잡으려고 하자 활을 쏘며 달아나기도 했다. 이후 대담해진 임꺽정은 서울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았다.

조정은 임꺽정을 잡기 위해 집집을 수색했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가두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자자했고 조정에서는 지방 관리에게도 임꺽정을 잡으라고 달달 북아댔으며, 지방에서는 임꺽정

을 잡는 데 많은 세금을 썼다.

마침내 임꺽정이 잡힌 것은 1562년 정월의 일이었다. 임꺽정의 참모였던 서림이 임꺽정을 알아보고 지목하는 바람에 붙잡힌 것이다. 임꺽정은 무려 3년 이상이나 관군을 따돌렸지만 사로잡힌 지 15일 만에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그의 체포와 죽음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한다.

3. 임꺽정과 양주지역

양주지역에는 임꺽정과 관련된 장소 여러 곳이 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임꺽정이 태어나서 자랐다고 하는 생가터이다.

임꺽정의 생가터는 불곡산 자락에 있는데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양주시 유양동과 백석읍 사이에 있는 불곡산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양주의 진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양주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 불곡산 깊은 곳에 임꺽정 생가터가 있다. 양주시청에서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양주관아지의 뒤쪽으로 난 불곡산 등산로를 따라가면 갈림길이 나오고 이정표가 나온다. 그 이정표를 따라서 산 깊이 들어가면 임꺽정 생가터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는 넓은 공터가 나온다. 비석에는 임꺽정 생가 보존비라고 적혀 있다. 그 비석 앞 넓은 공터가 과거 임꺽정이 태어났던 생가가 있던 곳이고 주변에 물이 흘러내리는 작은 계곡이 있다. 불곡산의 물을 마시고 장사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의 현장이다.

임꺽정은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고 도적이 되었다. 도적은 그 특성상 일정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떠돌아야 했고 주로 활동하는 곳이 산이었기에 그와 관련된 지역도 대체로 산과 관련이 깊다.

양주지역 산과 관련해서는 감악산에 임꺽정의 흔적이 남아 있다. 양주시



임꺽정 생가 이정표(왼쪽)와 생가 보존비(오른쪽)



임꺽정 생가터



감악산 정상 임꺽정봉(출처 클릭양주)과 표석



와 파주시 사이에 걸쳐져 있는 감악산에는 임꺽정봉이라고 불리는 봉우리가 있다. 정상과 장군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이다. 그곳에는 해발 676.3m 임꺽정봉임을 알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전망이 뛰어나다.

임꺽정봉 아래에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굴이 하나 있는데 예부터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임꺽정굴이라고 불렀다. 임꺽정굴은 절벽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옆에 두고도 찾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이 굴은 입구가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열 명이 기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나온다. 아마 이 굴이 임꺽정봉 아래에 있고 도적이 숨기 좋은 곳이라는 지형 때문에 임꺽정과 연결되었고 임꺽정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홍명희가 되살려낸 임꺽정

역사의 기록에 등장하는 임꺽정은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포악한 이미지였다. 역사 기록은 약자가 아닌 강자들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또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도 사회 지배층이었다. 따라서 강자인 사회 지배층이 그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지배자에게 저항했던 임꺽정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임꺽정이 대중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의로운 도적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벽초 홍명희가 쓴 소설 『임꺽정』이다. 홍명희는 사회주의자이자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로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부수상을 역임했을 정도로 정치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홍명희는 일제강점기인 1928년부터 10년에 걸쳐 조선일보에 소설 『임꺽정』을 연재했다. 홍명희가 일제강점기 때 임꺽정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은 그를 민족해방과 저항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홍명희는 임꺽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임꺽정은 옛날 봉건사회에서 가장 학대받던 백정 계급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슴에 차오르는 계급적 불만의 불길을 품고 사회에 반기를 든 것만으로 얼마나 장한 쾌거입니까?

벽초 홍명희가 신문에 연재한 소설 『임꺽정』 첫 회(『조선일보』 1928년 11월 21일)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 표지

인용문은 홍명희가 1928년에 『임꺽정』 연재를 시작하면서 『삼천리』 잡지에 했던 말을 읽기 편하게 현대말로 고친 것이다. 그의 평가는 임꺽정을 사회적 저항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연재가 순탄하지 못했다. 홍명희가 신간회 활동으로 구속되면서 연재는 중단되었는데, 소설을 연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총독부에 쏟아졌다고 한다. 이에 감옥 안에서 연재를 계속했는데, 당시 일본 관원들도 소설의 재미에 빠져 검열을 핑계로 먼저 돌려가며 읽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때 발표된 것 가운데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역사소설인 『임꺽정』은 저자인 홍명희가 북한을 선택한 이유로 오랫동안 발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체 5편 10권의 규모로 출간되었다. 『임꺽정』은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 각 1권씩과 「의형제편」 3권, 「화적편」 4권 등 전체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은 임꺽정을 중심으로 하는 도적패가 아직 결성되기 이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임꺽정이 태어난 집안과 가계, 그의 성장 과정이라는 개인적인 환경에 더해 연산군

때부터 명종 초기까지 조선 사회의 정치적인 혼란 등 역사적 배경이 묘사되어 있다.

「의형제편」은 훗날 임궫정과 함께 활약하는 주요 인물이 어떻게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도적패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화적편」은 임궫정과 그의 의형제들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러나 마지막은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소설은 끝난다.

한편 『임궫정』에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어린 이순신, 토정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 이름 높은 유학자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 등 역사적 인물이 많이 등장하며, 전국 8도의 사투리가 모두 등장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5. 임궫정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

임궫정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반영하듯 여러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총 5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 1편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처음으로 영화를 만든 것은 한국 영화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유명한 유현목 감독이 1961년에 만든 『임궫정』이다. 이 영화에는 당시 유명한 배우였던 신영균, 문정숙, 최무룡 등이 대거 출연했다. 이 영화는 양반의 횡포에 반기를 들고, 억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청석골에 모여 살게 하며, 의적단을 만들어 탐관오리를 무찌르고 백성을 구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유현목 감독이 임궫정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임궫정』 포스터



SBS TV에서 방영한 드라마 『임궫정』

그 이후에 1968년에 이규용 감독은 『천하장사 임궫정』을 제작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전편에 이어 신영균이 임궫정 역할을 맡았다. 그 후 코미디를 가미한 『박철수의 헬로 임궫정』(1987), 은희복 감독의 『오 내 사랑 임궫정』(1991), 로봇 태권V 제작자로 유명한 김청기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의적 임궫정』(1997)이 그 뒤를 이었다. 한

편 북한에서도 1993년에 『임궫정』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궫정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상물 가운데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SBS에서 1996년 11월에 시작해 1997년 4월까지 방영한 44부작짜리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는 당시 큰 화제를 낳았다. 600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출연진과 당시 거금이었던 총 50억 원에 이르는 제작비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화려했고, 월북한 작가로 유명한 홍명희의 소설을 토대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임궫정 역은 연극배우였던 정홍채가 맡았고, 당시 이름을 날리던 여러 배우들이 참여했다. 한편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배우들 모두 말타기와 무술을 익혔는데, 활을 쏘는 선비로 유명한 이봉학 역할을 맡은 차광수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국궁과 양궁을 1년 넘게 배웠다. 주인공 임궫정을 맡은 정홍채는 택견과 봉산탈춤을 섞은 칼춤을 개발했다고 전한다.

임궫정을 촬영하기 위한 세트장도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양주시 장흥면 기산저수지 주변이었다. 그러나 임궫정 촬영 세트장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드라마 속 주요 무대의 하나인 청석골은 강원도 철원에서 촬영했다.

4

양주 여행, 역사를 따라가는 길

1. 여행과 관광의 달라진 의미

오늘날의 여행과 관광이라는 말은 과거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 즉 과거에는 오늘날의 여행을 관광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의 관광을 여행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관광(Tourism, 觀光)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풍속과 풍광을 유람하는 것을 가리켰다. 관광이라는 말의 어원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주역』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용빈우왕(觀國之光利用賓于王)”이다. 한 나라의 사절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 왕을 알현하고 자기 나라의 문물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관찰하게 하는 의전을 의미한다. 즉 관광은 훌륭한, 아름다움, 자랑스러움을 본다는 뜻이었다.

영어로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은 돌아다닌다는 뜻을 지닌 tornus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즉 즐거움을 위한 단기간의 여행을 의미했다. 한편 여행을 뜻하는 travel은 기둥을 박은 고문 기구에서 유래했는데, 그 말은 여행

이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관광은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며, 여행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고 구분했다.

그래서 과거의 여행과 관광은 귀족을 비롯한 지배층이 종교적 수련을 목적으로 다니던 행위였다. 따라서 주로 역사적인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인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오늘날의 여행과 관광은 과거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다. 최근 여행과 관광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행을 통해 역사를 만나고 삶을 배운다는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를 토대로 답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점에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고 여러 역사적 유적을 품고 있는 양주지역은 좋은 여행과 관광지가 된다. 즉 관광의 본래 의미인 훌륭한 것과 아름다우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나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역사를 토대로 하는 몇 가지 주제로 양주지역의 여행과 관광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2. 양주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양주지역에는 곳곳에 반짝이는 역사적 보물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보물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것 몇 가지를 찾아 코스를 짜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경로의 기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다. 또 능과 산성, 절터, 옛집, 자연 등 다양한 소재의 역사와 만날 수 있다.

온릉 → 대모산성 → 회암사지 → 매곡리 고택 → 황방리 느티나무

이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 볼 곳은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



온릉 전경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임을 알리는 표석



온릉 입구 홍살문과 정자각



온릉 제실

인 온릉으로, 장흥면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을 가리킨다.

온릉은 1506년 중종이 즉위하여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7일 만에 폐출된 단경왕후의 무덤이다. 단경왕후의 폐출은 그의 고모가 연산군의 비였고, 아버지가 연산군의 매부였는데, 이들이 연산군을 축출할 때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폐위된 단경왕후는 이후 남편 중종을

그리워하며 한평생을 마쳤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신씨 집안의 묘역에 묻혀 있다가 영조 때 복원이 되면서 왕과 왕비의 무덤을 가리키는 능의 이름을 받았다.

온릉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오랫동안 공개되지 못하다가 2019년 11월 14일에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했던 단경왕후를 이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문화재청에서는 온릉을 소개하면서 “중종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왕비의 능” 이라고 표현했다.

온릉은 계절에 따라 여러 얼굴을 보여주는데 언제 찾아도 능 주인의 삶처럼 고즈넉함과 외로움이 찾는 사람의 발길을 감싸 안는다.

위치	관람안내	매표시간	지정번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09:00~18:00 • 하절기(6~8월) 09:00~18:30 • 동절기(11~1월) 09:00~17:30 • 휴관일 : 월요일 	입장 시간부터 관람 시간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세계유산

온릉이 늦가을의 정취처럼 쓸쓸함을 품고 있다면 격렬함을 품고 있는 곳으로는 백석읍 방성리의 양주산성이라고도 불리는 대모산성이 있다. 국가사적 제526호인 대모산성은 삼국시대에 쌓은 성으로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양주지역을 상징하는 산성이다.

대모산성은 양주지역의 중심에 있는 불곡산과 호명산 사이에 있는 해발 213m의 구룡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다. 정상에 넓은 평지가 있어서 공간 활용이 편리한 산성이다. 오늘날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진 상태이지만 전체 길이가 718m에 이르고 여러 차례의 발굴을 통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대모산성은 양주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즉 삼국시대에 삼국의 쟁탈전이 되었던 양주지역의 지리적 배경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대모산성에서 바라 본 풍경



회암사지 전경(좌), 회암사지
알림판

대모산성은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또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정상을 따라 나 있는 성곽의 흔적을 따라 걷는 길도 고대 역사길을 함께 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 곳곳에 과거에 문이 있었던 안내 표지판이 있으며, 대모산성에서 바라보는 주변 풍광도 매우 뛰어나다.

그렇기에 가벼운 산행을 한다는 느낌으로 삼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잠잠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깊이 바라보면 역사의 격렬한 고향과 외침이 들어오는 듯한 격한 현장도 느껴볼 수 있다.

□
□
□
대모산성 가는 길
대모산성 알림판
대모산성 잔존 성벽

위치	규모	교통정보	문의	지정번호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	높이 4~5m, 성벽 둘레 약 1.4km, 면적 57,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주역(1호선)에서 시내버스(18번, 2-4B번, 3-3번)로 20분 의정부IC에서 승용차로 20분 	031-8082-4114	사적 제526호



양주에서 가장 화려한 보물은 회암사지에 몰려 있다. 회암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왕실과 깊은 유대를 맺으며 여러 면에서 전국 최고의 사찰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절터만 남아 회암사지가 되었다. 한편 절터 입구에는 회암사지박물관이 있고, 뒤편 천보산으로 올라가면 1977년에 새롭게 법당을 지은 회암사가 있다.

회암사지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중기에 이르는 불교문화뿐만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그의 스승 무학대사의 이야기, 유학과 불교의 다툼과 관련한 왕실의 비호와 유생들과의 대립 등 다양한 정치·문화적 요소가 얽혀 있는 곳이다.

회암사지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절터 안에 국가 지정 보물 4개가 있으며, 경기도에서 지정된 문화재도 6개가 있다. 그야말로 문화의 보물창고이다. 또 회암사지박물관에서는 회암사를 둘러싸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의 생생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위치	교통정보	입장료·주차료	지정번호
경기 양주시 회암동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덕정역(1호선)에서 시내버스(78번, 80번, 11번, 75번, 76번)로 30분~50분 양주IC에서 승용차로 3분 회암사지박물관에서 도보 8분 	무료	사적 제128호



매곡리 고택과 안내관



이번에는 옛집을 찾아간다. 남면 매곡리에 있는 매곡리 고택이 그곳이다. 매곡리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지정되어 있다. 이 집은 조선 말기 세상이 어지러울 때 명성황후가 은신처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집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집이 매우 세련되고 단단하며 당시 궁궐 건축의 특징을 살려서 지은 집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명성황후가 거주한 적은 없다. 또 아쉽게도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고 현재는 안채만 남은 상태이다. 고택이 있는 매곡리는 수원 백씨의 집성촌으로 현재 소유자인 백수현의 이름을 따서 달리 백수현 가옥이라고도 불린다.

매곡리 고택은 백인걸의 묘역, 빗집바위라는 수원 백씨와 관련된 역사적 유적과 함께 집성촌이라는 역사적 흔적, 조선 말기 명성황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 등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이다.

위치	규모	교통정보	지정번호
경기 양주시 남면 휴암로443번길 65	2,739㎡	• 은현IC에서 승용차로 20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28호



황방리 느티나무와 밀동



조소양기념관 전경과 복원 생가



역사 기행의 마지막은 남면 황방리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느티나무이다. 이 느티나무의 수령은 850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황방리 느티나무는 고려시대부터 살아오면서 양주지역의 역사를 지켜본 증인이다. 황방리 느티나무는 과거 황방리에 살던 밀양 박씨의 조상이 심은 나무로 알려져 있다. 높이가 27m에 이르고 둘레가 8.4m인 양주의 역사를 닮은 거대한 나무이다.

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느티나무는 예부터 수명이 길고 잘 자라 마을 입구에 많이 심었다. 흔히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로 많이 활용된 것도 느티나무였다. 이렇게 보면 수령이 850년에 이르는 황방리 느티나무는 양주지역을 지키는 당산나무와 같은 존재와도 같다.

황방리 느티나무 주변에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양 선생의 옛 집터와 기념관이 있다. 황방리 느티나무와 조소양기념관은 말끔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역사를 마음에 담고 가볍게 거닐기 좋은 장소이다.

위치	수령	규모	교통정보	지정번호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항방리203-3	850여 년	높이 21m, 가슴 둘레 7.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역(1호선)에서 시내 버스로 환승하여 40분 • 의정부IC에서 40분 • 은현IC에서 10분 	천연기념물 제278호

3. 양주의 역사 속 인물을 만나러 가는 여행

양주의 오랜 역사만큼 이를 장식한 인물 또한 너무나도 많다. 이들 가운데에는 양주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양주지역에 묻힌 사람도 있으며, 양주지역에 흔적을 남긴 사람도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몇 사람을 찾아가 양주지역이 통과해온 역사의 흔적을 만나보려고 한다. 먼저 양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부터 만나본다.

양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연과 조선 최고의 의적이었던 임꺽정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먼저 삿갓을 쓰고 평생을 고단한 방랑을 계속했던 김병연부터 살펴보자.

1) 양주에서 태어난 김삿갓과 임꺽정

김병연은 오늘날의 양주시 회암동에서 당시 최고 명문 집안이었던 안동 김씨의 후예로 출생했다. 그가 태어난 생가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김병연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집안이 몰락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그는 지방에서 치른 향시에서 할아버지를 비난

김삿갓 풍류길 입구(좌)와 김삿갓 벽화 거리(우)



김삿갓 쉼터(좌)와 김삿갓교(우)



하는 글로 급제를 했다. 할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은 한 사건은 흥경래의 난이었다.

자기가 과거시험 때 비난한 사람이 할아버지임을 나중에 알게 된 그는 하늘을 볼 수 없다며 큰 삿갓을 쓰고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그래서 김병연이라는 본명보다는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1만여 편의 시를 썼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전하는 것은 456편이다.

김삿갓은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조선의 쓸쓸한 뒷모습을 상징하는 지식인이었다. 당시 조선은 안동 김씨의 세도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세상은 어지러웠다. 김삿갓은 그런 사실을 고발하기도 하고 자조하기도 했다. 시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한강 이북, 즉 한북(漢北)이라고 밝혔던 김삿갓은 죽어서 영월에 묻혔다.

한편 양주에는 김삿갓 풍류길이라는 숲길이 3구간으로 나뉘어 조성되어

있다. 그곳에 김삿갓 벽화 거리와 김삿갓 쉼터, 김삿갓교 등이 있어서 김삿갓의 굴곡진 삶을 만날 수 있다.

임꺽정 또한 양주에서 태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간 인물이었다. 오늘날 유양동에 속한 불곡산 자락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임꺽정은 천민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을 이기지 못하고 도적이 되었으며 세력을 얻으면서 황해도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



임꺽정 생가터

대까지 신출귀몰하며 부자와 관아를 털어서 재물을 일반 백성에게 나누어 의적으로 칭송을 받았다. 임꺽정은 몇 년 동안 관군을 따돌렸으나 결국 잡혀서 참수되고 말았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조선 명종 때 윤원형을 중심으로 하는 세도가들의 만행과 횡포로 점철되었던 역사의 단면을 통해 부패한 권력자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진다. 임꺽정의 역사적 흔적을 만나기 위해서는 양주 관아지 뒤쪽의 불곡산 자락에 있는 임꺽정 생가터를 찾으면 된다.

2) 양주에 흔적을 남긴 미수 허목과 추사 김정희

김삿갓과 임꺽정은 양주에서 태어난 유명인이었다면 양주지역을 지나며 흔적을 남긴 유명인으로 허목과 김정희를 꼽을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바위에 단단히 자기들의 흔적을 남겨 두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장흥면 삼하리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산길을 따라가면 ‘노고산독재동추사필적암각문’이라는 이정표가 나오고 좀 더 가면 여러 글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 계곡이 펼쳐진다. 그곳에 허목과 김정희의 흔적이 있다.



추사 김정희 암각문

아름다운 눈썹으로 유명해 그것을 자기의 호로 삼은 미수 허목은 조선 중기의 학자였다. 허목은 신비한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전서체 글씨로 유명하며 전국 여러 곳에 자기의 흔적을 남겼다. 강원도 동해의 ‘척주동해비’, 연천 임진강의 ‘괘암 미수’ 등과 더불어 장흥면 삼하리에 ‘미수선생장구지소(眉叟先生杖履之所)’라는 글씨가 남아 있다.

이 글은 허목이 아니라 그의 제자인 이시선이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글의 의미는 미수, 즉 허목이 지팡이를 들고 짚신을 신고 왔던 곳임을 가리킨다. 즉 허목이 제자와 함께 노고산 깊은 계곡까지 찾아왔음을 알려준다. 흥미로운 것은 위의 글이 있는 곳에서 계곡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 조선 최고의 명필로 꼽히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고산독재동추사필적암각문’이라는 긴 이름으로 불린다. 그곳에 추사의 글씨체로 ‘몽재(夢齋)’라는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으며, 글씨 아래에 추사라는 명문이 있어 김정희의 필적임을 알려준다.

이 계곡에는 이들 두 개의 글씨 외에도 여러 암각문이 흩어져 있다. 따라서 이 계곡을 찾으면 여러 명문을 찾아내는 숨은그림찾기와 같은 재미와 함께 옛 선비들이 탁족을 하며 시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시감을 얻을 수 있다.

3) 죽어서 양주에 묻힌 남을진, 백인걸, 권을

마지막으로 죽은 다음 양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만나보자. 양주지역은 한양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유로 많은 인물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 특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살펴



1	2
3	4
5	6

1. 남을진 선생이 머물렀다는 남선굴
2. 남을진 선생을 모신 사당 정절사
3. 빗집바위에 새긴 '수원백씨각처선농기'
4. 백인걸 선생 신도비 비각
5. 권율 장군 묘역
6. 권율 장군 묘역 안내판

본다. 시대 순서로 살펴보면 먼저 남을진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고려의 신하였는데 조선이 건국하고 벼슬길에 나올 것을 권유받자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 끊임없이 출사를 권하자 남을진은 감악산에 있는 남선굴에 들어가 먹지도 않고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오늘날 은현면 봉암리에 남을진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신도비와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절사라는 사당이 있다. 정절사에서는 남을진 선생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향제가 해마다 거행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백인걸이다. 백인걸의 묘역은 광적면 효촌리에 있다. 백인걸은 남면 매곡리를 비롯해 일대에 큰 일가를 이루었던 수원 백씨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의 묘역은 넓고 단아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차분함을 원하는 여행지로 적합하다.

또한 수원 백씨의 유적과 관련해서는 광적면 덕도리에 있는 빗을 꽂아두는 빗집을 닦았다고 해서 붙여진 빗집바위도 있다. 빗집바위에는 넓은 바위에 「수원백씨각처선농기」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양주지역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는다면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행주대첩으로 널리 알려진 권을 장군일 것이다. 지금도 쓰는 행주치마라는 말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권율은 백인걸보다 조금 늦게 세상에 나온 인물로 조선을 뒤흔든 임진왜란 때 여러 차례의 승전을 통해 왜군을 무찌르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권율 장군의 묘는 장흥면 석현리에 있다. 석현리를 지나는 도로는 권율의 이름을 따서 권율로로 불린다. 권율 장군 묘역에는 권율 장군에 더해 두 아내와 형, 아버지의 묘가 함께 모여져 있다. 또 묘역 아래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권율 장군 묘역은 장흥유원지 내에 자리하고 있고 주변에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등이 있어서 역사와 문화가 교차하는 나들이 장소라고 하겠다.

4. 행정과 교육의 역사적 공간을 찾아가는 여행

오늘날 행정을 담당하는 곳은 시청이고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학교이다. 과거에는 관아와 향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양주지역에는 관아와 향교가 남아 있다. 먼저 관아부터 찾아가 보자.

1) 양주 목사가 업무를 보던 매학당, 양주 관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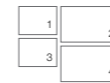
양주의 관아는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으며, 옛 관아가 있던 곳인 관아지가 있다. 유양동 불곡산 아래에 있는 현재의 관아지는 과거 양주 목사의 정청이었던 매학당이 있던 곳이다. 매학당은 목사가 정무를 보고 가족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크기는 20칸 정도였다.

양주 관아는 1506년 현재의 위치에 세워져 1922년에 이전할 때까지 무려 417년 동안 양주목을 다스리던 관청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건물은 모두 사라졌고 현재는 일부를 복원한 것이다. 『경기읍지』에 따르면 당시 관아는 31개의 시설에 326칸에 이르는 대규모 건물이었다고 한다.

관아지 한편에는 과거 양주목사들의 송덕비를 한곳에 모아놓은 곳이 있다. 이들 비석은 원래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이다. 모두 18개의 비석이 있는데 이 가운데 17개가 목사의 선정을 칭찬하는 선정비이고 1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유허비이다.

2) 조선시대의 국립학교 양주향교

양주 관아지 옆 송덕비군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무형문화재 통합공연장이 나오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양주향교가 나타난다. 향교는 요즘으로 하면 국립학교에 해당한다. 참고



1. 양주 관아지에 일부 복원한 관아
2. 양주 관아지 옆 송덕비군
3. 양주향교 외삼문
4. 양주향교 앞 보호수 안내판

로 서원과 서당은 조선의 사립학교였다.

양주향교는 1401년에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불탔고, 1610년에 재건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다시 불탔다. 현재의 향교는 1958년에 양주지역의 유림이 복원해서 새로 지은 것이다. 향교 앞에는 500년이 된 느티나무가 오랜 세월을 견디고 서 있다.

양주관아지와 양주향교는 유양동 불곡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서 찾아가기 쉽다. 또 이들 사이에 양주가 자랑하는 무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이 있어서 역사에 더해 문화도 즐길 수가 있다.

5

유원지, 즐거움과 추억을 위한 공간

1. 일상을 벗어난 놀이 공간

유원지는 오락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놀이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야외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원지는 일반적으로 야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 안이나 도시에서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생긴다. 따라서 유원지가 조성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통 편의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경인선 철도가 생기면서 인천의 송도유원지가 등장하고,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를 운행하는 교외선의 영향으로 철도역 주변에 양주지역을 대표하는 장흥유원지, 송추유원지, 일영유원지 등이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다.

흔히 유원지는 산과 물이 좋은 계곡형, 접근성이 뛰어난 평지형, 물놀이가 중심인 수변공간형으로 나뉜다. 계곡형 유원지는 오랫동안 보존된 아

름다운 산림환경을 바탕으로 역사·사회문화적 배경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생태나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활동이 주를 이룬다. 평지형 유원지는 어린이나 가족을 동반한 사람들이 쉬기 편한 잔디광장이나 놀이동산처럼 여러 놀이시설을 가진 유원지를 가리킨다. 근래에는 사계절 즐길 수 있도록 실내 놀이공원이나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공간을 갖추는 추세이다. 수변공간형 유원지는 물놀이의 증가와 함께 보트나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 스포츠의 발달, 수영장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유원지 형태이다.

예전에는 자연을 활용한 계곡형 유원지가 인기를 끌었으나 차츰 평지형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물놀이 관련 장비의 발달로 수변공간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유원지나 쇼핑 등이 더해진 복합문화공간도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유원지는 과거의 것과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관광단지나 테마파크, 놀이공원 등 새로운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새로운 유원지들은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되면서 자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과거의 유원지를 대체하고 있다.

양주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이 많아서 일찍부터 유원지가 발달했다. 특히 장흥면은 조선시대에 왕의 사냥터로 활용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왕들이 지금의 장흥면 지역으로 사냥을 나왔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한편 양주지역, 특히 장흥면에 여러 개의 유원지가 들어선 것은 서울 교외선의 개통과 맞물린다. 1963년 8월 경의선의 지선으로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의정부를 동서로 잇는 총연장 31.9km의 철도다. 개통 당시에는 능곡과 의정부를 잇는다고 해서 능의선이라고 불렸다. 서울역을 출발해 신촌, 수색, 능곡, 의정부를 지나 성북역과 청량리를 거쳐 서부역으로 돌아오는 순환선이었다. 능곡과 의정부 내에는 보통역 1곳과 간이역 6곳이 있었으며, 하루 6회 왕복 운행했으나 2004년 4월 1일 운행이 중단되었다.



장흥유원지를 활성화시켰던 장흥역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 방탄소년단의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일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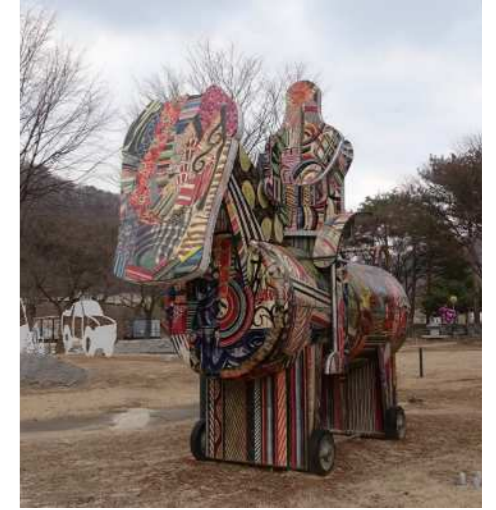
이 교외선은 양주지역의 유원지를 모두 지났다. 즉 일영역과 일영유원지, 장흥역과 장흥유원지, 송추역과 송추유원지를 경유한 것이다. 이렇게 교외선이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장흥면에 있는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유원지 또한 크게 활성화되었다.

한편 양주지역의 유원지는 1960년대부터 유원지가 발달한 탓에 여러 유형 가운데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계곡형 유원지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차츰 한국사회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양주지역에 있는 유원지도 두리랜드와 같은 시설 중심 유원지로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교외선의 운행 중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다른 지역에 테마파크와 놀이동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원지가 생겨나면서 양주지역의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나마 2024년 재개통을 목표로 고양 능곡과 의정부를 잇는 교외선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대로 철도 운행이 재개되면 양주 장흥면에 있는 유원지의 활성화



장흥유원지 계곡



장흥유원지 야외조각공원 '돈키호테'

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장흥유원지

장흥유원지는 양주지역을 대표하는 유원지로 장흥면에 자리하고 있다. 형제봉과 일영봉 사이의 골짜기인데,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가는 산길이 있었고 왕들이 자주 사냥을 나오던 곳이다. 이 골짜기에는 밤나무와 굴참나무, 소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울창한 숲이 있고, 그 숲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 유원지로서의 입지가 매우 뛰어나다. 또한 곳곳에 숲과 계곡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야영장과 상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으며 장흥 국민관광단지라고도 불린다.

장흥유원지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교외선이 개통된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장흥유원지의 기점인 장흥역은

일영역과 온릉역 사이의 역으로, 1965년 7월 21일 무배치간이역으로 설치되었다가 1967년 9월 1일 을종승차권대매소(철도승차권 위탁발매소)로 지정되었다. 장흥역 설치 후 장흥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흔히 장흥유원지라고 하면 지금은 폐역이 된 장흥역이나 장흥면사무소에서 석현천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6~8km에 이르는 계곡과 그 계곡을 중심으로 형성된 명소, 카페, 음식점 등을 가리킨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도로는 이곳에 있는 권율 장군의 묘에서 이름을 따서 권율로라고 부른다.



국내 최초의 사설미술관 토탈미술관으로 출발한 장흥가나아트파크

숲과 계곡이 아름다운 권율로를 따라가다 보면 권율 장군 묘역 외에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장흥아트파크, 청암민속박물관, 두리랜드 등의 명소가 있고 곳곳에 아름답게 치장한 카페와 다양한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다. 장흥유원지의 특징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광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여럿 있어서 문화적인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가운데 과거 장흥유원지를 상징하는 곳으로 현재는 장흥가나아트파크로 이름을 바꾼 토탈미술관을 들 수 있다. 토탈미술관은 1984년 10월 국내 최초의 사설미술관으로 장흥유원지 내에 문을 열었다. 토탈미술관은 장흥유원지의 초입에 위치해 당시 대학생의 유명한 MT 장소나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던 장흥유원지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토탈미술관은 2006년 장흥가나아트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공간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상태이다. 그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청암민속박물관



배우 임채무가 설립한 어린이 테마파크 두리랜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전경

옛 장흥역이나 장흥면사무소에서 출발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은 1999년에 개장한 청암민속박물관이다. 청암민속박물관에는 말 그대로 민속품, 즉 과거에 사람들이 쓰던 많은 물건이 전시되어 있어서 어릴 때를 회상하거나 과거의 모습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 과거의 모습을 찾아 즐기는 움직임과 관련해 인기를 끌고 있다.

청암민속박물관에서 조금 권율로를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에 두리랜드가 나타난다. 두리랜드는 장흥유원지 내에 등장한 어린이 테마파크로 1990년 5월 1일에 개장했다. 두리랜드는 배우 임채무가 유원지에서 어른들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노는 동안 아이들이 방치되는 걸 보고 놀이공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겨서 개장한 놀이공원이다.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았으나 곧 입장료를 없앴으며, 가족 단위의 많은 관람객이 찾았다.

두리랜드는 철저하게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2006~2008년에 경영난과 자연재해로 잠시 폐장했다가 다시 개장하였으며, 2017년에 다시 문을 닫았다가 2020년에 새 단장을 하여 문을 열었다.

장흥유원지의 명소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공간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2014년 9월 서양화가 장욱진(1917~1990)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건립되었다. 장욱진은 현대미술사에서 한국적 추상화를 확립한 거장의 한 명으로 평가를 받은 뛰어난 화가이다. 장욱진은 가족이나 나무, 아이, 새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소재를 주로 다룬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술관에서는 전시 외에도 여러 미술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술관 옆의 야외조각공원에는 여러 흥미로운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미술관과 함께 가족 나들이하기에 좋은 공간이다.

3.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있는 계곡, 송추유원지



송추계곡(출처 양주시랑)

송추유원지는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계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송추(松楸)라는 말은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이곳에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외에도 갈참나무, 당단풍나무, 국수나무 등으로 구성된 숲이 울창하다.

송추유원지의 중심인 송추계곡은 도봉산의 줄기인 오봉산 기슭에서 약 4km 정도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이다. 송추계곡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잇는 39번 국도와 이어져 있다. 송추계곡은 1950년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63년 교외선 철도의 개통에 더해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사패산과 오봉산으로 가는 등산 코스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았고, 이들을 상대하는 여러 놀이시설과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송추유원지는 뛰어난 자연환경 때문에 1980년대부터 데이트, 수련회, 모임 장소 등으로 많이 활용되었고,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원지 내의 편의시설도 찾아오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다. 다만 송추유원지가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있고 1983년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이 제한되어 가까운 곳에 있는 장흥유원지와 달리 진입로가 협소하고 편의시설이나 명소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맑고

시원한 숲과 계곡을 만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송추유원지는 주변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나고 송추IC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2024년 교외선이 재개통되면 도시의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기차역과 봉우리 사이의 일영유원지

일영유원지는 장흥면 삼상리에 걸쳐있는 일영역과 일영리에 있는 일영봉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일영(日迎)이라는 말은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이며, 일영유원지는 교외선 일영역과 가깝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영유원지는 삼상리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공룡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북한산 줄기에서 뻗어 내린 노고산을 등에 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따라 형성되었다. 개울 주변의 숲은 밤나무와 활엽수림이 주종을 이루며 1년 내내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이렇게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일영유원지는 주변의 장흥유원지나 송추유원지보다 늦게 개발되었다. 교외선이 개통된 이후 사람들이 몰리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일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활성화되어 유원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즉 1970년대 초반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맑은 공룡천과 장포골을 찾아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이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유원지로 발전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80년대이다. 1984년 수도권 시범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변에 잔디광장 및 야영장이 조성된 것이다. 일영유원지가 전성기를 누린 것은 1990년대 이후 주말 관광객이 늘어나고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이 찾는 유원지가 된 이후였다.



일영유원지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출처 양주시청)

그러나 2004년 교외선 철도의 운행이 중단되고 수도권 곳곳에 테마파크와 놀이공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일영유원지가 과거에 누렸던 명성은 약해졌다. 다만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주변을 지나가고 서울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영유원지를 찾는 발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6

양주 체험, 질은 문화의 향기가 있는 관광

1. 체험과 휴식을 위한 관광

오늘날 여행과 관광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체험이다. 예전의 여행과 관광은 여기저기를 관람하거나 역사적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고 고된 여행을 통한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맛집 기행, 장기 체류, 실제 참여 등 오감을 활용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여행과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다. 즉, 여행과 관광을 통해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관람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여행과 관광의 주역으로 아이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 단위의 여행이나 관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이들이 주축인 가족 여행은 재미를 추구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여기에 소득이 증가하고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좀 더 깊고 넓은 여행이나 관광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여행이나 관광의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선택지도 많아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 요소를 관통하는 주제를 고른다면 그것은 바로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는 체험에 더해 도시에서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휴식이다.

이런 변화는 관광지 모습도 바꾸어놓았다. 기존의 박물관과 같은 건물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야외나 삶의 생생한 현장 중심 공간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박물관도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박물관을 찾은 사람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여기에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양주지역에는 이런 현대 체험관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들이 산재해 있다. 체험과 휴식이 포함된 양주지역의 관광지를 짚지어 살펴본다.

2. 꽃과 향기가 있는 양주 관광, 나리농원과 숲길 정원

1) 아름다운 꽃향기의 향연, 나리농원

양주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을 고르라면 양주의 중심인 불곡산이 멀리 보이는 나리농원이 첫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나리농원은 보라색을 비롯해 붉은색과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천일홍으로 유명하다. 12만 4,708㎡(37,000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나리농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천일홍 군락지이다.

천일홍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으나 이름처럼 오랫동안 모습을 유지



나리농원 천일홍



나리농원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핑크몰리

하면서 찾는 사람을 반기는 꽃이다. 천일홍은 이 오래가는 특성 때문에 꽃다발이나 드라이 플라워에도 많이 사용된다. 처음 피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꽃이 천일홍인데, 그 때문에 꽃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천일홍은 7~10월 사이에 피며, 이 시기에 천일홍의 천국 나리농원에서는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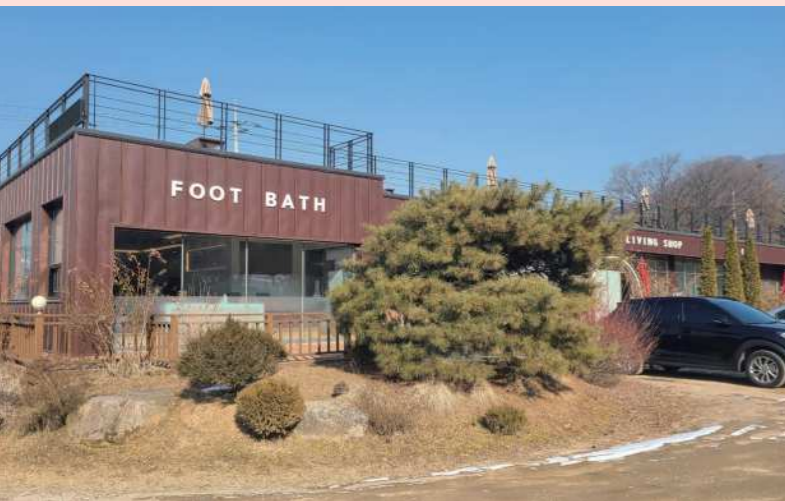
나리농원에는 천일홍만 있는 게 아니다. 천일홍 외에도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몰리도 한껏 피어 있고, 수련, 구절초, 장미 등 다양한 꽃들이 예쁜 얼굴을 내밀고 있다. 특히 핑크몰리 꽃밭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넓은 곳에 조성되어 있다. 나리농원의 꽃밭 사이로 나 있는 길을 따라 거닐다 보면形形色색의 꽃이 눈동자에 가득 찬다.

2) 편안한 힐링 체험 공간, 숲길정원

나리농원이 아름다운 꽃과 그 향기로 즐거운 체험 공간이라면 편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숲길정원이 있다. 숲길정원의 옛 이름은 일영 허브랜드였다. 2021년에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개장한 숲길정원은 허브가든과 넓은 정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인공과 자연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진 곳이다.

약 5,000평에 이르는 숲길정원은 이름 그대로 너른 숲과 정원 사이로 산책로가 있고 카페가 있다. 과거 허브랜드였던 때문인지 다양한 식물이 정원 곳곳에 자라고 있고, 허브로 만든 차를 비롯하여 비누와 향수 등도 판매한다. 주차료와 입장료를 받지 않는 숲길정원은 숲과 정원 외에 허브족욕 카페, 베이커리 카페, 허브리빙 숍과 패션아울렛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을 거닐다가 쉬고 싶으면 빵과 함께 카페에서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특히 마늘빵은 베이커리 카페의 대표 메뉴로 인기가 높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허브식물원과 허브힐링센터이다. 허브식물



양주 숲길정원의 다양한 체험 시설

원은 크지 않지만 작고 예쁜 다육 화분이 많아서 구경과 구매도 가능하다. 식물원 안에는 허브 향을 뽑어내는 식물로 가득하다. 또 허브힐링센터에서는 넓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며 즐기는 족욕과 반신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족욕과 반신욕 등의 체험은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

숲길정원은 이름에서 느껴지듯 자연을 마음껏 체험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험과 휴식이 공존한다. 그래서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기에 매우 좋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주변을 지나고 있어서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3. 특별함을 체험시켜주는 마을

양주지역에는 농촌의 전통문화를 한껏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남면 매곡리의 맹골마을, 장흥면 삼하리의 천생연분마을, 그리고 장흥면 삼상리의 전원일기마을 등이 그곳이다. 먼저 맹골마을부터 찾아가 본다.

1) 맹골마을의 전통문화 체험

맹골마을은 매곡리의 주산인 매봉재에서 본 마을의 모습이 매가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해서 '매곡', '맹골' 이라고 불리게 된 마을이다. 80여 호가 모여 사는 전통 마을로 맑고 깨끗한 자연과 오랜 전통이 어우러진 농촌 마을이다.

맹골마을은 2004년 접경지역특화마을, 2007년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이후 체험과 휴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주민의 절반이 수원 백씨로 단합이 잘 된다는 점과 과거부터 전해지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



남면 매곡리 맹골마을 발효음식 체험장



맹골마을 발효음식 체험장의 향아리

기 때문이다.

맹골마을에서 행해지는 체험을 지역에서는 ‘맹골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맹골체험에는 발효음식 체험, 한지와 칠보 체험, 전통주와 떡 만들기 체험, 농사와 숲 체험, 미술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 발효음식 체험은 맹골마을에서 수확한 콩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효·숙성시키는 과정을 배우는 체험이다. 이 체험은 오늘날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집에서 된장이나 고추장 등을 직접 담그지 못하는 도시민에게 건강한 전통을 느끼는 기회가 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직접 먹어보는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한지와 칠보 만들기 체험은 맹골마을 체험장 2층에 있는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한지와 칠보를 직접 만들며 미적인 감각과 예술적 감성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체험이다. 한지로 등을 만들거나 칠보로 목걸이나 거울을 만들 수도 있다.

전통주 체험은 수원 백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빻은 유서 깊은 전통주를 만드는 체험이다. 맹골 전통주의 특징은 밀 누룩만이 아니라 쌀

누룩을 빻어 밀 누룩과 섞어 술을 만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른 전통주보다 색깔이 맑고 향이 좋다. 전통주와 함께 맹골마을에서 생산한 쌀을 이용해 입과 눈이 즐거운 전통적인 떡을 만드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체험으로는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체험, 마을에 머물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사 체험이 있다. 또 자기가 직접 사용할 생활 용품을 나무로 만드는 목공놀이, 자연에서 얻은 천연염료를 활용한 염색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2) 천생연분마을의 연꽃체험

남면에서 장흥면으로 이동하면 삼하리와 삼상리에 각각 천생연분마을과 전원일기마을이 있어서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천생연분이라는 독특한 마을의 이름은 마을에 연꽃이 많은 것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연꽃을 이용한 체험 행사가 많이 진행된다.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노고산 자락에 있는 천생연분마을은 서울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에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게다가 인근에 장흥유원지, 송추유원지, 북한산국립공원 등이 있어서 천생연분마을과 연계해 다양한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천생연분마을에서 진행되는 체험은 통칭 ‘연꽃체험’이라고 부르고 계절에 따라 나눈다. 즉 봄에는 감자와 고구마, 땅콩을 심는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여름에는 물놀이와 물고기 잡기, 그리고 봄에 심은 감자 캐기가 진행된다. 가을에는 고구마·무·땅콩 캐기와 밤 따기, 수세미 수확 및 수세미즙 만들기, 겨울에는 김장 체험과 썰매 타기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계절과 상관없이 노고산에서 수확한 도토리료로 도토리묵 만들기, 자전거 타기, 노고산 등산, 도자기 만들기, 다식과 부꾸미 만들기 등이 일상



장흥면 삼상리 천생연분마을 풍경과 각종 체험(출처 일부 천생연분마을 홈페이지)

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가족과 함께 농사를 체험하고 자연 학습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유기농법으로 건강한 채소를 직접 키울 수 있다. 가득 핀 연꽃처럼 아름다운 천생연분마을은 뛰어난 자연환경을 배경 삼아 다양한 체험행사가 있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휴식이 가능한 마을이다.

3) 전원일기마을과 이야기 상자

천생연분마을과 멀지 않은 장흥면 삼하리에는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색적인 마을이 있다. 바로 전원일기마을이다. 마을 이름은 198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방영되어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MBC 드라마 「전원일기」를 촬영한 지역이라는 것에서 유래했다. 다만 이 마을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것은 처음 10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을 곳곳에는 드라마 「전원일기」와 관련 있는 사진, 벽화, 조각 등이 존재한다.

전원일기마을도 천생연분마을과 마찬가지로 체험 마을이다. 마을을 찾는 여행객이 먼저 찾는 드라마와 관련된 곳은 ‘이야기 상자’라는 곳이다. 이곳에는 드라마를 만든 사람부터 출연자, 세트장, 촬영지 등 다섯 가지 상자로 전시되어 있다. 건물의 외벽에는 드라마 장면 사진으로 벽을 장식하고 있어서 드라마를 보고 자란 중년이라면 젊은 시절의 배우들을 보며 추억에 잠길 수 있다.

이 체험은 비단 유명한 드라마의 현장 체험 외에도 천생연분마을처럼 계절별로 할 수 있는 체험과 전통음식이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마을 위쪽으로 올라가면 금바위 저수지를 따라 노고산으로 이어지는 걷기 좋은 길이 이어진다. 가까운 곳에 숲길정원이 있어서 함께 나들이하기에 좋고, 마을 주변에 전원일기마을 캠핑장도 있어서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다.



장흥면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풍경

천생연분마을과 전원일기마을은 돌담처럼 옛 생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기에 마을을 걷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되고 과거로의 체험이 된다. 마을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주변에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등 교통편이 편리하고 서울과 가까워 접근성이 매우 좋다.

4. 걷고 쉬며 만나는 관광, 아세안자연휴양림과 우이령길

1) 아세안의 사회적 화합 공간, 아세안자연휴양림

휴식을 위한 여행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휴양림이다. 그래서 성수기가 되면 추첨을 통해 방을 배정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 일산 등지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은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아세안자연휴양림이다.

아세안자연휴양림은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우호 증진과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목적 아래 세워졌다. 그래서 휴양림 내의 건물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통가옥을 본떠서 지었다. 물론 휴양림 주변에 있는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숲과 계곡 등 자연도 체험할 수 있다.

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행사를 살펴보면 먼저 숲 해설을 들 수 있다. 매일 하루 두 번 진행되는 숲 해설은 '흙은 어머니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며 흙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세안자연휴양림의 특색을 잘 드러내는 체험행사도 여럿 준비되어 있다. 먼저 전통의상 체험은 겨울철을 제외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아시아



아세안자연휴양림 전경(왼쪽)과 방문자센터 임유당(오른쪽)(출처 산림청)

10여 국가의 전통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체험이다. 이 외에 베트남의 전통공예인 짚은짚은(잠자리) 만들기, 여름철에 진행되는 아시아 전통음식 체험 행사,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산림문화 ‘출발! 아세안 투어’와 같은 행사도 있다.

2) 숲길이 보존된 북한산 둘레길, 송추 우이령길

휴양림은 자연 속을 거닐며 숲을 만끽하는 공간이다. 이런 성격과 닮은 곳이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우이령길이다. 우이령길은 장흥면 교현리에서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길이다. 예전에는 양주와 서울을 잇는 좁은 길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미군 공병대가 작전을 위한 도로를 만들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되었다. 우이라는 이름은 소의 귀라는 뜻으로 오봉과 상장봉 사이에 있는 소귀고개에서 유래했다.

우이령길은 1968년 간첩 침투 사건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2009년 7월부터 탐방객 숫자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시 개방된 길이다. 기본적으로 길에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오랫동안 출입이 금지된 탓에 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 걷기에 매우 적합한 길이다. 여름에는 울창한 숲, 가을에



오봉산 석굴암 가는 길

숲길 산책로 송추 우이령길(출처 클릭양주)

는 알록달록한 단풍이 아름다운 길로 유명하다. 우이령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특히 양주 쪽 우이령길은 양주를 대표하는 사찰인 석굴암을 품고 있어 여행의 의미를 더한다. 교현리에서 시작하는 우이령길을 따라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고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경사가 심한 길을 올라가면 산 높은 곳에 있는 석굴암이 나타난다.

오봉산 석굴암은 신라의 고승인 의상이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유서가 깊은 사찰이다. 여기에 산 높은 곳에 절이 있어서 풍광이 매우 뛰어나 우이령길을 걷는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오봉산 석굴암에서는 산사음악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문화를 수놓기도 한다.

5. 자연과의 건강한 만남, 장흥자생수목원과 양주 자연생태관

여행과 관광의 핵심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이다. 특히 대부분 도시에서 살며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연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 양주지역에서 자연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건강한 만남이 가능한 장소가 여럿 있다. 그 가운데 장흥자생수목원과 양주 자연생태관을 만나본다.

1) 자연 그대로가 살아 있는, 장흥자생수목원

장흥면에 있는 장흥자생수목원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산림과 자연생태를 말 그대로 보존한 곳이다. 원래 그대로의 자연 모습을 최대한 살렸기 때

원래의 자연 모습을 그대로 살린 장흥자생수목원(출처: 클릭양주)



문에 뛰어난 생태학습장이자, 고된 삶을 위로하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산림욕장이다.

장흥자생수목원에서는 수령 100년이 넘는 잣나무 숲을 비롯해 오솔길, 울창한 숲과 숲속의 쉼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계절테마원, 자연생태관, 고산식물원 등 주제에 따른 다양한 숲과 꽃을 만나볼 수 있다. 즉 숲길과 꽃길을 따라 자연과 깊이 만날 수 있다.

계절과 주변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장흥자생수목원에도 각종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살아 있는 곤충의 생태를 관찰하는 곤충체험, 동물을 구경하며 먹이를 줄 수 있는 먹이 주기 체험, 허브 양초 만들기, 허브 식물 심기, 비누와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수목원 주변 곳곳에는 숲길이 조성된 계명산의 형제봉, 일영봉, 꾀꼬리봉이 있고, 가까운 곳에 싱싱자전거마을 테마공원이 있어 서울과 고양 등지에서 찾아오는 자전거 여행객을 반긴다.



사람을 반기는 양주 자연생태관의 원숭이
(출처 클릭양주)

2) 야생동물과 함께 호흡하는, 양주 자연생태관

양주 자연생태관은 자연 가운데 움직이는 동물, 그것도 작은 동물과 곤충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작은 동물이 많은 이유는 자연생태관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버려진 애완동물을 데려와 보호하고 입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연생태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반 동물원과 달리 야생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말, 앵무새, 뱀, 도마뱀, 돼지 등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원숭이나 거위 등의 동물에게는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 야생동물 체험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양주 자연생태관은 야생동물 홍보 교육기관으로 관람과 교육, 체험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사랑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중교통이 없다는 점이다.